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12월 20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자비심이 곧 부처님이며 내 마음에 극락이 있다.
(화엄경)

법회 안내

성주암 (02)877-7180
거사림법회 매주 일 오전6시
연화법회 매월3일(금) 오전11시
청년법회 매월 1 · 3주 일 오후2시
천수경강의 1 · 3주 일 오전10시

안정사 (02)292-2439
인등법회 매월10일(금) 오전11시
관음법회 매월24일(금) 오전11시
청년회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보문사 (02)928-3797
합창단법회 매주 목 오후2시
청년회법회 매주 토 오후6시
중 · 고생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성룡사 (02)336-2052
일본법회 매주 토 오전8시30분
참기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학생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청년법회 매월1 · 3주 일 오후2시

경기 동원정사 (0346)593-7584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1시
자비행법회 매월5일(음) 오전11시
관음법회 매월24일(음)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인천 용천사 (032)502-6058
회원기도회 매월1일(음) 오전11시
합창단법회 매주 금 오후2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회법회 매주 일 오후2시

대구 은적사 (053)653-1572
거사림법회 매월 1 · 3주 수 오후4시30분
청년회법회 매주 월 오후7시
중학생법회 매주 일 오후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 은행자동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강사 양성 제도화 한다

인재들 강원보다 대학 선호…인력 절대 부족

직지사에 특수학림 개설 '전통강맥 잇기' 추진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스님)이 승가교육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기하고 각급 교육기관의 전문적 운영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을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한다. 이에 발맞추어 종단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전문강사 양성비 3억6천만원을 책정하는 등 전통 강맥잇기에 종단 차원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원은 내년 5~6월경 대강백 관응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직지사에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특수학림을 개설한다는 목표아래 현재 막바지 준비를 갖추기 위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교육원은 우선 입학자격·교과목·수학년한 등을 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 전국 승가대 강사등 교육현장에 있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1월 개최된 조계종 제119회 정기중앙종회에 보고된 지방 승가대 현황(95년 11월 현재)에 따르면 기본교육기관격인 15개 지방승가대 중 직지사와 법주사는 강주(학장)가 공석이고, 전체 학인수 880명에 비해 강사(강주·중강 포함)는 41명으로 학인 21명당 강사 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비율은 지방승가대(강원)가 다른 교육기관과는 달리 계정해 3학을 중심으로 초발심 수행자가 승가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계행과 습의를 익혀 수행자의 기틀을 마련하고 세인을 교화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곳이고 따라서 학력높은 강사들의 맨투맨식 교육이 그 어느 곳보다 뒤따라야 한다고 볼 때 강사수의 절대 부족을 심각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현 강사들의 반수 이상이 만 40세 미만이며 강사(강주·중강 포함)들의 평균 세납이 40세로 강사들의 연령이 소장층인 것도 강사로서 오래 봉직할 수 없는 요인이 내재해 왔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한 관계자는 "종단이 3대 종책사업중 하나인 도제양성을 입으로만 내세우며 실질적인 대책은 전무했고 그동안 종단분규등에 휩쓸려 인재 키우는데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사의 위치가 불분명하고 열악한 대우등 강사들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안돼 있어 강원에 남기보다는 동국대 등 대학으로 가려는 추세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교육원 교육부장 향적스님은 "특수 학림이 설치되면 현재 학력 높은 대 강백들을 교수진으로, 인재들을 선발해 집중 교육을 통해 전통 강맥을 잇고, 각 승가교육기관의 교육을 담당케 할 계획"이라 밝혔다.

종단이 3억6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책정, 강사양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대해 교육 관계자들은 전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열악한 조건하에서 후진을 위해 헌신하는 현 강사들에 대해 정신적·물질적인 종단차원의 예우도 충분히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경숙 기자〉

성보전시관 건립추진위 구성

용주사등 8곳 부지선정등 기준 마련키로

조계종은 지난 14일 8개 본사와 총무원이 참여하는 '성보전시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사찰유물(성보) 전시관 건립을 본격화했다.

성보전시관 건립 정부지원예산 40억원이 지난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8개 본사 주지들은 지난 14일 회의를 갖고 건립추진위원장에 현해스님(월정사 주지) 간사에 보선(대흥사) 돈명(은해사)스님을 선임, 내년 시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건립추진위는 앞으로 8개 사찰 공동으로 전시관 건립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마련 명칭, 부지선정, 전시방안 등을 결정하게 된다.

전시관의 건립위치는 총무원과 문화재전문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가람의 배치와 건립 규모, 역사를 감안해 적절히 선정하며 본 말사간의 사전 합의를 통해 전시대상 유물을 선정키로 했다.

성보전시관이 건립되는 8개 사찰은 용주 월정 수덕 해인 마곡 금산 대흥 선운사이다.

목어

인도에 가 보니…

"헬로우 복시" "루삐" "라이터·볼펜"

인도에 가보니 거지나 다름없는 아이들이 외국인들에게 벌떼같이 달려들며 손을 내민다. 한국의 성지순례단은 너나없이 가엾은 마음을 낸다. 대부분 불자들은 그 구걸을 외면하지 않고 루삐(인도 화폐)를 쥐어 주던지 아니면 갖고있는 볼펜·라이터 혹은 사탕·과자등을 준다.

'복시'는 보시란 말이다. 그들은 특히 한국·일본의 성지순례단에 보시를 요구한다. 서양사람들을 따라다니며 손내미는 모습은 10일동안 별로 못보았다.

"내가 당신의 복밭이 되어 줄터이니 나에게 기꺼이 복의 씨를 뿌리시오."

'복시'를 원하는 그들의 구걸에는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다. 그러나 그 복밭이 스스로 씨앗을 발아시킬 수 없을 경우 스쳐 지나가듯, 언발에 오줌 누듯 단발적으로 복씨를 뿌린들 그것은 작복일 수 없다. 오히려 사탕을 같은 작은 선심이 그 아이들을 영원히 걸인으로 살게 할 지도 모른다. 꼭 돕고 싶다면 부처님의 나라 어린이들을 위한 교단차원의 새로운 보시책을 세우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때문에 스님들과 현지 관리인들 간에 불화가 생기고, 그래서 성금함에만 보시를 하라는 안내원의 당부도 있었다. 부다가야 대탑의 경우 불교와 힌두교가 공동관리하고 있다. 그 문제는 이제 심각하여 시위가 계속될 정도다.

차칫 잘못하면 보시와 성금이 아니라 인도인들을 오염시키는데 한국 성지순례단이 한 몫을 거들게 된다.

지금은 인도 성지순례 시즌이다.

"불자 여러분, 인도를 오염시키지 맙시다."



"온정으로 피어나는 깨달음의 꽃" 조계종 총무원은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의 하나로 연말연시를 맞이 '불우이웃돕기 및 소외된 이웃돌아보기 운동'을 시작했다.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14일 혜명보육원과 양로원을 방문, 어린이와 노인들의 따뜻한 겨울맞이를 위한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운동은 내년 1월초까지 전국 본·말사를 중심으로 전개돼 따뜻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더욱 널리 펼쳐나갈 계획이다. 〈사진=고영배 기자〉

부처님 땅에서 성도절을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4대명절 가운데 가장 거룩한 날인 성도절을 부처님의 땅 인도에서 맞이하고자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80생애를 고스란히 간직한 인도성지는 부처님의 체취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시대 우리들에게 깨달음과 자비의 실천이 무엇인지 일깨워 줄 것입니다. 1996년 새해,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을 잉태한 인도성지 참배로 큰 감동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발자취따라 '우리도 부처님 같이'

'현대불교 인도 성지순례단'…28일 접수마감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협 찬 : 해초여행사 - 수미산여행사 (성지순례 전문업체)
성 지 : 인도 - 네팔 (녹야원, 보드가야, 라즈기르, 바이샬리, 쿠시나가라, 기원정사, 룸비니 등)
일 정 : 9박 10일
참 가 비 : 155만원(여권 인지대 45,000원 별도)
접수마감 : 12월 28일
접 수 처 :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37-8881
팩스 : (02)737-0697

출발일정
- 1차 : 96. 1. 17
- 2차 : 96. 1. 24
- 3차 : 96. 1. 26
- 4차 : 96. 1. 31
- 5차 : 96. 2. 4

여행조건
- 1급호텔 기준 2인1실 (성지지역은 현지 최고 수준)
- 전일정 식사포함(기내식포함)
성지 지역 : 한식제공
- 해외여행보험, 공항세, 인도 · 네팔 비자 수수료 포함
- 인도성지 전문 안내원 동행

※ 기타문의 사항은 개별적으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02)737-8881)

특집 인도 속의 한국불교 14면
조계종 신도회 결성 난항 15면
사찰·신행단체 겨울 불교캠프 11면

DU PONT

21세기의 시각 —
듀폰의 눈은 깊고 넓습니다.

200여 년 듀폰의 역사가
바로 첨단 기술의 역사입니다.

1802년 시작된 듀폰 200여 년의 기업 역사에는
혁신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1903년 세계 최초로 민간 연구소 설립,
1938년 꿈의 섬유 나일론 개발 등,
현재 22개국 70여 개 연구소를 통해
기초 생명과학에서
섬유, 화학, 농업, 전자, 에너지,
자동차, 항공 분야에 이르기까지
첨단 기술의 역사를 만들어 온 듀폰은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종합 화학회사로서
그 명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듀폰은
건강한 기업활동을 위해서는 지구촌 어느 곳에서든지
안전, 환경 및 윤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터득하여,
오늘도 이를 기업 정신으로 이어받아
성실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과학적으로 —
듀폰의 21세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800여 종의
우수한 산업용 소재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듀폰은
고객과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남다른 파트너 정신을 바탕으로
고객이 최고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고객 최고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 태평양 지역 15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듀폰은
이천 및 울산 단지의 공장을 통해
국내 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함은 물론,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의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보다 좋은 제품을 추구하는 듀폰 —
21세기의 시각으로 세계를 만들어가는
듀폰의 눈은 깊고 넓습니다.

한국 듀폰
㉾135-082
서울 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6번지 아세아 타워 4·5층

사 설

강원강사 육성 '값진 결정'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조계종의 3대 종책사업의 하나라고 하지만 도제양성은 단연 첫번째가 아닐 수 없다. 승려교육은 일반교육과는 전혀 다르다. 요즈음 대학이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되어 대학만이 최고 지성인을 양성하고 대학교육만이 최고의 교육이라고 하지만, 승려교육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대학에서 석사·박사를 하고 교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승려의 교육은 절에서 익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교육기관인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이 아무리 질 높은 불교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소위 승려의 물을 들여 스님의 멋을 느끼게 하지는 못한다고 본다. 스님은 어쨌든 산중의 절에서 장판의 때가 묻고 대중의 물이 들어야 승려 본연의 품위가 배어 나온다.

강원교육이 언제부터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잡아 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불교의 강원은 승려의 기본교육기관으로 승려를 스님되게 하는 산실로서 역할을 하여 왔다. 결국 불교의 미래는 승가교육기관인 강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강원(지방승가대학)에 강사(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언젠가 어떤 대본사에서 강원에 강주를 모시지 못하여 고심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물론 문제는 있다. 본래 선원에서는 조실이 어른이고 강원에서는 강주가 어른이었다. 그런데 어떤 풍조인지 조실은 대단히 권위적인 대접을 받게 되었으나 강원의 강주는 주지 마음대로 바뀔수 있고 산중 어른의 자리에서 교무의 밑자리로 밀려나 버렸다.

이러한 차제에 강사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되고 강원대신 대학이라는 엉거주춤한 명칭이 붙어 중앙승가대학과 혼돈을 일으키게 되었다. 또 젊은 승려들이 대학이라는 명상(名相)에 이목을 팔게 되면서 산중강원의 학인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대접 소홀한 강원 강사의 길로 나아갈 스님도 점차 보기 드물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조계종 교육원이 종래에 없던 전문전통강원의 강사를 양성하여 출가교육의 종가인 강원교육을 되살리겠다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듣자니 어려운 종단예산에서 확보된 교육예산은 중앙승가대학 지원에 쏠기면서도 3억6천만원이란 예산을 확보하여 직지사에 강사양성을 위한 특수학림을 설치하고 전문강원 강사 지망생 20명 정도를 선발하여 전문연구에 몰두하도록 한다고 한다.

불교계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하고 옳곧은 일이다. 중앙승가대학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산중에 있는 전통강원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우려해온 상황에서 미련된 종책이라 적극 환영한다.

승려의 기본교육은 반드시 수행이 중요시되어야 한다. 수행교육은 나름의 독특하고도 일정한 청규가 수반되어야 값지게 된다. 이번 조계종 교육원의 강사양성 계획은 계(戒)·정(定)·혜(慧)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충실히 뒷바라지를 하면 한국불교의 전통적인 승단가풍은 바로 여기서 열매 맺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인재불사를 30년 대작불사를 마무리한 직지사가 유치하게 된 것은 해당사찰의 교육열의를 잘 반영한 것이라 본다. 이제 한국불교의 동량을 세우는 종단의 교육불사가 차근차근 원만성취 되도록 종단과 종도들의 관심과 동참, 지원이 적극 뒤따라야 하겠다.

열 린 마 당

문화재보호법 개정

교계의 오랜 숙원이던 문화재 보호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관람료 금액 결정의 자율화, 예치금제도의 폐지, 경미한 현상변경의 자율화 등이 그 주내용으로 불필요한 행정규제가 폐지됨으로써 교계는 문화재 보호에 대한 자율성을 한층 높이게 되었다. 법안통과를 계기로 교계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관람료 관리, 성보관리, 불교문화 홍보 등 각 방편으로 전문기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관람료 수입 각종 불사에 폭넓게 써야

덕 신 〈스님·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

불필요한 행정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 금액결정 등 자율권을 넘겨받은 종단에서는 이를 여법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관람료 사찰주지회의를 거쳐 관람료 관리법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관람료 책정 및 관리료 사찰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람료위원회를 설치하며 관람권 발행은 본사와 의논해 당해 사찰이 자율적으로 하게 된다. 관람료의 사용은 사찰운영 및 성보관리, 문화재 보수 등에 쓰이며 매월 관람료 총 수입의 30%를 총무원과 공동예치해 문화재의 보수 등 종단불사에 쓰게된다.

이로써 수년간 묶여있던 관람료 인상이 자율적으로 조정되어 관람료 수입이 도제양성, 포교 등 종단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탄력있게 쓰여질 수 있다.

관람료 관리법안은 내년 3월 결산종회에서 다시 검토, 통과될 전망이다. 그래야만 국회에서 통과된 문화재 보호법의 시행일인 7월1일 이전에 교계는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종단은 문화재 관람료와 공원 입장료 합동징수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국립공원과 관련한 종단의 입장을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참배공간 활용…보존관리 능력 배가

박 상 국 〈문화재관리국 전문위원〉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은 성보관리 정책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국가에 의존해온 것에서 탈피, 불교계의 관리능력이 인정된 결과이다. 다시말해 불교계가 스스로 성보관리에 부과된 자율성만큼 책임을 다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성보관리 체계의 새로운 흐름을 맞이하면서 불교계는 우선 성보에 대한 개념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성보는 역사적으로 우리 조상이 지녔던 예술성과 지극한 신앙심이 결집된 성스러운 문화재이다. 성보한점 한점은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에 알리고 펼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따라서 역사성에 국한시키지 않는 신앙의 대상이며 신앙행위를 위한 대상이므로 단지 관람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보는 신앙생활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해당 사찰의 해당 전각을 떠난 성보는 그 빛을 잃게 된다. 신앙대상인 성보를 창고나 금고속에 가두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보의 관리는 본사중심으로 박물관 같은 관람의 공간보다는 참배의 공간으로서의 집중 보존시설을 건립하는 방법이 좋겠다. 여기에 화재나 도난에 대비한 시설을 강화한 금고형 봉안시설을 설치하면 더욱 바람직하겠다.

또한 성보를 지키고 가꾸는 일이 바로 신앙행위이기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겠지만 신도조직을 가동하여 기도와 방범으로써 지키는데 힘을 쏟아야겠다. 그밖에 부식상태 습기 붕괴 오염정도 등에 대한 판단을 면밀히 해야 한다.

성보를 통해서 민족의 얼과 문화를 발굴하고 불교의 참정신을 현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보의 보존 관리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성보전담기구 설립 연구·계몽 등 주력

이 기 선 〈불교조형연구소 소장〉

이 일을 계기로 누가(who), 무엇을(what), 어떻게(how), 보전관리할 것인지 기본적인 제도와 기구를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정부의 문화재보전(保全)정책에 끌려가던 타율성에서 벗어나 불교계 스스로가 자율성을 확보하여야 하겠다.

우선 성보문화재보전법을 제정하자. 성보의 개념과 그 범주, 보전관리의 대상과 방식, 보전관리의 주체와 그 권리 의무사항, 전담기구의 설립과 운영, 성보의 보전관리를 활용한 홍법, 계몽, 교육 등등의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법규와 긴밀한 법률적 틀을 갖추어야 하겠다.

둘째로, 성보문화재보전관리기금을 조성하자. 성보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자율권을 확보하였으므로 마땅히 일정비율을 문화재보전관리기금으로 조성하여 문화재 보전관리를 위한 연구 조사 수집 보존 전시 교육 계몽에 활용토록 하자.

셋째로, 성보문화재의 보전관리를 위한 전담기구의 설립이다. 성보문화재의 보전관리의 주체 그리고 전문기관으로 정부의 문화재관리국에 견줄 수 있는 중앙기구를 불교계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

넷째로, 성보문화재를 활용한 홍법의 극대화 방안이다. 안내책자의 간행, 전문 안내인에 의한 설명이 현장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하겠고 나아가 국제적인 문화교류도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찰공간을 활용한 각종 문화행사가 기획되어 우리 문화를 이끄는 주체가 불교문화임을 새로이 인식시켜야 하겠다.

시 론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최근 저축추진중앙위원회가 30세이상 도시사람들의 노후생활에 관한 의식 및 준비실태 조사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인 95%가 자신의 노후생활을 부양할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다고 응답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자립의지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통적인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가치가 개인적 가치에 우선했고 '효'라는 윤리적 원칙이 가족관계의 근본 원리였다. 노인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노후', '행복한 노인'의 이미지는 많은 효성스런 자식과 손 자녀에 둘러싸여 가족과 지역사회의 존경과 권위, 명예를 누리며 장수하는 것이었으니 여기서 노인은 연장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재산을 관리했고 전통의 수호자로 여러 의식(儀式)을 주관했으며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家長)의 위치를 향유하였다.

그러나 산업화와 함께 개인주의와 독립성에 대한 가치가 전통의 가족주의보다 우위의 가치로서 점차 현대 한국문화를 지배하면서 가족주의라는 보호장치를 잃은 오늘의 노인들은 고립과 불안정의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이한 것은 젊은 이들의 노인부양의식 변화와 함께 노인 스스로도 자녀들로부터 떨어져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흡로서기 노인'들이 월등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인 스스로의 의식변화는 단지 쓸모없는 존재이거나 부담스러운 존재로 생각되고 싶지 않은 노인들이 자신의 사회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만이 그런 대우를 받지 않을 방법이라는 믿음에서 외로움과 고독의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독립성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각 현 〈스님·연꽃마을 이사장〉

이와같이 노인의 부양을 담당해 왔던 가족부양기능이 산업화로 인해 가족의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데 반해 노인들은 자신들의 경제활동기에 노후준비를 위한 정신적, 물질적 여유없이 오늘에 이르렀으며 또한 오늘의 노인들은 현시대에 요구되는 제반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채 냉정한 현실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흡로서기 노인' 증가

근대 서구의 사회정책의 역사는 노령화와 함께 그에 수반되는 위험들에 대비하여, 특히 흡로 고립될 수 있는 노인의 부양을 위해 적지 않은 재정을 마련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더이상 노인의 문제는 한 가족내의 문제가 아닐 뿐더러 이들의 문제를 가족에게만 떠넘겨서는 노인문제의 해결 내지는 노인복지증진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까지의 우리 사회는 노인의 문제를 단지 가족내의 문제로만 여겨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한 현세대 노인들을 위하여 전통적인 가족의 노부모 부양기능을 보완, 대체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제가 마련되지 않고 노인문제를 가정의 문제로 일임했던 것이 사실이다. '선 가정보호 후 복지'라는 논리로 노인복지는 늘 뒷전이었다. 이제 더이상 노인문제를 노인 스스로 혹은 그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 그네들이 안고 있는 모든 슬픔과 고뇌, 아픔을 국가, 사회가 나눠지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결코 노인문제 해결 내지 노인복지증진은 이뤄낼 수 없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이다.

효 실천이 보살정신

오늘날 우리사회 노인들의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양상중의 하나는 경제적인 불안정이며 또 하나는 노인의 건강악화와 건강보호 문제이다. 이 두가지와 함께 노인의 역할상실 문제와 사회·심리적인 갈등과 소외문제 등을 한데 묶어 '노인의 4고(苦)'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문제들은 각각 별개의 문제로 각각의 해결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각각이 서로 얽히고 설켜있듯이 그 해결점 역시 종합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가장 어려웠던 시대를 감내해 오면서 오늘의 1만불 시대를 이룩한 장본인들인 오늘의 노인들은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으면서 가족과 사회 국가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고독속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사회는 이 분들의 희망없는 삶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보다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복지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전통의 '효'정신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사회변화에 따라 가족주의 가치관이나 '효' 정신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는 있지만 우리사회에 나타나는 갖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 하는 뿌리는 역시 '효'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불교의 효는 보은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은혜는 일체중생으로부터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자기 부모에 대한 보은의 실천은 일체중생에 대한 보은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것은 바로 중생구제의 보살정신이며 경로사상의 승화이며 동시에 생명존중 정신의 구현인 것이다.

현대만평

박구원



어디로 가고 있나…

"암·중풍·성인병·부인병·신경통·관절염·당뇨병·고혈압·심장병 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보급 안내

◉ 쑥뜸은 몇천년 동안 인체의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가 매우 우수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왔으나 뜨거운 고통을 견디기 어렵고 몸에 흉터가 생긴다는 이유 하나로 외면되어 왔습니다.
"이제, 바라밀쑥뜸기로 뜨거운 고통없이 자신의 질병을 완치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재 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 평생 질병에 시달리지 않는 건강한 삶을 원하시는 분, 수십만원대의 보약과 약을 드시고, 별 방법을 다 써봐도 효과를 못 보신 분, "이런 분은,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 쑥뜸기로 집안에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요!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으로 왜 인체의 병이 치료되는가?

인체에 병이 생기는 것은 마비, 화장, 염증, 수축, 경화, 세균, 내분비 부조화, 혈액순환장애, 신경과 체액의 불균형, 기(氣)의 순환이 원활치 못하는 등으로 병이 생기는데 바라밀 쑥뜸으로 온몸에 퍼져있는 음경맥을 책임지는 경맥중 배꼽, 단전, 중완혈에 쑥뜸의 강한 에너지를 경락에 투입시키고 피부호흡, 모세혈관, 기혈(氣血) 작용을 적용시켜 기혈을 순환시키며, 5장6부와 각 기관과 조직에 기혈을 보충시켜주고 염증과 세균과 온몸의 노폐물을 배설시켜주어 질병을 치유하는 원리이다.

즉 쑥뜸은 쑥을 태울 때 생기는 쑥엑기스의 성분과 열자극으로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바라밀 쑥뜸에서는 쑥엑기스를 최대한 많이 피부표피(땀구멍) 속으로 흡수시켜 거기에 오장육부와 14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고통이 없는 열자극까지 주어 염증을 억제하고 노폐물을 산화시켜 병을 치료시키는 원리이다. 살갗을 태워서 뜨거운 고통이나 염증을 생기게 하는 재래식 쑥뜸방법은 주로 뜨거운 열자극 효과로만 병을 치료코자하여 병을 완치시키는데는 참기 어려운 고통과 함께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효한 것이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 · 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이상, 생리불순, 냉증, 질염, 요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저·고혈압, 폐렵,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갱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군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체질,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바라밀쑥뜸기의 원리요법과 특징

신약중의 신약인 장수 약쑥만을 엄선하여 쑥뜸의 재료로 사용하고 약쑥의 생명력으로 질병치료와 비효한 법혈을 맛볼 수 있게 하였다.

한약재와 곡물과 경면주사 등 10여가지로 만든 쑥뜸기둥 랑 받침대

약쑥이 타면서 발생하는 쑥엑기스와 랑받침대의 약효성분이 합쳐져서 쑥뜸기의 작용으로 3군데 혈자리 경혈속으로 새지않고 스며들게 하여 5장6부의 기혈을 순환시키고 염증과 세균을 제거하여 질병을 치유시킨다. 이때 피부표면에 발이는 쑥엑기스는 항암, 항균, 항독작용을 하는 인터페론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쑥뜸치료와 병행하여 복용하는 명약을 얻을 수 있다.



쑥뜸기 내용
1) 바라밀 쑥뜸을 뜰 수 있는 15가지 도구셋트화(강화약쑥 약 2개월분 포함)
2) 쑥뜸도구일체 반영구적
3) 쑥뜸기 완셋트로 전가족이 사용



주위사람 도움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전징초법

■ 바라밀쑥뜸기를 개발하신 각광스님 약력
•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부설 불교바라밀건강연구원 원장
• 100년만 불교건강법 및 자연건강법을 연구·수련
• 다년간 수련생을 모집하여 수련과 강의를 하고 있음

암 등의 난치병은 물론이고 작은 질병에서 큰 질병까지 온갖 질병을 집안에서 자기손으로 쉽게 치유시킬 수 있으며 질병에 대한 체내의 면역기능과 저항력을 증강시켜 주는 바라밀 쑥뜸기

● 사찰에서 요청시 순회강의도 해드리며 신도들에게 스님께서 직접 보급하시고자 하면 본회에서 일차 스님을 찾아뵙고 보급방법 등을 의논드리겠습니다.
(보급후 바로 불사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고급 백색 공단천위에 100% 경면주사로 제작된 금강경 신탑다라니(규격:60cm×160cm)의 엄청난 위신력을 아십니까?

돌아가신 분들에게 극락왕생하도록 덮어주던 탑다라니를 영적인 기를 발하도록 100% 경면주사로 만들어 살아있는 사람이 깔고 덮는다면 살아 극락을 찾고 일체 재해를 소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하에 시도된 탑다라니의 사용이 실로 믿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일이 수없이 일어나는 데에 많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토록 어려웠던 사업의 운세가 호운으로 바뀌고, 아픈 사람이 저절로 병이 낫고, 수험생이 집중력이 생기고 실수를 하지 않아 거의다 합격하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운기가 좋은 운기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증예 바라밀 쑥뜸 건강치료요법 책자 참조)
현재 이러한 영험력을 경험한 스님들과 신도들에 의해 많은 신도들이 식구수대로 다투어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바라밀 쑥뜸 뜰 때 이러한 영험력이 합쳐져 질병이 빠르게 완치될 수 있도록 쑥뜸기 구입시 금강경 신탑다라니 1품씩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구입문의 및 상담 불교 바라밀 건강연구회

■ 부산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
(한신상가 5층 5층)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원장 각광스님)
• 부설 : 불교바라밀건강연구회
• 전화 : (051) 864-3740

■ 서울·경기 :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 전화 : (0335) 34-9490, 39-1906
/ 야간 : (0342) 706-3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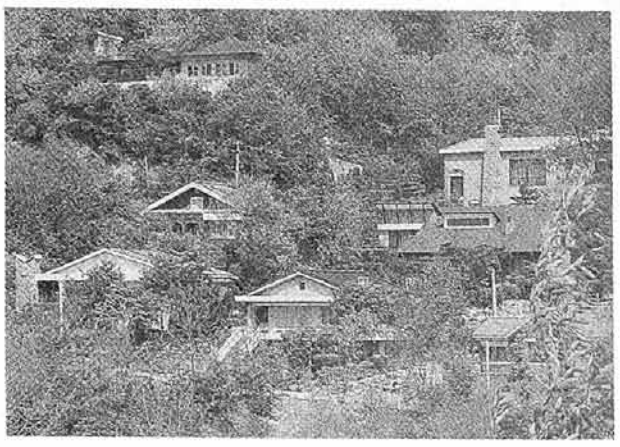
부처님의 지구 사랑

전 재 성 ㊲·〈끝〉

"이제는 '숲'으로 돌아가자"

자연은 안식처…욕망 제거·동식물 보호를

'대도시는 지구 암세포'…'전원化' 만이 살길



◇숲은 생명을 보호한다. 삭막한 도시를 숲과 나무와 꽃으로 전원화 하는 일이 시급하다.

생명의 조화

식물들은 어머니인 자연이 모든 인류에게 베푸는 위대한 혜택이다. 식물들은 음식, 가구, 의약, 도구, 천연자원 등을 제공할뿐만 아니라 더러워진 공기와 물을 정화시킨다.

불교적 의미에서 이러한 식물들의 생명현상에의 기여는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식물들은 인간의 정신적인 사유와 능력을 고양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의 가장 중요한 생명현상인 식물과 숲의 보호는 우리의 성스러운 의무이기도 한 것이다.

불교적 가르침과 무집착의 이념은 식물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하여 생명의 아름다움을 고양시키는 원천이다. 부처님은 그래서 우리의 욕망의 숲을 자르고 자연의 숲을 보존하길 원했다. 진리를 깨달은 아라한들은 숲·나무·강·언덕을 마음에 드는 명상장소로 택했다. 테라가타(장로게)는 "욕망의 만족을 추구하는 자는 아름다운 나무들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 거룩한 자들은 숲속에서 살기를 좋아한다"라고 노래하고 있다.

현대의 생태학자들의 이상은 2천5백년전의 붓다에게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붓다는 출세간적 진리만을 설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차원에서의 생명현상의 보존에 관하여 역설하셨다. 쌍윳따니까야에서는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고 공원을 조성하고 다리를 만들고 길을 닦는 것 등이 얼마나 많은 공덕을 쌓는 것인가를 설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나중에 아쇼카왕은 모든 생명현상을 고양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 아쇼카왕은 식물의 보호는 모든 동물의 보호뿐만 아니라 인간사회의 정신적 고양에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기르나르비문에서는 인간과 동물에 유익한 약초를 심고, 길가에 우물을 팠다는 기록까지 볼 수 있다.

자연속에서의 모든 생명현상의 조화는 명상이라고 하는 정신적 고양을 위한 기본적 토대가 된다. 인간의 무지에 바탕을 둔 의도적 사유가 만들어낸 환경오염의 혼돈과 죽음은 현대 산업사회의 기계-시멘트 문화속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혼돈속에서 생명의 질서를 찾아 그것을 고양시키기 위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연을 우리의 생활속에 다시 실현시키는 길밖에 없다. 욕망의 숲을 사르고 자연의 숲을 보호하는 길이다. 자연의 숲이야말로 모든 생명의 안식처이므로 바로 생명의 숲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도시 중심의 현대문명은 커다란 전환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인공위성에서 본 세계의 주요도시는 지구라는 암환자의 암세포처럼 검붉게 퍼져가고 있다. 지구는 더이상 푸르고 아름다운 별이 아니다. 지구의 암세포속에서 살고있는 우리의 마음도 더이상 푸르고 아름답지 않을뿐만 아니라 갖가지 욕망으로 가득차서 검붉은 숲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욕망의 숲을 자르라는 욕망의 소멸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태적으로 볼 때, 소극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암세포의 소멸을 수반하는 생명의 가르침이다.

이러한 현대문명의 반생명적인 암세포의 문화를 소멸시키는 길은, 그것의 수반적 자유로써 우리의 주거공간, 작업장 나아가서는 도시전체를 숲과 나무와 꽃과 식물로서 전원화하는 일이다. 그래서 각종 공해를 흡수하고, 생명현상의 조화를 통해 불필요한 욕망을 확대 재생산하지 않도록 해 점차적으로 자연이 부여한 생명의 숲으로 되돌아가는 길 뿐이다.

〈한국불교대 교수〉

'95 신행 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최근들어 신행단체의 재가 불자들을 대상으로 사경법회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사경(寫經)에는 깊은 신앙심과 정진력이 깃들어 있고 그 행위자체가 신심의 표현이며 생활인 점이 재인식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경전을 사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경전을 필사 배포한다는 예전의 뜻은 많이 퇴색됐다. 이젠 신의 수행 또는 정진을 위한 신행의 방편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다.

지난 1일부터 한달간 금강경 사경기도에 들어간 보명화보살(대구 산격동)은 "그동안 불교에 입문하여 많은 기도를 해왔지만 사경은 시간이 나는대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한자한자 쓰며 경전을 익힌다는 점에서 마음이 뿌듯하다"며 "이번 금강경 사경기도에 너무나 환희심이 생겨 다른 경전의 사경기도도 계속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사경이란 경전속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자한자 되새겨 마음속에 각인시킬 수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사경하는 행위자체가 참회요 염불이요 기도요 참선이란 것이다. 때문에 사경은 경전을 단순히 필사한다거나 일회성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경구 하나하나를 음미하듯 정성을 들여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을 권한다. 예전의 '1자 3배'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경하기 전에 염불과 축원 등 의식이 병행된다면 사경하는 의미는 한층 더 값질 것이다.

금주의 주제

사경하기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각인

'1字3拜' 정신으로 쓰면 그대로 염불·참선

한해를 마무리하는 요즈음 우리 주위엔 벌써부터 망년회, 연말연휴 여행계획 등으로 떠들썩하다.

연말을 취미생활이나 여행 등으로 떠들썩하게 보내는 것도 생활의 재충전을 위해 의미깊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사찰에서 도반과 함께 또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법의 창고인 경전을 간가지 선택해 사경하는 것도 한해를 의미깊게 마무리하는 좋은 지혜일 것이다.

신행수첩

멋진 삶을 수놓아요

조계사 생활·문화강좌

이제부터는 올 한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계획으로 또 다른 한 해를 맞을 준비를 해야하는 시간이다.

모든 준비가 그렇듯이 자신의 삶을 살찌우고 보다 알찬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자신을 수놓을 것인가가 고민스러울 수 밖에 없다.

조계사가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이런 고민을 해소시켜줄만한 문화강좌를 개최한다.

오는 1월8일부터 열리는 이번 문화강좌는 3개월 과정으로 불화그리기를 비롯 서예, 사군자, 동양화, 판소리, 단소, 남도민요등 우리 얼이 담긴 전통문화강좌가 선보인다.

또 색지공예, 홈패션, 다도, 꽃꽂이, 토탈 메이크업등 자신과 자신의 삶의 공간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교양강좌도 함께 열린다.

이외에도 2개월 과정의 선체조와 1개월 과정의 한국무용등 다양한 강좌가 함께 열려 각자 개인의 취미에 맞는 강좌를 폭넓게 선택할 수 있다.

이번 강좌는 방학을 맞은 자녀들이나 부부가 함께 하면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02)732-2115

보기드문 3층대웅전

터사랑 쌍봉사 문화기행

값진 문화재를 3점이나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불편한 교통탓에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 진가를 널리 알리지 못하고 있는 고찰이 있다.

전남 화순 증조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쌍봉사. 쌍봉사엘 오르다 보면 멀리서도 한 눈에 들어오는 특이한 구조의 대웅전이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이 대웅전(보물 제163호)은 중기 이조의 건물로 사각석단을 쌓고 약간씩 체감하여 삼층을 올린 것으로 특이한 외형과 섬세하고 우수한 수법을 자랑한다.

절 뒷편에는 철감선사탑(국보 제57호)과 철감선사탑비(보물 제170호)가 있는데 철감선사탑은 전형적인 신라부도로서 지극히 화려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순례모임 터사랑이 오는 23, 24일 송광사, 운주사, 그리고 이곳 쌍봉사로 국토문화기행을 마련했다.

쌍봉사에 가기 전에 들러볼 만한 곳은 화순 이양면에 소재한 송석정과 150m 높이의 청홍색 단애 적벽(赤壁) 등으로 쌍봉사로 가는 길을 흥겹게 해주기에 충분하다. (02)725-1284

억압보다 사랑의 품으로

청교련, 비행청소년수련회

비행청소년. 요즘 부쩍 학원폭력 등으로 인해 우리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단어다. 그러나 그들을 무작정 적대시하고 억압속으로 치밀어 넣을 수만은 없다.

부패와 단절된 정(情)에 삭막해져가는 이 사회를 구할 수 있는 길은 미래사회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을 따뜻한 가슴으로 미래사회로 선도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한순간의 실수로 비행청소년으로 전락한 이들을 얼마나 따뜻한 가슴으로 감싸고 순화시키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청교련 인천지부(지부장 선일스님)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보호관찰자를 대상으로 '너와 나 우리 하나되어'는 라는 캐치프레이즈의 수련회를 마련, 비행청소년들 선도에 앞장선다.

인천 강화청소년수련원에서 무료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불교계가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에서 청소년을 선도하고 건전하게 여가를 보내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032)888-3228

푸른내일의 꿈 키운다

삼전복지관 색종이접기교실

어릴때 가장 재미있었거나 감명깊었던 일은 평생 가슴속에 남아 인생의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

해맑은 웃음과 웅대한 꿈으로 가득찬 어린이들을 위해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삼전복지관(관장 보각스님)이 매주 화·목요일 색종이 접기교실을 연다.

유아에서부터 국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색종이접기교실은 벌써부터 어린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빨강 노랑 파랑색 등의 색종이를 가위, 풀, 자등을 이용해 마음껏 자르고 붙여서 비행기도 만들고, 왕관도 만들고, 예쁜 옷도 만들어 볼 수 있다.

특히 색종이접기교실은 멋지고 예쁜 친구들도 사귈수 있어 더욱 재미있고 유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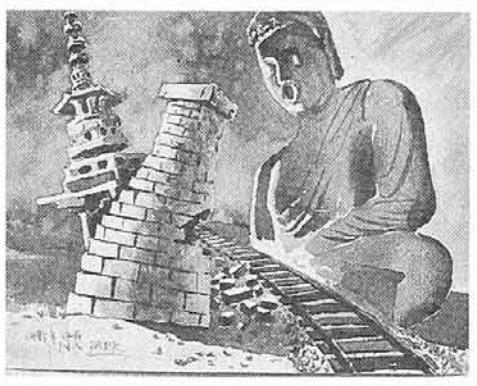
(02)421-6077

고속철 경주통과반대지상전

무너지는 소리

박흥순作

◇1952년 충북 청원에서 태어나 중앙대 예술대학과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40여 차례의 개인전과 그룹전을 가진 중견작가다. 민족미술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민중의 아시아展' '시련과 아픔의 세월展' 등을 통해 현실과의 팽팽한 긴장관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팥죽공양' 자비 넘치는 따뜻한 세밑

22일 동지…절마다 법회·이웃돕기등 '잔치' 풍성

동지는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긴 날로 고대인들은 이날을 태양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날로 생각하고 축제를 벌여 태양신에 대한 제사를 올렸다.

동짓날에는 또 팥죽을 쑤어 나눠 먹는 풍습이 있는데 이는 동짓날 죽어서 역신(疫神)이 된 망나니가 평소 팥을 두려워 했기 때문에 악귀를 쫓기 위한 것이라고 중국의 〈형초세시기〉는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세시풍속이 불교와 결합하면서 불교에서는 동지를 보시를 실천하는 새로운 형태의 풍속으로 바꾸어가고 있다.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 032-663-7771)는 동짓날인 22일 지역 운전불자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법회를 시작으로 부천역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한 팥죽공양과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행사를 벌인다.

성동구 능인정사(주지 법경, 462-1335)는 이날 떡과 팥죽을 마련, 성수1등 양로원등 5개 양로원을 방문해 경로잔치를 베푼다.

또 광명선원(주지 초격, 584-1108)은 신도가족과 지역주민을 초청해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송년모임행사를 갖는다.

법련사(주지 현호, 733-5322)는 새로 신축한 영산대법전 법당에서 이주(移主)법회를 봉행하고 새출발의 의미를 다진다.

이외에 각 지역 대부분의 사찰에서도 동지법회를 열고 지역민들과 즐거움을 함께 하는 시간으로 정착시켜가고 있다.

생활 속의 불교 ㊹

그물처럼 얽힌 삶의 관계 속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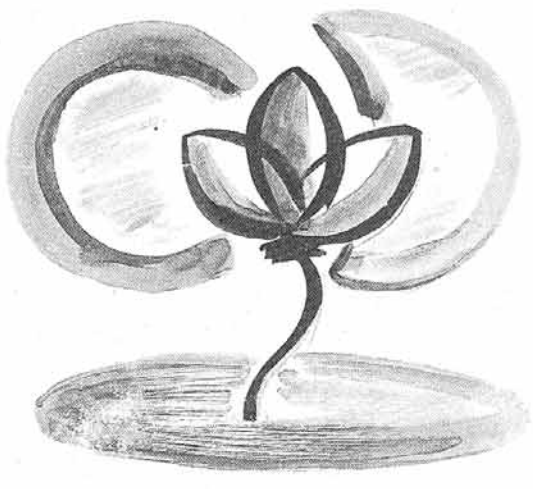
누구나 다 나라 잘 되기를 바란다. 누구나 다 내 직장, 내 가정 잘 되기를 원한다. 내 나라 내 직장 내 가정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잘 되는 경우보다 잘못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느껴진다. 무슨 까닭인가?

불가에서는 그 원인을 무명(無明)에서 찾는다. 무명이 탐·진·치 삼독심(三毒心)을 낳고 삼독심은 온갖 번뇌망상을 빚어내기 때문에 세상이 온통 고(苦)의 바다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무엇을 무명이라 하는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본래 상호관계의 산물이라서 그 관계의 그물을 벗어나서는 한 순간도 존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것을 무명이라 한다. 다시 말해 '나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나'를 고집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다. 생명체로서의 당연한 욕구인 생존·생리의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기 확인, 자존자애의 욕구가 있다. 이런 욕구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라서 그런 욕구가 있느니 없느니 따질 필요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누구나 다 내 생명의 소중함이 당연스럽고 내 이익, 내 감정에 애착을 갖게 마련이다. 고로 '나'를 앞세우고 '나'를 잣대로 삼아 세상을 상대하고 사물을 평가하는 행위를 나무랄 수는 없다. 따라서 '나'를 고집하는 게 무명이요, 그 점이 바로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잘못되는 원인이 된다 해도 개개인으로서는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돌려 보면 우리는 금새 '나'를 고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글을 쓰고 있는 나를 되돌아 보자. 이



원고지·연필·책상·의자, 이 사무실·건물, 이 도시·이 땅·이 지구… 이런 것들이 없다면 글을 쓰는 나도 없을 것이다. 아니, 내 부모, 내 부모의 부모, 조상들이 없다면 지금 이 글을 쓰는 나 또한 없을 것이다.

내가 쓰고 있는 이 한 장의 원고지도 또 종이 원료인 펄프를 공급하는 저 삼림의 수목과 연결되어 있고 수목은 토양과 비구름, 바람, 태양열과 이어져 있다.

나의 아침 식단—쌀밥, 생선·채소·고기 등은 내 생명을 지탱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공급원이다. 그런 것들이 없다면 나의 생존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나는 일체의 생명체, 일체의 무정물들과 고리에 고리로 이어진 채로 살고 있다. 그런 연쇄의 고리 속에서만 비로소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더 복잡한 상호보완의 관계 속에 있다. 그 관계는 마치 그물과 같아서 개개인이란 하나의 그물코에 불과하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 그 관계성을 잊고 산다. 아니, 본래 관계의 그물 속에서만 비로소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 모를 뿐 아니라 관계가 없다고 부정하기까지 한다. '나'만을 고집하고 내 존재, 내 이익, 내 감정에만 집착한다. 그물을 끊는 행위이다. 그러니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잘못되는 경우가 더 많게 된다.

관계의 그물에 대한 바른 이해—그것이 곧 불행, 갈등을 풀어내는 열쇠이다.

협찬 : 대전지원

만주땅에 자비의 빛 '조선족 포교 선언'

중국내왕 8년째 무역인 정 순 모씨



◇중국 포교를 위해 정순모씨(사진 왼쪽)가 동산불교대에 조선족 청년 박찬국군(사진 오른쪽)을 입학시켰다.

8년째 중국을 내왕하며 무역업을 하는 정순모(36)씨. 그가 최근 중국내의 조선족포교를 선언하고 나섰다.

첫 발걸음으로 지난 7일 동산불교대에 조선족 청년 박찬국(19)군 입학원서를 접수시켰다. 정씨가 조선족 포교사를 배출하기 위해 사비를 털어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사이의 문호가 개방되면서 중국내의 조선족과 중국을 찾는 한국인 사이에 많은 갈등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물질만능주의와 자본주의가 밀려오면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민족의 정신적 지주였던 불교가 그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현지 청년 6명 동산불교대 입학 주선

이것이 정씨가 조선족 포교를 발원한 이유이다. 한달이면 보름은 중국에서 거주하는 정씨는 금년 5월, 중국 하북성 천진 숙소에 아미타불상을 봉안했다. 현지의 종업원과 함께 쓰는 이 숙소에 불단이 마련되자 숙소가 그대로 법당이 되어버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석으로 모시는 예불에 종업원들도 참석하게 되었다. 지난달부터는 이번에 동산불교대에 입학원서를 제출한 박군이 아예 목탁을 잡고있다. 숙소에서 생활하는 종업원 모두가 〈반야심경〉은 기본으로 외운다.

"조선족들에게는 부처님을 향한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한문과 한글을 모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불교공부는 어렵지 않습니다. 불심에 불만 당겨주면 조선족 포교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매주 교재와 강의테잎으로 진행되는 동산불교대에 박군에 이어 5명의 조선족이 입학을 약속했다. 2년후 졸업과 함께 이들은 연변을 비롯 하얼빈, 중앙아시아등 동포들이 살고있는 곳을 찾아 포교에 나설것이다. 이것이 정씨가 발원한 조선족포교 10년 불사이다. 〈엽〉



이근후박사 경주남산 석불사진전

이근후박사(이대신경정신과 교수)의 경주 남산석불사진전 '아 그 미소, 구원의 미소여'가 지난 14일 오후5시 세종문화회관 제3전시실에서 막을 올렸다. 20일까지 계속되는 이 전시회의 첫날 개막행사에는 소설가 한승원씨 우리는선우 상임대표 박광서교수 고려대 신경정신과 이시형박사 방송인 김광한씨 등 각계 3백여명의 하객이 참가했다.



'맑고향기롭게' 대비양로원 위안잔치

맑고향기롭게 운동본부(회주 법정스님)는 10일 파주 대비양로원에서 노인위안잔치를 개최했다.

연말을 맞아 실시한 이번 노인잔치는 서울 자비의 집 노인과 양로원 가족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점심공양, 레크리에이션등으로 진행됐다.

맑고향기롭게 모임은 매달 1회씩 대비양로원을 방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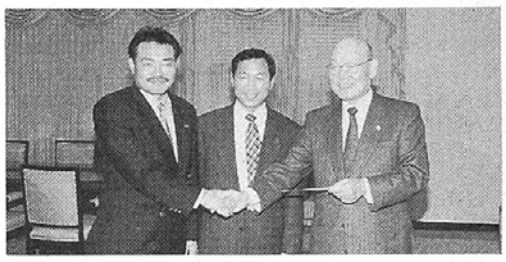


정신대할머니 삶터 '나눔의 집' 입주

정신대할머니들의 삶의 터전이 될 나눔의 집(원장 혜진스님) 입주식이 지난 9일 봉행됐다.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원당리 65번지에 신축된 나눔의 집은 17개의 방과, 휴식공간, 전시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여명의 정신대 할머니를 모실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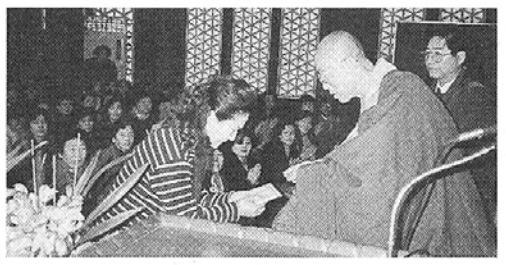
이날 입주식에는 이용녀할머니등 정신대할머니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기아도움기구 '르완다 성금' 2만불 전달

한국기아도움기구(회장 김재일)는 지난 11일 오후3시 정부종합청사 외무부장관실에서 르완다 난민돕기성금을 공노명장관에게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홍보맨으로 참여하고 있는 불자가수 김흥국씨가 공장관에게 외화 2만불(1천6백여만원)을 전달했다. 이어 김재일회장은 불교계의 참여와 난민돕기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공장관과 환담했다.



'자비와 행함이…' 장학금 전달식

자비와 행함이 하나되어회(회장 송묵스님)는 지난 13일 정오 동국대 정각원에서 동국역경원장 월운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법회 및 장학금전달식을 가졌다.

금년으로 두번째를 맞는 장학금전달식에서는 송암보육원을 비롯 6개 보육시설 12명의 학생들에게 총 6백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불교TV '불자 연예인 송년법회'

불교TV(사장 태응스님)가 주관하는 제2회 불자연예인 송년법회가 지난 14일 가든호텔에서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총지종 효강통리원장 불교방송 이사장 종하스님 등 스님들과 박규채 김병조 송춘희 김용림 장미자씨등 불자연예인, 한갑진 박완일씨 등이 참석했다.

교 차 로

태고종 총무원장 취임



혜초스님은 오는 27일 오전11시 성북동 총무원 설법전에서 제17대 총무원장에 취임한다.

국제중국철학회 제5대 회장



송석구총장(동국대)은 지난 7일 미국 보스턴대학에서 열린 국제중국철학회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제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북한 수재민 돕기 성금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은 지난 9일 오전10시 대한적십자사를 방문, 북한 수재민돕기를 위해 조계종 전국 본말사 및 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이 모금한 성금 4천만원을 전달했다.

'젊은 우리들 캠프' 개최



현성스님((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회장)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개최되는 근로복지공단의 '젊은 우리들 캠프'를 주관한다.

관월암 미륵관음보살 점안



원학스님(조계신문 주간)은 지난 16일 도견스님을 증명으로 관월암에 미륵관세음보살을 봉안하고 점안식을 가졌다.

기독교방송 진행 맡아



김재일씨(보리방송 모니터회 회장)는 매주 토요일 오후5시부터 6시까지 우리문화유산 소개및 지역문제를 다루는 기독교방송의 '생방송 지방시대 837'일 진행하고 있다.

일산 마하사 개원법회



증월스님(마하사 주지)은 지난 17일 오후2시 일산신도시 후곡마을 평화프라자 4층에서 마하사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불교대학원동문 인명부 제작

김성호씨(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총동문회장·불교미술전시장 대표)는 동대불교대학원 총동문회 인명부를 제작했다.

한국문화재 보호·선양 앞장

은관·보관 문화훈장 크네즈·이토씨

미국인 유진 크네즈(80·사진 좌)박사와 일본인 이토 이쿠타로(65)씨는 지난 7일과 13일 정부로부터 은관·보관 문화훈장을 각각 받았다.





미군정 공보관을 역임한 유진 크네즈 박사는 한국전쟁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국보급 문화재를 안전하게 대피케 하는등 공복이후의 우리 문화재 보호와 선양에 앞장선 공로로 훈장을 받았다. 그는 환국후에도 스미소니언박물관에서 한국문화를 연구하면서 '한국의 불교'등 한국관련 특별전을 세차례나 여는등 한국문화를 해외에 소개하는데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왔다.

오사카시립 동양도자미술관장인 이토 이쿠타로씨는 지난 92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한국도자전'을 여는등 69년부터 34차례의 각종 전시회를 개최해 우리문화재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했다. 또 올해 '대고려국보전'에 다수의 소장유물을 출품, 한일문화교류에도 기여했다. 〈재〉



◇승가·학계 등 1백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탐 방 동국대 보살사상研

학교 불상앞서 매일 '아침예불'

올해 창립 10돌…각종법회 열어 교내포교 활성화

매주 월~금요일 아침 8시면 어김없이 예불을 모시고 청소를 하는 학생들은 불교·선학·인도철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보살사상연구회(회장 문준호, 이하 '보사연')회원들.

동국대 본관 맞은편에 있는 불상앞에서 매일 아침 학생들이 올리는 오분향례가 지나가는 학생들을 숙연케 한다.

영하로 떨어지는 새벽추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들보다 일찍 등교해 아침예불을 올리는 진지함은 마치 출가수행자의 모습을 느낄수 있을 정도이다.

지난 85년 발족된 청년여래회를 모태로 출발한 보사연은 금년으로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부처님의 근본사상에 입각하여 파사현정 정토구현의 역사적 사명을 자각,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천덕목으로 하고 있는 보사연은 10년이란 세월만큼 신행활동도 왕성하다.

보사연은 매년초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상담창구를 마련, 올바른 교학연구와 신행의 길잡이 역할을 제시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새학기의 문을 활짝 연다.

또 불교사상·어학강좌, 매주 금요일 정기법회, 여름·겨울 두차례에 걸친 수련대회등을 통해 신심을 돈독히 하고 있다.

이밖에도 보사연은 교내 포교의 활성화를 위해 불교도 주간 설정, 고승초청법회, 법화경 강독, 불교사진전, 각종 심포지엄과 법회 등의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보사연은 금년초 10주년 기념사업본부를 결성, 부처님 오신날 상계동 철거민촌의 가정마다 연등보시, 조계종 개혁 1주년 평가회, 동회의 미래상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했다. 또 최근에는 경부고속전철 경주통과 반대를 위한 용맹정진기도와 서명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현재 승가(군법사), 학계, 언론계 등에 1백여명의 선배들이 활동하고 있는 보사연은 앞으로 열린 사고와 심도있는 신행연구를 통해 어려운 현 상황을 극복할 새로운 사상·이념(신대승불교운동)을 정립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중근 기자

법원사 불자 묘지 조성 대불사

"지옥이 텅 비지 않는다면 결코 성불을 서두르지 않겠나이다 그리하여 육도의 중생이 다 제도되면 깨달음을 이루리라"

도리천에서 석존, 즉 석가모니 부처님의 부촉을 받고 매일 새벽 항하사의 선정에 들어 중생의 갖가지 근기를 관찰하시고, 석가모니 부처님과 미륵불 사이인 부처님 없는 시대에 천상·인간·아수라·아귀·축생·지옥의 중생들을 교화하는 대비보살.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짐짓 지옥에 들어가 죄지은 중생들을 위무하고 제도하시는 위대한 지옥세계의 부처님 지상보살님의 원력으로 1천일간의 기도와 만중생이 의식에 부족함 없이 온갖 질병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이 안락하여 깨달음을 이루도록 12대원을 세우신 약사여래부처님의 원력으로 1천일간의 기도를 통하여 선몽발은 터전에 8도의 시주탁발수행으로 사찰을 창건하고 두분 불보살님의 품안에 묘지를 조성하여 108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나무아미타불만 열심히 염불해도 세세생생 좋은 국토에 태어나 좋은 인연을 만나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도를 행하여 마침내 자성미타를 성취한다 하였습니다. 불보살님의 품안에서 극락왕생을 누리시고 자비광명을 얻어 불타를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지장보살 나무약사여래불

- 卍 불교장례의식으로 집전 봉행
- 卍 매월 현지장재일 합동영가위령재 봉행
- 卍 사찰에서 묘지관리 관장
- 卍 납골장 건립시 우선권 부여 (다비의식으로 봉행)

문의처 : 대한불교대승종 법원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2236
전 화 (0342)45-3502
스님직통 (011)327-3560

대한불교 대승종 법 원 사 주지 덕진 합장



▲불자 묘지가 조성될 대지



▲법원사 전경

"한땀한땀 정성 만다라 돼요"

산문밖의 禪

한국자수연구가 남상민 씨



수틀속 색실조화에서 '색즉시공' 오묘한 진리 배워
부처님 일대기 91폭 연작 '팔상성도' 4년 걸쳐 완성

이 세상의 어떤 일도 정성없이 쉽게 되는 일은 없다. 특히 '자수'라는 것은 한땀한땀씩 바늘과 실이 수백 수천번을 움직여 엮어내는 대역사다. 작은 바늘과 비단실이라는 간단한 도구만으로 가지가지 삼라만상을 정교하게 묘사해 내는 자수야말로 지극한 정성과 심미안으로 예술로까지 승화시킬 수 있는 작업이다.

명상으로 작업시작 40년

자수는 바로 정성으로 열매맺는 우리의 생활예술이다. 우리 조상들은 금사로 수놓은 옷을 입었고, 물건을 싸는 작은 보자기, 주머니에까지 수를 놓아 사용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널리 사용돼온 자수는 오늘날까지도 섬세한 여인의 손끝을 거쳐 그 생명을 이어왔다.

오늘날 그러한 자수의 모든 것들은 이제 생활용품에서 승화돼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우리곁에 자리해 있다. 다소곳이 앉아 수줍은 얼굴로 수를 놓던 새색시의 모습도 이제는 더이상 우리 주변에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남상민씨(법명 해인광, 60세)는 오늘도 어김없이 수틀앞에 앉는다. 바늘을 잡기 전, 잠시 눈을 감는 것은 40년의 습관이 되어 버렸다. '나'를 잊고 자수의 경지에 몰입하기 위한 전초작업이다. 눈을 감고 마음의 숨을 고르노라면 모든 집착이 놓여지고 오로지 실과 바늘만이 그녀의 마음을 관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평정시킨 후 그녀는 바늘을 잡는다.

수를 놓는 일은 반복작업이라 무척 단조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온 마음을 모아 해야 하는 일이다.

수를 놓다보면 어느덧 무위의 바늘끝에서 실의 움직임만을 느끼게 된다. 수 놓는 일에 몰입하다보면 무념의 경지에 다다름을 느낀다. 수틀이라는 것이 소우주처럼 느껴지며 수틀이 자꾸만 확산되어 대우주 삼매의 경지를 잠시나마 감응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상념에 시달리다가도 수틀 앞에 앉기만 하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잊은 채 오로지 바늘과 실의 나아갈 곳 만을 생각하는 무아의 경지로 빠져든다. 그렇게 한땀한땀, 바탕 그림대로 바늘과 실이 자리를 따라 가다 보면 어느새 수틀에서는 색실의 조화로 또 하나의 오묘한 생명이 모습을 드러낸다. 하나하나의 색실이 각각으로 또는 서로 어울려 아름다운 빛깔의 조화를 연출해 내고, 하나하나의 문양이 어울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수의 묘미다. 자수는 그대로 우리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작은 세계다.

피부색과 눈빛, 생활양식과 언어까지도 다른 각양각색의 인간들, 성격과 사고방식이 각각 다른 개성들이 모여 살아 가는 이 세상도 서로의 위치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개성은 빛나고 우리 사회는 더욱 조화롭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닐까.

남상민씨는 지난 79년 모두 91폭의 연작으로 이루어진 부처님의 일대기 '팔상성도(八相成道)'를 완성시켰다.

"어느날 밤 꿈 속에서 부처님의 밝은 광채에 놀라 잠을 깼지요. 그 순간 부처님의 일생을 수폭에 담아보자는 생각이 강렬하게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자마자 남편과 함께 홍법사 혜연스님을 만나 제 뜻을 말씀드리고 팔상록을 처음 보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남상민씨는 남편과 함께 불교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부처님의 일생에 대한 책이라면 어떤 것이든 닥치는 대로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한낱 중생으로서 부처님의 일생을 그리기에 앞서 송광사, 해인사 등을 다니며 마음닦기에도 열중했다. 그러한 각고의 노력으로 도솔래의상에서부터 쌍림열반상에 이르는 부처님의 일대기를 4년여에 걸쳐 실과 바늘로 묘사해 낸 것이다.

하루 6~7시간씩 뼈를 깎는 작업을 20~30일을 거듭해야만 한폭을 완성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를 4년여. 손끝으로 잡기도 힘든 3센티미터 정도의 바늘하나로 인고의 시간을 넘고 또 넘었다. 어떤 때는 진력이 나고 피로가 겹쳐 몇번이고 중단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절을 찾아 부처님전에 기도를 드리고 나면 신기할 정도로 새 힘이 솟구쳐 오르곤 했다.

그녀 스스로도 팔상성도의 작업은 굳은 신심이 없었다면 결코 해내지 못했을 것이라 믿고 있다. 그녀는 이때 느꼈다. 자수란 것이 바늘을 손에 들고 눈으로 보며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마음으로 엮어내는 작업이며, 치열한 자신과의 싸움끝에 극기와 인내로 얻어내는 수행의 과정과 닮았노라고.

지난 5일부터 자수기획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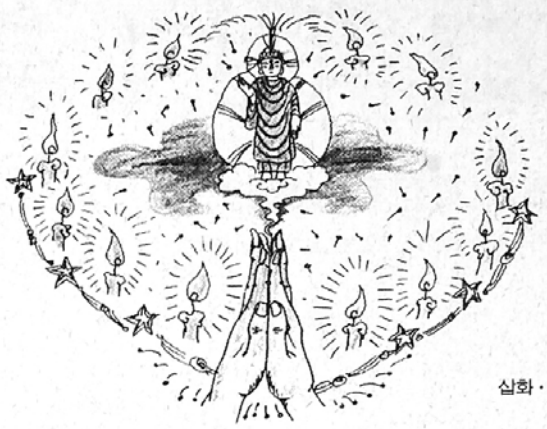
미술의 해이자 광복 50주년인 올해를 마감하며 남상민씨는 지난 5일부터 '광복 50주년 기념 특별 한국자수 기획전'을 경복궁 미술관에서 열고 있다. 한국자수문화협회 회원들의 작품이 전시되는 이번 전시회에 남상민씨는 관세음보살도와 지장보살도 2점의 불교자수를 새로이 선보이고 있다.

한국자수문화협회 회장이기도 한 그녀는 이번 전시회에서 1백23종의 다양한 자수기법을 소개해 한국자수문화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자수는 빛의 방향이나 밝기에 따라 그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채도의 변화를 주기위해 12색의 푼사를 색도에 맞춰 다시 합사하고 마치 그림물감처럼 수백가지의 다양한 색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고화(古畵)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명주, 공단, 삼베, 일반마직 등 바탕천은 고화처리를 했습니다. 특히 불교자수는 고려시대 지극정성으로 다라니와 부처님의 방석을 수놓았던 청신녀들에 의해 면면히 이어져 왔습니다. 청신녀들은 굳은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불법에 경배하면서 손끝으로, 정신으로 우리민족문화의 얼을 이어왔던 겁니다. 제 불교자수도 바로 그 연장선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라 말하는 남상민씨.

오늘도 그녀는 수틀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바늘과 실에 담아 부처님의 진리 법문을 장엄하게 수놓아 가고 있다.

이은자 기자



십화 · 이기선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⑮

깨 침

마음의 '비린내'를 제거하자

욕망 · 부정 탈피 이웃에 관심을

불교는 깨침의 종교이다. 깨침은 일체의 미망에서 환하고 밝게 되는 것이다. 미망이 가득차 있으면 혼미가 난무한다. 미망처럼 무섭고 가공할만한 것이 없다. 우리들 주변에는 미망한 것이 뒤엉켜 표류하고 있다. 표류하는 미망에 부딪치면 파괴되지 않는 것이 없다. 미망은 암초와 같고 빙하와 같은 것이다. 항해하는 선장은 빙하를 만나거나 암초를 모면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난파하거나 침몰할까 두려워서다. 바다에는 빙하와 암초가 없을때 순항이 보장받을 수 있다. 항해사는 평온한 바다를 희구한다. 이것은 항해가 순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서 있기 때문이다.

깨침의 종교인 불교에도 미망의 암초나 빙하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중생들의 마음속에는 무한한 미망을 품고 있다. 이 미망이 바로 생활적인 마음이라 생각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루의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재산이라고 생각한다. 부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서 육식하는 마음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이 아니라 마음의 미망이 가득차 있으면 그것이 육식의 비린행위라고 하였다.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생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도리어 그들을 해치려 하고, 성미가 나빠 욕심많고 난폭하며 무례한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육식은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서 욕망을 억제하지 않고 맛있는 것을 탐내고, 부정한 생활에 어울리며, 허무론을 가지고 바르지 못한 행위를 하는 완고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육식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현재적 자기만을 위하면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즉물적 생활이 만족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겸양이나 양보가 없다. 겸양을 하는 것은 손해를 보고 양보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생각한다. 절대로 내가 이겨야 하고, 언제든지 내가 독차지하여야만 한다고 억지와 고집을 부린다. 그러므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이고, 빼앗고, 상해하고, 난폭과 무례로서 상대를 괴롭힌다.

인간은 탐익한 비행, 흉폭한 야만성을 내함하여 그 의식을 적절하게 작용하면서 극도의 고통을 부하하게 한다. 이것은 '비린내' 나는 행위이다. 음식물에서 비린내가 나면 쉬이 제거할 수 있지만 마음의 비린내는 오래도록 제거되지 않는다. 우리는 마음속의 '비린내'를 멸진시켜야 한다. 욕망의 억제, 미탐, 부정, 허무주의, 우치 등 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서 생성되는 '비린내'이다. 이 비린내를 나로부터 탈각시키고 탈진시키는 마음공부를 하여야 한다.

불교가 달라져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불교를 달라지게 할 필요가 없다. 불교는 깨침의 종교로서 표방된 진리이다. 깨침은 변이, 변질, 변화할 수 없는 것이다. 깨침은 항상 밝고 환하게 우주의 빛으로 변만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달라져야 하고 개혁되어야 한다. 사람은 옛날과 같이 똑같은 비린내를 갖고 있으라 하면서 깨침이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본질을 말소시키려는 미망의 소행이다.

한국 불교인은 날마다 사찰에서 기도와 참회를 한다. 발원적 신행도 앞서고 있기도 하지만 혹자에게는 기복적 형태로서 기도와 업장소멸을 염원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한국불교는 개인적 신앙에는 투철하지만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방면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있다. 사실 인간은 자기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그 자기 옆에는 이웃과 사회가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여야 한다. 이 사회에 깊은 관심을 쏟아넣는 신앙을 가져야만 한다. 대사회적 상관관계가 결여된 신앙은 개인소득을 증장시키는 일밖에 하지 않는다.

이제 불교를 신앙하는 사람은 깨침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겨 볼 기회를 가져야 한다. 깨침은 중생의 삶을 빛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임을 자각하여 나가는 것이다. 미망, 무지, 탐애가 밤에 활동하는 암흑의 무명이라고 하면 깨침은 밝음의 한복판에서 일체중생을 두루 비추는 한낮의 광명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한국불교는 깨침이 원력이 되고 기도가 되는 신앙으로 전향되어야 한다. 이렇게 변화하는 불교인이 되면 깨침과 삶이 하나가 되는 성스러운 불교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민음과 수행과 깨달음으로 가는 길

일타큰스님께서 펴내신 알기 쉬운 불교책!



"불보살의 가피 ! 누구나 입을 수 있습니다."

신국판 / 5,000원

祈禱도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사람의 한평생 중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란 지극히 적다. 그러나 살다보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꼭 이루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절을 다닌 신도들조차도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거나 방법이 잘못되어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총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이야기 !!

이에 일타스님은 자신과 도반 · 선배 · 제자 · 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된다.

Ⅰ. 나와 가족 · 제자의 기도 이야기 / Ⅱ.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Ⅲ. 업병도 불치병도 기도를 통하여 / Ⅳ. 목숨을 구한 일념의 기도
Ⅴ. 생활 속의 기도와 득력(得力) / Ⅵ. 기도인을 바른 길로



참된 자유와 깨어있는 삶의 길을 열어주는 대자비 법문

범망경보살계

제1~5권 / 신국판 / 각권 320면 내외 / 각권 6,000원

≪범망경보살계≫는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이신 일타큰스님께서 수십년 동안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무애변(無碍辯)을 기록 · 편집한 책이다. 5부의 대작(大作)으로 보살계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이한 장광설(長廣說)의 대자비 법문이다.

이미 보살계를 받으신 분, 대승불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 본래의 마음자리로 되돌아가 참된 깨달음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십시오. 무명의 업장이 걷히고 한없는 공덕이 생겨날 것입니다.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연이야기 모음집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신국판 / 4,500원
"죽음 뒤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큰스님 자신과 가족 · 신도들이 체험했던 윤회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엮은 책. 이 책을 읽다보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법공양문 신국판 / 값 5,000원
일타스님께서 불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감로법문 테이프 5개 1세트 / 값 10,000원
듣는 것 만으로도 깨달음의 세계에 젖어들고 환희심이 일어나는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불자들의 입문서 ≪초발심자경문≫ 세권의 해설서, 드디어 완간!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을 일타큰스님의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책으로, 누구나 어렵지 않게 깊고 넓은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하게 될 것이다. 값 5,000원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 강설집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영원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영원과 행복의 문을 여는 비결은?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큰스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알기 쉽게 해설한 이 책은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줄 것이다. 값 5,000원

아운비구의 ≪자경문≫ 강설집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아운비구의 ≪자경문≫을 일타스님이 적절한 이야기를 곁들여 조목조목 해설했다. 불자의 신심과 원력을 북돋우고 지혜를 길러주는 신행의 나침반이 될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부디 돌아보고 또 명심하여 마음자리 부처를 회복하고 행복이 담뿍 담긴 자재로운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 3 팩스 : (02) 586~9078

발해 독창적 불교문화 꽃피워

왕실·귀족 유해 봉안 '무덤탑' 조성…최근 절터 43곳 확인

연변대 방학봉교수 논문서 밝혀

중국 발해유적에 대한 고고학적인 연구성과를 토대로 발해불교문화사를 본격적으로 다룬 논문이 나와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 연변대 발해사연구소장인 방학봉교수가 최근 〈다보〉 16호에 발표한 '발해불교문화사 연구'란 이 논문은 그간 자료부족으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국내 발해불교사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교수는 논문에서 "발해는 당나라의 불교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자체의 불교문화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나라 불교문화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즉 발해가 금·은·불상 등을 당나라에 보내고 학문승들을 당나라에 파견하는등의 교류를 통해 발해의 우수한 불교문화가 당나라에 전파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방교수는 이같은 발해불교문화의 우수성의 한 예로 독창적인 불교건축을 든다.

중원에서는 경전과 사리 등을 탑실(塔室)에 넣는 반면, 발해에서는 국왕을 비롯한 왕족과 관료귀족의 유해까지 넣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금까지 알려진 정효공주무덤탑등 3개의 무덤탑은 왕실귀족 신분의 무덤을 불교의 묘탑형식으로 조성하는등 독특한 건축문화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발해진(渤海鎭) 흥륭사석등탑(興隆寺石燈塔).

방교수는 또 "발해국이 건립된 초기부터 발해국 경내에는 불교를 신앙하는 현상이 있었다"고 강조한다.

발해국 초기에 이미 불교가 일정한 세력을 형성, 제1대 고왕 대조영(大祚榮)이 714년에 왕자를 당나라 수도 장안에 파견해 불법(佛法)을 배우게 해줄 것을 청하고 제3대 문왕 대흠무(大欽茂)가 자기의 존호마저 '대흥보력효감금륜성법대왕(大興寶曆孝感金輪聖法大王)'이라 칭한사실이 그 예다.

방교수는 "발해에 불교가 왕성해지면서 승려들 가운데 일부 상층인물은 당나라와 일본으로 왕래하는 사절단의 중요한 성원으로 참여하는등 정치에도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금까지 고고학 발굴조사에 의해 발견된 발해사원유지로는 상경 용천부내에 10개, 중경 현덕부내에 16개, 동경 용원부내에 8개, 연해주 지역내에 4개 등 모두 43개소가 있다. 또 탑터로는 정효공주무덤탑등 8개의 무덤탑과 발해진 흥륭사석등탑(石燈塔)등 3개의 탑이 있다.

김재경 기자



◇보물 제654호 자수가사(刺繡袈裟·18세기).

"한국자수 불교문화가 선도"

제1회 학술대회서 임영주씨등 주장

우리나라의 자수(刺繡)는 삼국시대에 중국 육조(六朝)때 발생한 수불(繡佛)과 수가사(繡袈裟), 수장(繡帳) 등과 같은 불교자수의 영향을 받아 일찍부터 발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1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자수문화협의회(회장 남상민)가 주관한 제1회 한국자수 학술강연회에서 한국전통공예미술관 임영주관장은 '한국자수의 문양요소의 성격'이란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임관장은 "고대 자수는 불교문화를 바탕으로 매우 성행했으리라 짐작된다"고 말했다.

고려시대에 현존하는 작품은 대각국사 의천의 가사와 용문탁의(龍文卓衣)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조선시대의 것으로는 가사와 불경의 표장(表裝), 수불, 수번(繡幡), 연(輦)의 장엄물 등이 있다. 〈관련기사 5면〉

이날 한국자수문화협의회 남상민회장과 허동화 한국자수박물관장도 한국자수에 있어서의 불교자수의 선구적인 영향에 의견을 같이했다.

구산선문·조계종기원등 밝혀

'보조사상' 9집

보조사상연구원(이사장 현호)의 학술지 〈보조사상〉 제9집이 나왔다. 지난 10월 개최된 보조학술세미나 발표논문을 묶은 것.

이번 논집은 동국대교수인 현각·성본스님과 김영태교수, 정문연 허흥식교수의 △낭혜무염의 무설토론 △신라 선의 사상적 특성 △구산선문의 성립과 그 성격에 대해 △조계종의 기원과 전개 등을 싣고있다. 또 연구회원 논문으로 '간화결의론 역주: 화엄과 간화선의 변증법(김호성 청주대 강사)' '삼국유사 미륵선화 역주(하정룡 고려대 박사과정)'을 실었다. (02)733-5335

세대별 종교관 양태분석

'석림' 29집 발간

동국대석림회(회장 범천·근행)가 펴내는 학술지 〈석림〉 제29집이 나왔다.

이번 논총은 '인간의 종교: 그 서막에서 폐막까지'란 주제의 교수논단에서 동국대 오형근·황옥자교수와 충북대 정호영교수, 중앙대 류종민교수, 인천전문대 윤세원교수의 △불교의 태아관 △유아기에 전개될 불교적 인식관 △청소년기의 위기상황과 불교의 역할 △장년기의 불교적 인생관 △불교적 세계관과 노년기등의 논문을 실었다. (02)260-3693

부처님 장엄한 중생구제 묘사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법주사

대웅전

佛身普遍十方中
(불신보편시방중)
三世如來一切同
(삼세여래일체동)
廣大願雲恒不盡
(광대원운항부진)
威光遍照十方中
(위광편조시방중)
月印千江一體動
(월인천강일체동)
四智圓明諸聖士
(사지원명제성사)
賁臨法會利群生
(분임법회이군생)

부처님은 이 우주 모든 곳에 두루 계시니
3세(과거·현재·미래)의 부처님 다르지 않네
넓고 넓은 원력 다함이 없고
넓고 넓은 깨달음의 세계는 오묘해서 다 말할 수 없네
부처님의 위광이 시방세계에 가득차고
천갈래 강에 비친 달은 천개로 보여도 근본은 하나
4지(여래의 네가지 지혜)에 통달한 많은 성인들
두루 법회에 임해서 중생을 이롭게 하네

해설 법주사 대웅보전의 주련은 부처님의 법력이 빈구석 없이 이 세상을 덮고있어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중생구제를 한다는 것을 매우 장엄스럽게 일러주고 있다.

앞의 4 귀절과 뒤의 4 귀절을 따로 떼어놓고 읽어보면 이 귀절들이 마치 노래의 1절과 2절인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그같은 인상은 '시방'이란 단어의 중복과 '일체'의 동음어 반복에서 강하게 주고있다. 그러나 이런 분석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주련이 부처님의 법이 갖는 위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내용에서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는 부처님과 깨달음의 세계가 앞의 4 구절에서 뼈대를 이루고 있고 부처님의 위광과 성인들이 뒤 구절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개별적인 것이 아니다. 각각의 개별적 의미는 이미 부처님이란 의미 속에 다 들어 있고 또 깨달음이란 말 속에 다 들어 있을 수도 있다.

다시말해 부처님의 본래 모습을 깨달은 자리에서는 모든 것과 두루 통한다는 의미가 각각의 실체들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매우 장엄스런 문학적 감동까지 받게되는 것이다.

〈안동 경안중 교사〉

지상상담 —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양아들 삼았는데 돈갖고 도망가

문 혼자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못된 인간이 날보고 '어머니'라고 하며 친근하게 굴더니 어느날 돈 조금 모아놓은 것을 몽땅 들고 도망해 버렸습니다. 울화가 치밀어 병이 날 지경입니다.

〈최영조·경남 창원시〉

답 자식 욕심을 부리셨군요. 아무튼 예전 빚을 그냥 갚았다고 생각하세요. 마음이라도 편해야지요. 그래야 분한 생각, 미운 생각 없어지고 그래야 그 아들이 진짜 아들 노릇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쪽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그쪽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쪽에 성내는 마음, 복수할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도 그대로 나올뿐입니다.

가뭄에 거북이 살려주고 비올지…

문 연전에 포항지역에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모든 주민들이 애를 태우던 중에 백년 묵었다는 거북이를 살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거북이를 살려주었으니 이제 비가 올 것이다 기대했었는데 물론 미신이겠지요?

〈권옥주·포항시 죽도동〉

답 미신이나마나 그런 공치사가 어디 있습니까? 공연히 거북이만 귀찮게 한 것이지 그게 살려준 것입니까? 좋은 일 한 것이 아닙니다.

흔히들 방생한답시고 물고기를 잡았다가 풀어놓는데 그건 놀부가 제비다리 고쳐주었다는 격이지요. 멀쩡히 잘 살고있는 놈을 잡아다가는 엉뚱한 타향에다 풀어놓는데 그런 걸 가리켜 놀부방생이라 합니다. 이왕 방생을 하려거든 흥부방생을 해야하겠지요.

우주·물질 근본은 마음이라는데…

문 자연과학 계통의 대학강사입니다. 주인공이란 도대체 뭐냐 하는 의심을 풀어보려고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물리학에서는 물질을 쪼개고 쪼개다보면 양성자·중성자·전자 등의 세계에 이르는데 이것들이 한편은 입자이면서 한편으로는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들도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야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또 정신의학 분야에선 뇌와 마음은 별개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과학자들의 추론인즉 우주의 근본, 물질의 근본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스님의 생각을 여쭙니다.

〈충남대 한 연구생〉

답 요즘 과학자로 말하면 그야말로 오신통을 굴리는 사람들이지요. 심지어는 물질을 쪼개고 또 쪼개서 이제는 더이상 쪼갤 수 없는 단계에 다달아서는 물질계와 정신계의 구분은 없다라고 말하는 과학자도 있다고 합디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신통은 도가 아니다 하셨습니다. 현대과학이 아무리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을 하고 타심통 숙명통을 한다해도 그건 반쪽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서야 이 우주 삼라만상의 물질을 어떻게 꿰뚫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늘 도를 깨우치려면 부자가 상봉을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만 부와 자가 한데 합쳐서 자유자재로 나고 드는 그 자리, 그것을 마음이라 하겠는데 그것을 알아야만 일체 만물만생의 나고 죽는 이치를 알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깊이 연구하고 연구한 끝에 물질의 근본이 마음인가 보다라고 추측한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발전임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오신통을 벗어나 마음대로 그것을 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지만 현대과학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하자면 무엇보다도 마음을 밝혀야 합니다.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반쪽과학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앞으로의 과학은 심성과학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처님 말씀이 진리 그 자체이니 마음을 밝히지 않고서야 온통과학을 할 수 없지요.

과학자들이 원자의 세계, 소립자의 세계에서 입자든 파동이든 일어났다 사라지고 사라졌다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마음으로 천백억화해서 나투는 것이나 부처님이 응신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물질세계로 보면 지·수·화·풍 사대가 서로 비벼대니까 에너지가 나오고 이런 저런 모습이 생기고, 대폭발이라는 것도 있었고, 생명도 나타나고 별도 형성되고 했지요. 인간도 지수화풍으로 되어 지수화풍을 먹고 지수화풍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똑같은 에너지로써 일체가 자동적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 자기의 잣대로 사물을 재려하고, 과학하는 사람들은 그 과학이라는 말에 걸려서 만물만생이 상통하는 이치를 받아들이려 하질 않습니다. 물질세계는 물질이라는 잣대로만 재어야 옳고 정신세계는 정신이라는 잣대로만 재어야 한다고 보는 한 어찌 지수화풍 사대를 근본으로 한 줄 알 수 있겠습니까.

현대과학이 스스로 한계를 넘어서려면 마음을 알고 바로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 이 육신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살아온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생명체든 아니든, 보이는 세계든 안보이는 세계든 두루 알 수 있게 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부처님 법 안에 있습니다.

실화 영험담

神通

사업 실패, 이혼, 실종, 사고, 정신질환 등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혜윤스님/저

길 잃은 자에게 길잡이가 되어 주고 가난한 자에게 복밭이 되고 병든 자에게 양약이 되고 어리석은 중생에게 지혜의 샘이 되는 혜윤스님의 실화 영험담!



지금 곧 체험해 보십시오!

질병 가난 고뇌에 빠진 가정의 등불

이 책을 펴는 순간 당신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죽은 후의 세계가 왜 두려운가를 ——. 소름 끼칠 귀신들의 작태, 원한 맺힌 영혼들의 해꼬지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밝혀 준다. 이렇듯 한 많은 원혼을 달래어 극락에 보내주고 시달린 가정을 건져주는 혜윤 스님의 신통력이 이 책에 담겨져 있다.

신국판/312쪽/반양장
값 6,000원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

상상을 초월하는 귀신의 작용! 마침내 부처님의 법력으로 파헤치다.

불광미디어
주소 131-072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2동 730-13
전화번호 925-5730~1, 팩시밀리 925-5731

1996학년도

동학사 승가대학 신입생 모집

동학사 승가대학에서는 1996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학과 : 사미니과 ○○명
2. 시험과목 : 면접, 초발심자경문, 염불실기, 불교기초교리
3. 입학자격 : 사미니계 수지자, 타승가대학생인 경우 2년 이상 휴학한 스님
4.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승가대학 소정양식) 1통
   (2) 주민등록증 양면복사 1통 (3) 은사스님 추천서 1통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5) 사진(반명함판 : 3×4) 3매
5. 준 비 물 : 오조가사, 장삼, 필기도구, 승려증
6. 시험일시 : 1996년 1월 29일(음 12월 10일) 월요일
7. 도착일시 : 1996년 1월 28일(음 12월 9일) 오후 4시까지
8. 문 의 처 :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789번지 동학사 종무소 (☎ 042-825-2570)

※ 교통편 : 1) 대전본역 앞에서 좌석버스 102번
2) 대전고속버스터미널, 동부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좌석버스 102번
3) 유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102번, 103번

동학사 승가대학 학장 일 연

"반만년 문화민족 위상세웠죠"

석굴암등 세계유산 등록 산파역 김 진 무 문화재관리국장

수요 인터뷰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와 대장경판 및 판고, 종묘 등 3건의 우리나라 문화재가 지난 12월 8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됐다. 〈57호 14면 참조〉

지난 4일~8일까지 유네스코 한국대표부·경주시장 등과 함께 유네스코 산하 세계유산위원회 한국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 세계유산 지정의 산파역을 맡았던 김진무(58) 문화재관리국장은 10일 귀국 이후 세계문화유산지정 관련보고와 회의 등으로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국제적 관광명소로 부상

—3건의 문화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우리문화의 세계적 가치를 재확인한 계기가 된 것으로 봅니다. 먼저 그 의의에 대해 들려 주시죠.

▲우리나라 문화재가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등록으로 우리문화재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게 됐고 문화국가로서의 지위와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양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죠. 한마디로 한국의 문화재가 특정국가의 경계를 넘어 인류공동의 문화유산으로 격상된 것을 의미합니다.

약력

- 38년 강릉생
- 62년 경희대 경제과 졸
- 83년 고대 경영대학원 수료
- 76년 문공부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89년 문공부 해외공보관 문화교류부장.
- 91년 문화부 예술진흥국장
- 92년 국립극장장
- 93년 문체부 문화정책국장
- 94년 4월 문화재관리국장 취임

—지난해 8월 대상문화재에 대한 잠정목록 제출부터 세계유산 등록까지의 진행과정에서 어려웠거나 기억나는 일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지난해 4월 문화재관리국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이 사업을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작업이라 경험부족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결국 우리문화재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될 것이란 확신을 갖고 일했습니다. 특히 세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원들을 잘 몰라 불안했고 자료작성 등에도 애를 먹었죠. 또 심의과정에서 대다수의 기독교문화에 익숙한 서구인들이 기상천외의 질문을 던져 설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올해 2월 세계유산위원회의 전문가로 3건의 우리 문화재에 대한 현지조사를 위해 내한했던 스리랑카의 니말 데 실바 교수(모라투와대학)가 불교문화에 조예가 깊어 역사적인 의미부여를 하는 등 큰 도움을 줬습니다. 결국 심의관들은 극동지역의 불교예술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란 의견에 일치를 보았지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과 반사이익이 있습니까.

▲이번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이들 문화재는 유네스코의 각종 매체를 통해 세계의 문화재로 널리 알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류공동의 문화유산임을 인정하는 유네스코의 인정서와 세계유산 휘장(엠블렘)을 사용할 수 있어 이들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은 국제적 관광명소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또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설립된 세계유산기금으로부터 유산의 훼손방지와 영구보존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기술 및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우리도 유산의 보존상태를 모니터하고 5년마다 보존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교예술 우수성·독창성 세계가 인정 '지구촌 유산'

경주남산도 추가등록 계획 … "성보보존 진정한 불사"

—불국사 석굴암이 있는 경주 고도(古都) 전체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추가 등록을 계획하고 있는 문화재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주지역 전체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주시와 함께 불교유적이 산재한 남산전역과 왕릉지구를 중심으로 세계유산 등록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은 원형보존과 예술성, 역사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년중에 설악산의 세계자연유산 등록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 유네스코에 잠정목록으로 제출한 창덕궁 수원성과 삼년산성 무녕왕릉 강진도요지 한라산 등의 세계유산 등록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불교계를 비롯한 문화·학술계는 건교부와 문체부의 고속철도 경주통과노선을 반대하면서 제3의 수정노선(건천~화천 노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위 문체부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건교부가 기본노선과 지획노선을 제시해와 문체부에서는 문화재 훼손이 적다고 판단되는 기본노선을 택한 것 뿐입니다. 문화재관리국도 경주문화재연구소와 합동조사반을 통해 조사를 했지만 기술적으로 노선을 검토할 여력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노선을 선택하더라도 문화재 보호와 경제성, 운영방안 등을 '보존과 개발의 조화'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관리 자율성 확대

—지난 11월 30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문화재관람료 관리와 사찰문화재 보수가 어느정도 자율화될 것으로 아는데요.

▲그간 입장료 요금의 결정과 징수방법 등이 허가사항이어서 입장료 관리상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성숙도로 보아 문화재 소유자와 관리지가 자율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대신 자율적으로 징수된 입장료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 재투자되야 겠지요.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관람료를 받는 문화재의 보수·관리비와 국고지원시 사용내역, 자부담비용 내역을 받아볼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지방화시대를 맞아 문화재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점차적으로 이양해 자율성을 키워줄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전문인력 확보와 기술축적이 따라야겠지요.

—문화재보호와 관련해 불자들에게 하고싶은 말은.

▲사찰에는 예불의 대상이 되는 지정·비지정문화재가 수없이 많지만 보존·관리의 노력이 부족한 듯 합니다. 정부측에서는 방문때마다 스님들께 성보관리를 부탁드리지만 주지스님들은 임명직이 많아 다소 관리에 소홀한 적도 있었습니다. 매년 문화재 도난사고가 사찰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도난방지기 밧데리가 닳아도 갈지 않을 정도로 무관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와 국민 공동의 책임입니다. 불교계는 이제 성보관리의 지침을 엄격하게 제정해 사찰 스스로 성보를 보존하려는 의지를 길러야 할 때입니다. 아내(윤미경·55)가 절에 다니고 딸·사위가 불교방송국 PD로 근무하지만 진정한 불사(佛事)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성보를 훼손없이 보존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김재경 기자

나의 수행일기

김 기 원 〈진주산업대 교수〉



'봉사하는 삶' 어릴적부터 소망

'마음비우고 불심실천' 열반을 아는 방법

구세대비(救世大悲)를 실천하게 된 오늘의 결심은 아마도 어릴적 할머님의 가르침이라 믿어진다. 어릴적 불심과 인연을 맺었던 녹동마을은 금정산 동래 범어사 큰절이 위치한 곳에서 약 40리쯤 떨어진 계명산 기슭의 작은 마을에 있었다.

외동아들을 둔 할머님은 온갖 정성을 쏟았고 손자인 나는 온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다. 어릴적 할머님의 등에 업혀 범어사 절을 자주 갈 기회가 많았고 국민학교를 거쳐 종립 금정 중학교에 입학한 후부터는 졸업까지 학교 행사와 할머님을 따라 매달 두세번씩은 꼭 동래 범어사를 참배하게 됐다.

할머님과 절에 가는 날은 그동안 마련한 곡식을 챙겨지고 할머님의 손을 꼭 잡고 칡덩굴 잡목이 우거진 '뒤이골고개'를 몇 등 넘어 범어사에 닿았다. 대웅전 부처님 참배가 끝나면 곧바로 뒷 방에 계신 노스님을 꼭 방문했다.

노스님은 언제나 보리과자 속에 있었던 보리설탕과자를 모아 두었다고 절값으로 나에게 주셨다. 나는 부처님 참배보다 노스님이 주는 보리설탕과자를 얻기 위해 할머님의 심부름을 더 잘하게 됐다. 노스님은 보리설탕과자를 주며 꼭 손가락을 잡고 맹세를 시키고 세가지 실천사항을 큰 소리로 외치게 하셨다. "첫째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둘째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실천한다. 셋째 의술을 배워 불쌍한 사람과 스님들을 무료 치료한다"라고 스님 앞에서 외치고 과자를 먹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는 해 하동산 큰 스님으로부터 범어사 대광루에서 처음 감로(甘露)란 법명을 받게 되고 360배의 절을 하고 철야 정신 의식을 거쳐 수계증을 받았다. 또 매달 한두번씩은 꼭 백팔참회를 하며 열반한 스님의 뜻을 확인했다. 그 당시 범어사는 부처님 오신날 하루 전 행사로 신도를 위한 노래자랑대회와 연극 '지옥화'를 공연하여 인과응보와 윤회사상을 알리는 행사가 매년 열렸다.

고등학생이 된 나는 동래 금정산 금강사를 찾아 스님이 생각하는 열반의 참뜻을 토론하다 석정스님(금어)을 만나는 불연을 맺었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반이 된 나는 스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부산 의대에 진학을 하게 됐다. 4년동안 병명조차 알수 없는 병으로 아버님은 운명 직전이 되어 토지문서 발문서를 주고 남의 돈을 빌려 병치료 경비로 쓰다가 대학 합격의 기쁨도 못 보시고 1954년 12월 28일 돌아가셨다. 그후 죽음에 대한 허무감을 감당할 수 없었다. 병원 빚 때문에 가산은 파산되고 일가 친적마저 버리는 고아 아닌 고아로 쌓아온 꿈은 산산조각이 됐다. 젊은 삶보다 인생의 무상을 참지 못하여 인연깊은 범어사 금강암으로 입산을 결심 감로란 법명으로 머리를 깎고 6개월간 살다가 혼자 계신 어머님의 만류로 다시 귀가하여 농사일에 종사하였다.

1955년 석유회사 특약점을 경영하는 진주의 친척집으로 옮겨졌다. 석유 특약점 일을 도우면서 진주 농대에 입학한 것이 진주와 오랜 인연이 됐다. 전기가 귀한 시대라 기름집 주인은 각 사찰에 기름 복전을 베풀어 나는 일요일이면 교통이 불편한 사암에 기름통을 운반하는 지게꾼이 되어 산길고개로 기름통을 운반했다. 또한 진주 호국사에 계시던 김지견 박사님께 배운 불교학이 정신적으로 도움이 컸다. 또 지리산 쌍계사에 육조단경을 알고자 갔다가 쌍계사 뒷골에서 녹차를 만들었던 성파스님, 다타니경을 잘쓰던 회산 큰스님(쌍계사 포교원장), 다솔사 최범술스님은 기름짐을 통해 녹차를 알게 된 인연이다.

인간이 열반을 아는 방법은 마음을 비우고 불심을 실천하는데 있다. 죽은 귀신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데 인간에게 새생명의 선행을 못 베풀수 없다. 또 인도사람은 독사뱀의 왕 코브라를 길들여 춤을 추게 한다. 사람은 물질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얼마나 봉사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하는 열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찰 및 별장 최적지

■위치: 춘천 삼악산 등선폭포 입구(강촌)로 소양강을 끼고 도로를 접한 경춘간 최고의 사찰적지로 사계절 석간수가 솟고 있음

■거리: 서울(청량리)에서 1시간 소요
(기차—매시간, 버스—10분 간격)

■면적: 총 200평 중 대지 120평
(현재 건물 30평, 신허가 50평)
—이외에도 기도원 적지 보유하고 있음

연락처
(0361) 51-6517, 54-1927
이 평 해 (합장)
※가격은 현지 답사후 결정하십시오

탈 종 공 고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배양산 1번지
■사찰명: 봉안사
■주 지: 진성춘 (송암)

본인은 사찰 운영에 있어 자체 문제가 많아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을 수행할 수 없어 귀종단을 탈퇴합니다.

1995. 12.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전통 사찰 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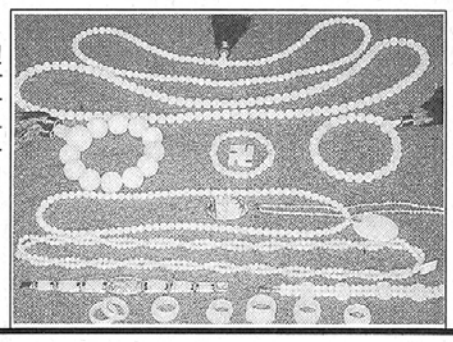
지하 150m 암반청정수로 빚었습니다.
순수 우리콩으로 빚은 메주입니다.
각 가정에 직접 운송해 드립니다.
전화 접수도 받습니다.

세월이 가고 사람이 변하고 온 만물이 변한들 고대로부터 이어온 우리 민족 전통의 입맛을 지켜온 메주의 참맛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푸른산 아래 청정수로 빚은 메주의 새로운 참맛을 느껴 보십시요.

■문의 및 접수 : (0351) 63-1888
(02) 914-2828, 544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 3동

대한불교조계종 경국사
주지 대 운 합장

춘천백옥의 신 비 를 아십니까?
신경통 고혈압 당뇨 심장병 불면증 등 난치병을 치유
머리는 맑아지며 의식 집중력과 판단력 증대, 피로감 감소 놀라운 컨디션으로
禪과 기도에 좋습니다
眞 氣



*선물용으로 적격
**眞玉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 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0% 심장질환자 90% 귀울림병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5% 고혈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유효과를 기록했다.

대전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실험
두통 불면증 불안 손발저림 소화불량 환자를 대상으로 춘천현옥제품을 착용시켜 임상실험 결과 목빈지 84%, 목목 걸이 88%의 치료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93. 2. 17)

한국일보 반지 84% 목걸이 88% 치료효과 세계서 유일하게 철을 2년 저장하여 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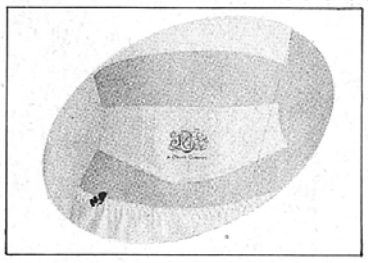
서울신문 「春川産 白玉성인병에 卓效」

강원日보 두통·불면에 「효험」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프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옥 문 호 合掌
玉山家® 777-0105

여성 질병의 원인과 항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괴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정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약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항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속이 메슥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2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02) 755-9821

다시 푸는 경서 — 치문경훈 〈40〉

長盧慈覺禪師 坐禪儀 (장로자각선사 좌선의) ①

學般若菩薩 先當起大悲心 發弘誓願
학반야보살 선당기대비심 발홍서원
精修三昧 誓度衆生 不爲一身 獨求解脫
정수삼매 서도중생 불위일신 독구해탈
爾乃放捨諸緣 休息萬事
이내방사제연 휴식만사
身心一如 動靜無間
신심일여 동정무간
量其飮食 不多不小 調其睡眠 不節不恣
량기음식 부다불소 조기수면 부절부자

반야지를 닦는 보살은 마땅히 먼저 대비심을 일으켜 큰 서원을 발하되
오로지 선정삼매를 길이 닦아 맹세코 중생을 제도하되 일신을 위해 홀로 해탈을 구하지 말라
이에 모든 반연을 몰락 내려놓고 만사를 쉬며
심신을 한결같이하여 동정에 간단이 없이하라.
음식은 요량해서 많이도 말고 적게도 말며 수면을 조절하되 너무 억제도 말고 멋대로 하지도 말라

欲坐禪時 於閑靜處 厚敷坐物
욕좌선시 어한정처 후부좌물
寬繫衣帶 令威儀 齊整然後 結跏趺坐
관계의대 령위의 제정연후 결가부좌
先以右足 安左蹉上 左足 安右蹉上
선이우족 안좌폐상 좌족 안우폐상

또 몸을 너무 꼿꼿이 곧추세워 남보기에 기가 급하고 불안케 하지말고
귀와 어깨가 마주 대하고 코는 배꼽을 마주 향하게 하라.
혀는 입천정에 붙여 입술과 이가 맞닿게 하며 눈은 가늘게 떠야 혼침을 면하게 되나
만약(이렇게 해서) 선정에 들면 그 힘이 빼어날 것이다.

古有習定高僧 坐常開目
고유습정고승 좌상개목

"보살은 대비심 일으켜 큰 서원내되 일신위해 홀로 해탈 구하지마라"

或半跏趺 亦可 但以左足 壓右足而已
혹반가부 역가 단이좌족 압우족이기

좌선할 때는 고요한 곳에서 두툼한 방석을 깔고
허리띠를 넉넉히 풀어 몸가짐을 단정히 고른 연후에 가부좌로 앉되
먼저 오른 발을 왼쪽 허벅지위에 올려 놓고 왼발은 오른쪽 허벅지에 올려 놓는다.
혹은 반가부좌라도 괜찮으나 다만 왼발로 오른 발을 포개 누르면 된다.

此以右手 安左足上 左掌 安右掌上
차이우수 안좌족상 좌장 안우장상
以兩手大拇指面 相拄
이양수대무지면 상주
徐徐擧身前向 復左右搖振 乃正身端坐
서서거신정향 부좌우요진 내정신단좌
不得左傾右則 前躬後仰
부득좌경우측 전궁후앙
令腰脊頭項骨節 相拄 狀如浮屠
령요추두항골절 상주 장여부도

그런 다음 오른쪽 손을 왼발위에 편안히 놓고 왼손을 오른쪽 손바닥에 놓아 양손의 엄지 손가락면이 마주 보게 하고
천천히 몸을 앞으로 들어보고 다시 좌우로 흔들어 본다음 몸을 바르게 하여 단정히 앉되
좌우로 기울어지거나 앞으로 구부정하든지 뒤로 제쳐진듯이 하지말라
그렇게해서 허리와 목의 골절이 서로 버티어 마치 부도탑같이 하라.

又不得聳身太過 令人氣急不安
우부득용신태과 령인기급불안
要令耳與肩對 鼻與臍對
요령이여견대 비여제대
舌柱上腭 脣齒相着 目須微開 免致昏睡
설주상악 순치상착 목수미개 면치혼수
若得禪定 其力最勝
약득선정 기력최승

또 몸을 너무 꼿꼿이 곧추세워 남보기에 기가 급하고 불안케 하지말고
귀와 어깨가 마주 대하고 코는 배꼽을 마주 향하게 하라.
혀는 입천정에 붙여 입술과 이가 맞닿게 하며 눈은 가늘게 떠야 혼침을 면하게 되나
만약(이렇게 해서) 선정에 들면 그 힘이 빼어날 것이다.

古有習定高僧 坐常開目
고유습정고승 좌상개목

向 法雲圓通禪師 亦訶人閉目坐禪
향 법운원통선사 역가인폐목좌선
以爲黑山鬼窟 蓋有深旨 達者知焉
이위흑산귀굴 개유심지 달자지언

옛날 선정을 익힌 고승들은 좌선할 때 항상 눈을 떴다.
나아가 법운원통선사는 눈감고 좌선하는 이를 꾸짖어 '그리하면 흑산귀굴에 든다'하니 다 같은 뜻이 있다. 통달한 이는 알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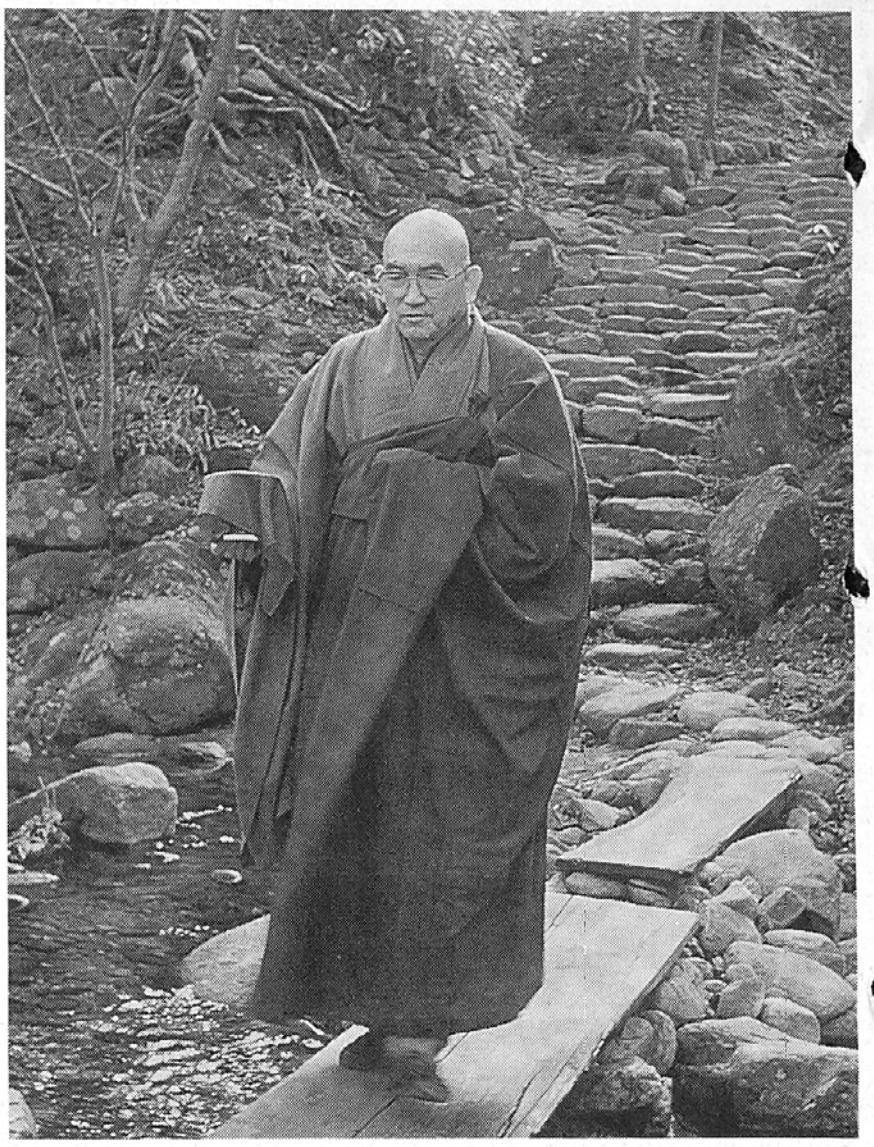
身相旣定 氣息旣調然後 寬放臍腹
신상기정 기식기조연후 관방제복
一切善惡 都莫思量 念起卽覺 覺之卽失
일체선악 도막사량 념기즉각 각지즉실
久久忘緣 自成一片 此 坐禪之要術也
구구망연 자성일편 차 좌선지요술만

몸가짐을 바르게하고 호흡을 고른 연후에 아랫배를 편하게 풀어놓고
일체 선악을 도시 사량치 말라. 한생각 일어나면 곧 깨달을지니 그것을 깨달으면 곧 없도다.
(그렇게) 오래오래 반연 잊노라면 절로 일심 이룰지니 이것이 좌선의 종요로운 방법이다. 龍眼

지상법석

"육신은 마음의 그림자

법흥스님 〈송광사〉



악력
- 31년 충북 괴산生
- 59년 효봉스님 은사로 득도
- 58년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졸
- 74~77년 송광사 주지
- 84년 송광사 조계총림 유나(維那)
- 저서로 〈선의 세계〉

"스님, 오늘 제 마음이 몹시 불안합니다. 저를 좀 편안하게 해 주십시요." "그대, 그 불안한 마음을 내게 가져오너라. 내 그대를 편안케 해 주리라."

보리달마와 혜가사이에 주고 받았다는 유명한 '안심법문(安心法門)의 한토막이지요.

시대가 복잡해 질수록 번뇌의 풍랑이 사나워져 가는듯 합니다. 까닭모를 불안과 번민에 시달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두운 상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행한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이니 '자아상실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적 풍요와 함께 정신적인 허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낭만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눈부신 과학 발달이 엄청난 변혁을 가져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원초적 고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인과에 의해 태어나서 잠시 머물다 가야 하는 이 실존적인 고통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산천도 옛 모습을 잃었고 흐르는 구름 또한 옛 구름은 아니로되 이 잿빛 고뇌는 여전히 중생들의 삶을 꿰뚫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착하기로 말하

言路가 막힌곳에 비로소 心路 열리고 이성이 다한 곳에 언어도단의 경지 열려

자면 모든 것을 버리고서도 만족해 하는 존재요, 악하기로 달하자면 동전 한닢에도 목숨을 앗아가는 잔혹한 존재가 아닌가요. 도대체 어떤 것이 우리의 진실한 모습일까요.

옛부터 큰스님들은 이 '마음의 근원'을 찾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아낌없이 내던졌습니다. 이 수행자들을 흔히 운수납자(雲水衲子)라고 하지요. 이들은 흐르는 물처럼 떠도는 구름처럼 천하를 유행(遊行)했습니다. 남루한 누더기에 걸망 하나가 그들의 전재산이었습니다. 버리려 해도 버릴 것이 없고 가려해도 가야할 곳도 없는 그 지극한 오도(悟道)의 세계를 향한 나그네였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법구경〉에서 스스로를 가리켜 '영원한 구도의 나그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리를 향한 '나그네 길(旅路)'이야말로 우리 수행자들이 숙명처럼 걸어야 할 삶의 길이란 뜻입니다. 비록 형극(荊棘)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부처님이 사셨던 것처럼 생명의 불꽃이 남아 있는 한 정진을 계속해야겠습니다.

선의 마음은 진여(眞如)의 마음입니다. 마치 명경(明鏡)이 삼라만상을 비추듯이 마음의 거울 또한 모든 것을 비추어 줍니다. 이 마음의 근원을 회복한 이를 부처라고 합니다. 반면에 마음의 근원을 망각하고 헛된 욕심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이들을 중생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의 셋은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여의 마음이라고 해서 번뇌와 무명심(無明心)을 떠나 다른 경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와같은 이분법이 바로 무명입니다. 내안에 진실이 있는 것을 외면하는 마음이 중생심이지만, 중생을 떠나 불심을 얻으려는 노력 또한 불행한 일입니다.

바로 여기에 선의 아이러니가 있지요. 일상심을 붙잡아서도 안되지만 버려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이 논리의 모순에 부딪칠 때 비로소 화두의 세계가 열립니다. 언로(言路)가 막힌 곳에 비로소 심로(心路)가 열리게 됩니다. 이성이 다한 곳에 드디어 이성을 뛰어넘는 언어도단(言語道斷)의 경지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선'의 원류는 본시 부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좌선(坐禪)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싯닷타가 평범한 인격에서 붓다(깨달은 자)로 승화되었던 것이지요.

그후 45년 동안 광막한 인도대륙을 배경으로 술한 교화활동을 펼치셨습니다. 때로는 바다와 같은 침묵으로, 혹은 날카로운 현실비판으로 불교라는 위대한 종교를 탄생시켰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선'의 가르침이 하나의 종파로서 일세를 풍미하게 된 것은 중국에서의 일입니다.

인도에서 건너온 보리달마의 파격적인 가르침은 한마디로 '마음의 그림자'를 찾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육조 혜능에 이르기까지 실로 기라성같은 조사 큰스님

밀교학의 근원과 최신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밀교학 입문서

밀교, 그 위대한 가르침을 읽는다

B.밧따짜리야 지음
장익 옮김

밀교학입문

밀교의 근원, 특히 인도교 탄트라와 불교 탄트라를 비교분석해 놓은 밀교학 입문서이다. 밀교의 역사적 생성과정을 인도고대문화와 결부시켜 상세히 언급하고 특히 인도교와의 상호연관성에 관하여 상세히 분석해 놓은 원저작 이후 최근까지 30여 년의 연구성에 따른 학계의 다양한 학설을 께 실어 20세기 이후 밀교학 연구의 진척과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오늘날 인도의 일상생활과 풍습 및 관습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문화이며 인간의 정신적 완성과 심적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인 밀교, 밀교의 역사적 생성과정과 인도의 고대문화, 그 정신세계를 체계적으로 탐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신국판/ 284면/ 값 6,000원

최신간 中論頌研究 ●김인덕 지음/ 양장/ 376면/ 값 12,000원

불광출판부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60-1 전화 420-3200, 3300 / 팩시밀리 420-3400

중국 명문 한의대 남경중의약대학

박사과정 연수

■대 상: 한의사, 한약사, 스님, 불자 의학, 침, 기공에 관심있으신 분
■기 간: 8박 9일
■주요연수내용: 중풍, 당뇨병, 좌골신경통 침 치료, 지압치료법, 기공 등
■연수후: 박사과정 연수 수료증 수여 (침구, 기공)
■인 원: 15명 이내
■출발일: 1996년 1월 11일(목요일)
■남경중의약대학: 중국 남경 660-7129
■문의처: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TEL: (02) 511-2026 · 2027
(02) 511-2028 · 1080
FAX: (02) 511-1080

상하

대성 관세음보살

관세음의 사상과 생애

수행자의 필독서!

김현도 편저

일대기

圖書出版 三養

TEL : 733-7911~2 FAX : 723-2462번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T. 02-737-8881
F. 02-737-0697

부산지사
T. 051-634-5114
F. 051-634-5188

광주지사
T. 062-375-9986
F. 062-371-7544

대구지사
T. 053-427-8008
F. 053-425-8356

목포보급소
T. 0631-281-2534

공주보급소
T. 0416-55-0020

"2천만에 깨달음을"

지 상 법 석

영화 끄달리면 헛된 삶”

“禪이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뇌하며 사는 일상이야말로 수행처입니다”

‘마음의 근원’ 찾는 노력은 욕망껍질 벗는 과정

들이 ‘마음의 법(心法)’을 이어왔습니다. 흔히 오종칠가풍(五宗七家風) 이라고 부르는 이 중국선종의 흐름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신라말엽의 구산선문(九山禪門)은 바로 이 ‘마음’에 대한 참구(參究)를 구현한 실례였습니다. 이같은 전통을 이은 우리나라의 선종은 보조국사 지눌의 시대에 이르러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돈오점수(頓悟漸修)의 획기적인 가풍이 수립된 것이죠. 송광사를 중심으로 한 16국사가 이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우리 불교로 봐서는 역사적인 질곡이었던 조선시대에도 선종은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서산대사의 출현은 꺼져가는 선맥의 법등(法燈)을 다시 일으켜 세운 쾌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선’이란 말은 산스크리트의 드흐야나(Dhyana)라는 말의 음역입니다. 선나(禪那)라고 썼던 것을 후에 나(那)가 생략되고 선(禪)이라고만 쓰이게 된 겁니다. 이 말은 ‘정려(靜慮)’ ‘자기제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정신의 자기집중’ 내지는 ‘내면에의 침잠’이란 의미를 띠고 있지요.

사람에게는 다소의 외부지향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일종의 컴플렉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생각이 확대되면 언제나 진리는 바깥에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저 하늘에 뜬 무지개빛 이상을 찾아 끊임없이 방황을 거듭하게 되는 겁니다.

절의 외벽(外壁)에는 소를 탄 목동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심우도(尋牛圖)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이가 소를 타고 앉은 채 소를 찾아 헤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진 이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련한 자여, 소를 타고서 소를 찾는구나.”

내 마음의 진실과 그윽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바깥만을 응시하는 현대인에게 경종이 될 수 있는 고사가 아니겠습니까.

선은 이 나의 무한한 가능성을 되찾으려는 수행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 험난한 세파(世波)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 내 삶이 좌우된다는 생각은 지나친 자기 기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은 이 내면을 증득(證得)하는 공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속의 자기는 언제나 6근(六根)의 작용으로 움직여집니다. 그러나 6근이란 결코 본래적인 자아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6근의 감각기관에는 어떤 절대적인 가치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6근을 통괄하는 어떤 주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유식(唯識)불교에서는 이를 제8아뢰야식(阿賴耶識)이라고 부릅니다. 선가에서는 이를 ‘마음’이라고 총칭합니다. 우리들 육신은 이 마음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본래적인 마음을 회복하였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 자유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감각과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나 진실한 대도(大道)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의 나는 결코 별개의 ‘내’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각적 자신이 극복되고 원래의 자신을 회복했다는 표현이 적절하겠지요.

현대를 자아상실(自我喪失)의 시대로 규정한다면 우리는 ‘선’으로부터 많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나’이기 위한 노력, 껍데기의 내가 아니라 진실한 내가 되려는 노력이야말로 우리들 삶의 목표여야 할 것입니다. ‘선’이란 결코 현실과 동떨어진 거룩한 경지는 아닙니다. 홍진(紅塵) 속에 놓여진 이 일상이야말로 바로 선이기 때문입니다.

요즈음 들어 부쩍 전통적인 것, 한국적인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퍽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사이 지나치게 우리들의 의식구조나 생활패턴이 서구적으로 변모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어디까지나 한국인일 따름입니다. 개나리가 노랗고 진달래가 붉듯이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요.

이 한국인의 마음이 바로 지금은 잊혀져 가는 ‘선의 마음’입니다. 자연에 대한 외경, 사물에 대한 깊은 통찰력, 그리고 인고(忍苦) 등을 한국인들은 품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선의 다음을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는 곳이 바로 사찰입니다.

새벽녘에 도량석 소리는 한결 청아(淸雅)하게 들립니다. 무명(無明)을 깨우는 죽비의 질책이기도 하고 끊어오르는 번뇌의 불길을 잠재우는 다정한 법음이기도 하지요.

오늘도 진실한 나를 찾기위한 정진에는 쉼이 없습니다. 삭발한 스님들의 이마 사이로 또다시 햇살이 내려 비치고, 그들의 어깨 위로는 대장부의 기개가 역력하지요. 정적을 깨는 장군죽비의 소리만이 고즈넉한 산사에 울려 퍼집니다.

어느덧 뉘엿뉘엿 지는 해를 보며 우리는 또다시 삶과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또한 지는 해처럼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영원 속에 안주하는 내 마음의 주인공을 찾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무의미한 삶이겠습니까.

“삶을 어떤 존재가 좌우한다는 생각은 지나친 자기기만 입니다 내면을 증득하는 참선공부로 주인공인 ‘나’를 찾아야 합니다”

이제 21세기라는 미지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긍정적으로 미래를 예견하는 이들은 다가오는 시대가 태평양시대일 것이며, 우리 한국은 그 주역이 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반면 부정적 입장에 선 이들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이 더이상 발전을 이루기는 어렵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의 미래가 바로 우리들의 의지에 달려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유마경〉에서 말씀하신대로 ‘心淨卽佛土淨(마음이 맑으니 불국토가 청정하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과 실천이 올바를 때 우리의 미래는 희망적일 수 있다는 뜻이지요.

미래의 한국은 윤리·도덕의 회복을 통해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산업사회는 불교의 윤리로부터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받아야 합니다. 인간은 결코 가없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야수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근원적인 자아를 확립하고 이 덧없는 실존 속에서 영원을 추구하는 삶의 질적 고양이 필요합니다.

정보화사회로 접어든 오늘 교통과 통신은 나날이 발전해 이제 지구촌이란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근본 고뇌인 삶과 죽음의 번민은 여전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지요. 불교의 윤리는 그런 면에서 강한 생명력으로 우리 곁에 다가섭니다. 참다운 인간의 길, 우리는 이제 그것을 찾아나서야 하겠습니다.

우리 불교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 철학을 지탱해 온 핵심이었습니다. 불교문화의 부흥은 곧 한국 정신의 회복임을 우리 불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시대는 명백히 다원종교의 시대입니다. 어느 특정한 종교가 국교로서의 권위를 지닐 수가 없지요. 이제 종교인들은 서로의 영역을 넓히려는 발상보다는 서로의 공통분모를 확인하려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대사회에서의 종교의 역할과 미래의 그것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고대사회의 종교인은 사회를 이끄는 선두주자였지만 이제 그 몫은 과학자들의 것이 됐습니다. 이제 종교에서 남은 영역은 도덕적 완성, 윤리의 청정성이 된 것입니다.

불교는 수도(修道)를 생명처럼 삼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 윤리적 귀의처로서 불교는 언제나 존재의 당위를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속적인 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가치있는 삶을 영위하는 근원으로서 우리 곁에 살아있습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51

양 형 진

진화의 의미

생물 우열관계 분석은 그릇된 분별심

人相집착 버리면 모든 생명 평등관계

근대의 서구 지성사에 있어서 가장 혁명적인 두 사건을 든다면 그것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다윈의 진화론일 것이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과 인간이 신의 형상을 본따 창조되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이 두 이론 모두는 우리로 하여금 자연계 내에서의 인간의 지위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였으며, 또한 인간의 지위와 관련된 그 이전의 세계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 어느 이론이나 그 이전의 세계관을 갖는 사람들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물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이론이 그 초기 단계에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이론보다 더 우월하다거나 경험적으로 더 적합하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사실이며, 19세기 이전이라면 창조설을 굳이 부정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었던 것도 또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1650년 아르마의 대주교 어셔가 구약을 근거로 하여 창조는 기원전 4004년에 있었다고 주장했던 것이나 라이트푸트 박사가 그 정확한 시간은 10월 23일 오전 9시라고 했던 것 보다는, 진화론에 대한 반대의 역사가 심지어는 오늘날까지 지속된다는 것이 보다 심각하게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적어도 진화론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과학자라면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론이라고 인정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과학적 증거는 앞의 글에서 밝혔듯이 분자생물학의 발달과 더불어 더욱 공고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꽤 많은 것 같다. 원숭이가 우리와 친척이라는 것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우리가 인상(人相)에 사로 잡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릇된 견해이다. 나와 남을 분별하여 내가 너보다 낫다는 아상(我相)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하듯이, 내가 인간이라 하여 다른 모든 중생과 구별하여 우월해지고자 하는 인상에 집착한다면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진화론은 가르쳐 주고 있다.

진화론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이 맞는다면 동물원의 원숭이는 언제쯤 사람이 되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이러한 물음은 진화론을 크게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질문이다. 진화론이 말하는 것은 지금의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원숭이와 지금의 사람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선가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원숭이와 사람은 마치 나무 위의 두 가지에 비유될 수 있다. 나무가 아무리 자라더라도 하나의 가지가 다른 가지로 변해갈 수는 없다. 각각의 가지는 각자의 나름대로 자랄 뿐이다. 그렇지만 나무 가지를 따라가다 보면 그들이 만나는 곳을 찾아낼 수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원숭이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지금의 사람으로 변할 수는 없다. 현재의 원숭이와 현재의 사람은 각자 자신의 진화의 길을 따라 간다. 그래서 그들이 미래의 어느 시간에 같은 종이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과거로 거꾸로 올라가 본다면 그들의 공통의 조상이 살았던 시점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 진화론의 이야기이다.

원숭이가 언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묻는 관점에는 모든 동물의 우열이 가려지며 열등한 동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등한 동물로 변해간다는 관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분별심에 근거하여 세계를 바라보는 그릇된 견해일 뿐이다. 진화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두 생물들은 35억년의 진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등하다. 인간만이 아니라 파리까지도 그 모든 생물은 그들 나름대로 지금 이 순간 최상의 상태, 즉 진화의 최고 단계에 있다. 그러므로 35억년의 전역사가 담겨져 있는 생명체 하나 하나는 그 어떤 예외도 없이 참으로 장엄한 것이다. 일체가 평등이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모두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일체가 동근이다.

이렇듯 일체의 생명은 장엄한 것이요, 일체의 생명은 평등한 것이요, 일체는 또한 동근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 생명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다. 생명의 무한한 가능성을 말씀하신 것이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황금빛 도자기 불상 지금 선택하십시오

순금(24K)으로 옷을 입혔습니다



(7치:23.1cm) 일천불 조성
삼천불 조성
(5치:17.5cm) 일만불 조성
(1자:33cm)

장인의 혼과 얼을 담았습니다

-직접 손으로 흙을 빚어 1380℃에서 구워낸 도자기불상 입니다.-

새로 개발한 사람의 손으로 직접 빚어 도자기로 만든 불상입니다.
도자기로 만든 불상을 조성해 볼 계획이 없으신지요.
전화주시면 직접 부처님을 모시고 찹아뵙겠습니다.

(주)국보도자기, 국보기획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53, 신안 B/D 301호
공장 :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장심리
전화 : (02)723~4260/1, FAX : (02)723~4260

대표이사 권 영 천 합장

고은 불교 대하소설

합두 불이의 애욕

여기서 사바세계의 무욕도를 떠나 다른 중생계로 들어간 사람들을 떠올리고자 한다.

이미 사바세계의 한 지역인 조선의 산야에도 옛길보다 새 길이 더 생겨나고 그런 길따라 오고가는 사람들의 행색이 불어나는 불안한 시절인 만큼 다른 세상은 어떤가 하고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겠다.

고대의 중국대륙 동쪽의 용문석굴과 서역의 돈황 막고굴의 어느 석굴 채색벽화 속의 천상인(天上人)들은 서로 멀고 가까운 거리 따위를 초월해서 그 캄캄하기만 한 석굴 안에서 밤마다 그림 속으로부터 실재인물로 나와 별빛 가득한 밤하늘을 날라가서 장안과 낙양 사이의 삼문협(三門峽)의 한 상공(上空)에서 만나 서로 입맞과 수컷으로서의 사랑을 나누다가 먼동이 틀 무렵이면 각각의 석굴 벽화 속의 그림으로 돌아간다는 전설은 전설 이상으로 그 애틋한 사연이 생생한 것이었다.

천상계의 사랑을 이 땅 위의 사바세계에서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그 청정한 사랑의 전설은 어느덧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아련한 구원이 되어주고 있었다.

전설이란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문제삼는 것 이상이 아니면 실로 어리석은 추구인지도 모른다. 얼마나 많은 사랑이 음으로 오묘한 일이라는 찬미를 받아 마땅한 것이었다.

하지만 무욕도의 밤하늘이야 아무리 우러러보아도 그런 사랑의 현상을 육안으로는 목격할 수 없으니 이미 살아있는 육신이 갖추고 있는 육경(六境)의 하나로서의 안근(眼根)의 대경(對境)인 색경(色境)이란 것이 얼마나 하잘 것 없는가. 그것이 본래 비었다는 공사상에 앞서 그런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천상계나 사바세계의 기운이 그대로 이어져 있는 하늘 속의 일이 그런 바에는 다른 세계에 머물고 있는 중생들을 누가 짐작할 수 있다고 장담한단 말인가.

한 궤짝에 네 마리 뱀을 넣고 다닌다
(一龕四蛇)

네 마리 뱀이 지수화풍(地水火風)의 사대(四大)를 말하건대 한 궤짝이란 중생의 육신을 일컫는 것이다.



〈 57 〉

이 네마리 뱀에 엉켜있는 육신으로서는 그 육신이 찾아내는 지혜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 자못 고개를 돌려 허망할 터이다.

어쨌거나 무욕도에서 떠난 사람들의 행적을 추적해보기로 한다. 우선 아름다운 나승 합두와 고려의 불우했던 천재시인 입춘의 후신으로 태어난 불이는 지금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고 있을까?

시인의 후신인 불이라면 그의 전신인 시인 입춘안양 머물다가 어느 객점에서 지친 다리를 쉬기라도 하고 있을 것인가.

몸을 던져 광상에 누워 문득 이내 몸 잊었더니
한낮 베개 위 바람 이니 잠이 절로 깬다
꿈속의 이내 몸도 머물 곳이 없으므로
건곤이란 도시 이 한 장정(長亭)인 것을
(醒來忘却擺愚形
午枕風來睡自醒
夢裏此身無處着
乾坤都是一長亭)

이 칠언절구(七言絶句)는 4행이 더 잇대어 있거니와 어느 세상에서 꿈속에서조차 머물 곳도 없이 떠도는 것이 불이의 명운(命運)인가? 아니 그런 불이를 인형극의 실을 잡아챙기다가 늦추다가 하며 그 동작을 다스리듯 이 불이에게 영향을 주었던 합두는 어떤 신세이겄는가?

누구라서 멀리 육도(六途)의 중생계를 내려다보는 신통력이 있어 마치 높이 높이 떠있는 솔개가 저 지상의 어느 마을 외딴 집 마당의 중병 아리까지 잘도 내려다보는 것처럼 볼 수 있다면 그 눈으로 하여금 불이와 합두가 잘도 보일 터이다.

입춘의 시 '흐릿한 두눈 먼 봉우리 보자 하니 (模糊空嶂看遙峰)'의 그런 눈이 지상의 눈이라 하더라도 그 눈도 높은 경지인 것을 알 바에는 차라리 이 세상의 육안으로도 자못 두 사람의 행방은 찾아내실 노릇이다.

과연 불이와 합두는 각각 헤어져 있지 않았다. 또한 그들이 아수라세계에 들어가려다가 아귀계로 들어가야할 업장이 갑자기 나타남으로써 그들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픈 곳, 아무리 먹을 것을 찾아다녀도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정녕 굶주리는 고통으로부터 조금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애오라지 지식과 시정(詩情)에 상응하는 그 아름다운 용모의 여성은 능히 한 쌍의 화촉(華燭)을 이루는 난만한 밤이 될 수 있건만 그런 일과는 10만8천리나 떨어져 있는 굶주린 아귀로 목숨으로 달랑거리고 있는 극한의 지속이라니.

더구나 아귀계의 중생들의 일부가 그렇듯이 두사람은 거의 해골에 살가죽이 늘어붙은 처참한 몰골이었다.

아귀계는 천상계와 지옥계 사이에 끼어 있는 수미산 세계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중생계의 하나이다. 이 아귀계에는 불이 합두와 같은 말라빠진 몰골의 아귀만이 아니라 아귀계도 중생계인만큼 실로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들의 어느 누구도 항상 굶주리는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만은 똑같다.

이런 아귀계를 다스리는 자는 중음(中陰-아승과 저승 사이의 미정착상태의 세계)도 다스리거니와 지옥계도 다스린다. 그러므로 아귀계의 현장은 아무래도 지하에 있지만 아귀로서의 업보를 받는 굶주림의 괴로움은 비단 그곳만이 아니라 인간계나 심지어는 천상계에까지도 산재하고 있는 것이 아귀계의 현상인 것이다.

1천2백3만4천5백 유순의 까마아득한 원반모양 위에 수미산을 비롯한 9산팔이 둘러쳐져 있고 그 아래 8바다와 4대륙이 떠있는 것이다. 그 원반 아래의 지옥계나 수미산 중턱부터의 아스라히 높은 천상계와는 또 다른 흡기찬 중생계의 하나가 곧 천상계와 인간계까지도 진출한 아귀계의 광범위한 경우이다.

아귀계에는 불이와 합두와 같은 아귀업을 그들의 업장 깊숙히 지니고 있던 중생들이 받는 소재아귀(小財餓鬼)가 있다. 문득 해골에 살갗이 달라붙는 것 같은 형상인데 그들은 악은 고름이나 피를 먹으면서 배고픔에 시달리는 것이다.

하지만 무재(無財)아귀와 같은 무서운 형벌의 아귀는 아니다. 무재아귀는 전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절대 궁핍의 아귀

> 그들은 사바세계에서 이루지 못한 애욕을
> 마치 이런 아귀계에서라도 이루어야 할
> 무서운 사명을 다하는 것처럼
> 해골의 몸이 뜨거워졌다
> 마침내 그들의 해골형상은
> 뜨거워서 찌직찌직 타기 시작하였다

가장 소박하게 말하기로 한다면 욕심을 부리거나 인색하거나 남을 시기하거나하는 인간이 갈 수 있는 세계가 곧 아귀계이다.

굶주림과 목마름은 먼 사막을 여행해본 사람이면 안다. 아니 집안에 좁쌀 한톨 보이지 않는 가난한 사람이면 안다. 차라리 오랜 가뭄으로 샘물은 커녕 우물도 다 말라버려서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그 참담한 풍경 아래의 사람이면 안다. 그 모든 아귀계의 괴로움을.

천상계와 인간계 이외에도 지옥계에도 이런 아귀중생은 있다.

불이와 합두의 어디에 그런 아귀 업장이 쌓여 이런 아귀계에 들어와서 해골바가지 형상으로 되고 만 것인가.

그들도 서로 헤어져 먹을 것을 찾아 다니다가 어떤 육신의 일부가 찍어가는 동안 거기에서 터져나온 누런 고름을 빨 수 있었다. 바로 그 고름을 빨기 위해서 다른 아귀들 틈서리를 뚫고 들어가다가 거기서 서로가 해골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았던 것이다.

"누구셔요! 이게."

라고 합두가 부르짖었다.

그렇게 부르짖는 순간만은 이상하게도 배고프지도 않고 타는 갈증도 한동안 잊을 수 있었다. 아니 사바세계 농경지대에서 방금 소나기라도 쏟아지는 오랜 가뭄의 논에서 죽어가던 모가 춤을 추는 것 같았다.

"합두!"

"불이! 불이!"

그들은 아무런 존칭도 구차한 군더더기였다. 마구 일싸안았다.

그들 곁에 다가온 아귀계를 감시하는 귀신조차도 험상궂은 형상을 변화시키고 그가 돌고 있는 몽둥이도 내리고 있었다.

얼마나 절절한 그리움으로 만난 두 아귀의 대면인데 귀신인들 거기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합두! 나는 이 아귀업 벗어나지 않아도 괜찮으니 그대와 함께 있기만 하면 온갖 굶주림이나 목마름도 그대가 없는 것에 미치지 못하도록 복되겠어!"

"불이!"

그들은 사바세계에서 이루지 못한 애욕을 마치 이런 아귀계에서라도 이루어야 할 무서운 사명을 다하는 것처럼 해골의 몸이 뜨거워졌다. 마침내 그들의 해골형상은 뜨거워서 찌직찌직 타기 시작하였다.

그림 · 조향숙

절절한 그리움으로 만난 두 아귀의 대면에 귀신도 감복

그 전설을 믿거나 그 전설을 이어오느냐에 그 뜻이 좌우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기 때문인가.

황하는 많은 긴 지류들을 합쳐서 더욱 폭이 넓어지고 흙탕물의 양도 넘창거리는 것이지만 저 동굴 고비사막 끝 천산(天山) 기련산맥(祁連山脈) 이북에서 황하 본류와는 달리 우여곡절의 급이들을 감돌아 만리장성 서쪽을 남쪽의 황하 본류와 거의 평행하다가 갑자기 사막으로 북향하여 흉노족들의 본거지 오두(烏頭)에서 장성을 넘어 장안 옆의 화산(華山)에 이르러 본류와 하나가 되는 지역이라 귀머거리에게도 그 물소리가 들릴 지경이라 한다.

바로 그 삼문협 산중 위의 북두칠성이 기울어버린 검푸르기만한 하늘 속의 그 텅빈 허공 가운데를 서로 멀리서 그리워하다가 만나는 사랑으로 채우는 천상인의 일이야말로 어떤 종류객에게는 성불(成佛) 다

정기구독신청은 (02) 773-5731, 754-1614

월간 대중불교

12 1995

대중 불교

12월호

부처님 말씀 •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자 · 5
대중불교의 빛을 찾아서 • 현대불교 편집국장 최정희 씨 / 김희균 · 14
신북소리 • 대통령과 무소유 / 김종철 · 10
귀담아 듣고 새겨볼이야기 • 전재성 교수의 제안에 대하여 / 이광래 · 12
젊은 불자 발언대 • 불기 2,800년 사업 구상하자 / 이병두 · 70
함께 이루는 정정국토 • 비자금 뒤에 올 환경피해 / 성낙진 · 73

• 송년특집
불기 2539년 불교계 10대 뉴스 / 편집부 · 37
방송 · 국제 · 복지 · 불사 · 교육 · 단체 · 운동 · 문화 · 사건 · 출판

• 기획 / 개혁종단 1년
여전히 나부끼는 개혁의 깃발 / 유지호 · 62
개혁종단 현안에 대한 인식조사 / 유승무 ·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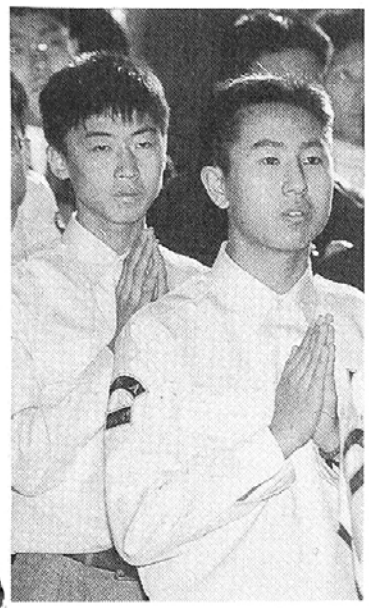
불교교리산책 • 선업과 불선업 / 정승석 · 19
생활불교, 어떻게 할 것인가 • 마음관리 / 용타 · 22
수행으로 가는 길 • 윤회의 바른 이해 / 이제열 · 26
신행상담 • 반드시 계를 받아야 합니까 / 상덕 · 61
선화일권 • 내 딸이 아주 재빠르구나 / 설산 · 30
법당 이야기 • 법당, 그 속에 깃든 의미 / 김현준 · 74
에세이 보살불교 • 아픈이들의 법약, 약왕보살 / 일지 · 32

칼라화보
얼과 문화 / 김효형 · 김성철 · 53
양양 진전사터와 선림원터 / 김희균 · 김성철 · 54

포교의 현장 • 참 좋은 인연입니다 / 이춘희 · 80
수행길의 이런 도반 • 허공을 닮은 허공 스님 / 효림 · 88
포교당 일기 • 무녀가 된 '귀여운 여인' / 원욱 · 91
한국 밖의 한국불교
세계적인 음악가 고 윤이상 씨 / 장용철 · 48
만나고 싶었습니다 • 화엄 40년 회고전 연 김보현 화백 / 이윤수 · 84
봉주우르, 김상입니다 • 현관문 자물쇠 보수기 / 지묵 · 94
환생의 나라, 티벳 • 피에 젖는 신들의 땅 라싸 / 김선정 · 96
일본을 개척한 위대한 한국인 • 한국불교 재건에 나선 '소아마지' / 홍윤기 · 100
말씀과 함께 • 무상은 기쁨과 희망 / 홍미경 · 104
독자기고 • 참선수행과 호흡수련에 관하여 / 김대진 · 106
페사지를 찾아서 • 원주 흥법사터 / 김상영 · 최태선 · 110
불교와 민속 • 판소리 '심청가'에 나타난 윤회사상 / 김종대 · 116
건강 • 중년 남성과 심근경색 / 해월 · 118
한조각 메달음이 있는 수필 • 안희경 / 이숙자 · 119
만화/불기일화 • 이적의 사리와 건초사 / 윤승운 · 122

• 불교의 이해와 실천 1
이중표 교수의 '불교방송 교리강좌' 단행본으로 출간

발행처 도서출판 대원정사
전화번호 (02) 752-7017, 754-1614





◇ 올해의 겨울불교학교는 심성수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사진은 마음다지기에 여념이 없는 청소년들.

◇ 사찰 · 신행단체 청소년 겨울캠프는 예년의 주입식 교육서 탈피, 역사탐방 도예실습 등 경험쌓기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편성하고 있다.

◇겨울방학 청소년 문화행사

사찰 및 단체	행 사 명	대 상	일 시	문 의 처
월간 동쪽나라	어린이 화랑학교	국2~중3	12. 26~96. 1. 20	02) 263-1387
부산불교 고등학생 연합회	동계 합동수련회	부산거주 고등학생	12. 23~26	051) 466-7174
부루나 포교원	산사수련캠프	초 · 중 · 고	96. 1. 8~10	032) 576-9741
우리는선우	청소년 겨울수련회	중 · 고등학생	96. 1. 8~8	02) 278-8672
사천왕사	부처님의 겨울나라	유치원 · 국민학생	12. 23~24	02) 939-3900
구룡사	겨울불교학교	유치원 · 국민학생	12. 23~26	02) 575-7766
석왕사	어린이 입요학교 겨울수련회	국민학생	12. 22~24	032) 663-7777
국립중앙박물관	겨울 박물관교실	국 4 · 5 · 6학년	96. 1. 8~19	02) 720-2718
심보사	어린이겨울불교	중학생	96. 1. 22~26	02) 352-6406
조계사 중고등학생회	겨울수련회	국민학생	12. 24~26	02) 734-8179
목동청소년회관	스키캠프	중 · 고등학생	1. 4~7	02) 646-0182
한마음선원	어린이 겨울불교학교	국2~중 · 고	12. 28~1. 17	0343)72-3100
삼광사	어린이 불교학교	7세~국6	12. 31~1. 2	051) 808-7111
	삼광사 학생회 수련캠프	국민학생		
은적사포교원	겨울 수련대회	중 · 고등학생	12. 24~26	053) 653-9232
극락사	미술 · 영어 특강교실	국민학생	12. 22~24	0374)32-2308
금하선원	한문무료강좌	유치원생	12월말	02) 445-3261
까치마을	심성수련대회	초 · 중 · 고	1. 5~1. 12	02) 838-3385
신흥사	어린이 겨울불교학교	초 · 중 · 고	12. 23~25	0339)57-3916
	청소년 수련대회	유치원 · 국민학생	12. 27~30	
한국불교청소년회	참나찾기 동계 연수대회	중 · 고등학생	1월중	02) 747-5787
불국사	청소년 수련대회	중 · 고등학생	1월중순	0561)746-9913
조계사 어린이회	겨울불교학교	국민학생	12. 25~27	02) 736-9043
회계사	겨울불교학교	유치원 · 국민학생	1. 6~8	02) 902-2663

사찰·신행단체 청소년겨울학교 잇달아 개설

알찬 불교캠프 '추위 아랑곳'

역사탐방·교리 퀴즈·서예교실등 심성수련 프로 다채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을 위한 겨울불교학교 및 수련대회가 각 사찰과 단체를 중심으로 다채롭게 마련된다.

청소년들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신심을 높여주기 위해 각 사찰 및 단체에서 특강형식으로 개설되는 겨울불교학교는 유치부에서부터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까지 서울 구룡사, 월간(등쪽나라), 부산 삼광사, 대구 은적사 포교원, 강원도 극락사 등지에서 전국적으로 열린다.

이에따라 전국의 청소년 지도자들은 수시로 모임을 갖고 프로그램과 그간의 경험, 정보를 교환하는 등 전에 없는 뜨거운 열의를 보이고 청소년들의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중이다.

이번 겨울불교학교는 예년과는 달리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나기 쉬운 청소년들의 '심성수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 단순히 '불교배우기'식의 천편일률적인 겨울불교학교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의 흥미를 끄는 역사탐방, 자기 표현하기, 촌극공연, 교리 퀴즈대회, 스키캠프, 풍물특강, 서예 영어 한자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는 물론 학부모들의 일맛을 돋구고 있다.

이러한 행사는 전국 대부분의 사찰과 불교단체에서 '겨울불교학교' '특강교실'등을 통해 겨울방학을 포교사각지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의 기회로 삼고자하는 구체적인 노력으로 보여진다.

어린이 겨울불교학교와 청소년 수련대회를 준비중인 성일스님(화성 신흥사 주지)은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현장체험과 놀이를 통해 역사를 배우고 불교를 부담없이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겨울불교학교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올 겨울불교학교는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건전한 사회의 초석이 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필선 기자

이리후 건강칼럼

<45 · 끝>

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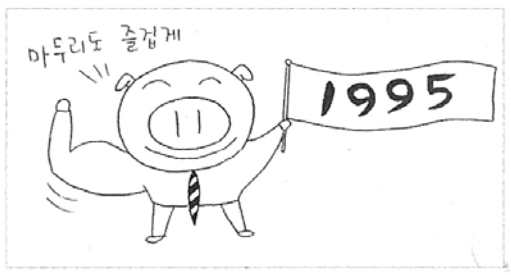
"한 해를 돌아보는 좌선을"…마음 열어야 자아성숙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틀에 박아놓은 것이 아니니깐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론적으로 많은 해소법이 나와있긴 하지만 그것이 내몸에 맞아야 멋진 옷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흔히 벽을 쌓으면서 남들이 우리를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이 말을 먼저 깊이 새겨볼 일이다. 이제 을해년의 한해도 저물어 가고있다. 한해를 답답히 되돌아보는 좌선을 해보자. 개인적으로도 다난한 한해들이었겠지만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들로 얼룩져 왔으니 안팎으로 스트레스가 아닐수가 없다.

손을 모으고 당당한 자세로 우선 앉아 한해의 필름을 찬찬히 돌려보자. 사실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충격임에는 틀림이 없겠으나 그런 충격들은 내가 마음을 열었다면 적어도 충격파를 줄일수 있었을 일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사회적인 충격이야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와 이웃, 가족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대인관계에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스트레스들은 나 자신을 첩첩이 철옹성을 쌓았던 결과가 아닌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볼일이다.

나는 대화를 하고자 마음을 열었는데 상대방이 마음을 열지 않아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스스로 정말 마음을 열었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대개는 말로는 마음을 열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마음을 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벽을 쌓고 내가 이렇더라도 상대방은 나를 알아주기를 바랐던 소망이었을 것이다. 마음은 열린부분도 있고 감추는 부분도 있다. 알려진 부분도 있고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

마음을 연다고 하는 것은 창문을 여는 것과 흡사하다. 창문을 열면 안팎의 공기가 서로 교류 할 수가 있지만 문을 꼭꼭 닫아두면 안팎의 공기는 소통할 수가 없을 것이다. 마음도 이와같이 열린 부분이 많으면 나를 알아달라고 소망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할 것이다.

스트레스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풀수가 있지만 자엽적인 방법에 앞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자세의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자세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들이 닦아야 할 문제는 어떻게하면 자신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를 강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마음의 창을 열고 새해를 기쁜 마음으로 맞아보자.

만화

法句經 법구경

* 사랑의 장 *
자기 의무를 다하면 사랑을 받는다

이 향 원



기술과 유통과정이 가격 을 해결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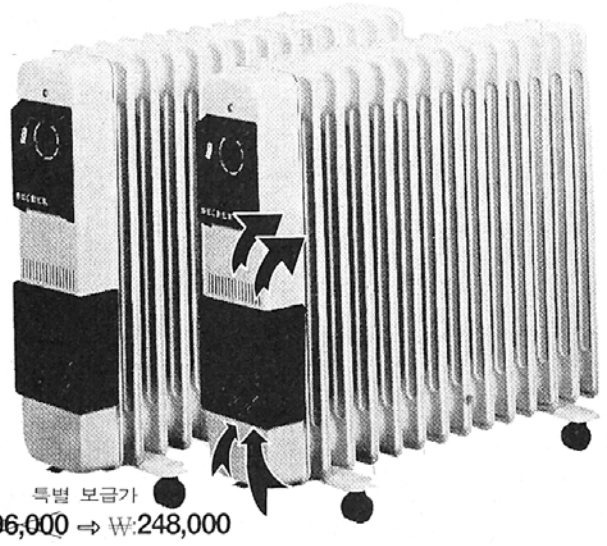
'95최신형 방열판 15개를 확인후 구입하십시요

BECKER · CALORIC의 장점
- 청정그린에너지의 난방기구
- 온풍팬 기능의 쾌속난방
- 자동온도 조절장치 및 과열방지 기능
- 자동 동파방지 기능
- 고품격의 디자인 및 앞선감각
- 이동이 자유로운 난방기구

주 요 기 능
- 자동온도 감지센서 기능
- 동파 및 과열방지 기능
- 열효율을 높여주는 공기 흡입배출 일렉트릭 팬

제 품 사 양

내용 품명	BECKER 라디에타
형식승인번호	한 7 - 743
정격전압	220V/60Hz
규 격	(W)82cm×(D)66cm
방열판수	15개
소비전력	1단 : 1,000W, 2단 : 2,000W, 1단+2단 : 3,000W, 2단+온풍팬 : 2,800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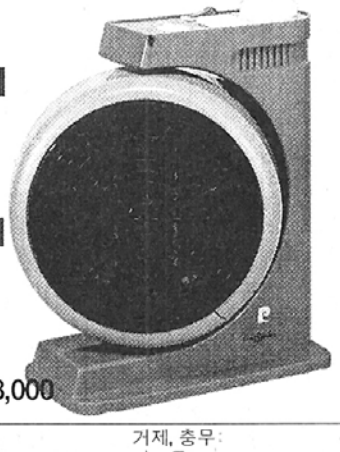
특별 보급가
수입원⇒창고⇒소비자 ₩:396,000 ⇒ ₩:248,000

회전식 세라믹 팬히터

Pierre Cardin

회전식 세라믹 팬 히터 장점
- 동종 최대의 강력한 파워
- 회전식 기능의 송풍난방
- 피에르 가르뎅의 디자인과 기술에 의한 고품격의 감각
- 조용하고 아늑한 실내분위기

세라믹 히팅 방식이란?
전기에 의해 간접 가열된 특수가공 세라믹 관넬 사이로 공기를 방출시키는 원리로 산소가 타지 않는다.



특별 보급가
₩:160,000 ⇒ ₩:138,000

분사식 송풍 난방

MAX

청정그린에너지의 난방기구
- 연소식 일반난방기의 문제점 완전 해결
- 분사식 기능의 송풍난방으로 아늑한 분위기 연출
- 자동온도장치 및 과열 방지기능



특별 보급가
₩:380,000 ⇒ ₩:278,000

신용카드 구입시 18개월 장기분할

전국직판망 모집
남미물류(주)
代:02)516-0114
소비자:02) 566-6373

■광역시
부 산:646-7905~6
광 주:361-1349
대 구:
대 전:627-9484

■경기도
인 천:434-8844
평택, 오산, 안성:
(0333)655-0966
수원:(0331)32-6344
수원:(0331)216-6336
성남, 판교:
일산, 고양:
안 양:43-8949
김포, 강화:

■강원도
강 릉:
원 주:

■경상도
진 주: 43-0880
포 항: 47-8794
울 산:
마 산: 56-7685
거제, 충무:
안 동:

■충청도
천안 · 온양
(0417)582-4475
홍성 · 대천 · 예산:
(0451)34-0121~2
서 산:665-9413

■전라도
전 주: 85-5130
이 리:
군 산:452-0386
여 수:
여 천:
광 양:762-7944
목 포: 78-6428
순 천:

새로 나온 책……

▲석가여래행적송(무기 지음)=석가여래 일대기를 시의 형식을 빌어 찬송하고, 그 송에 해설을 곁들인 〈석가여래행적송〉에 동국역경원장 월운스님이 전통적인 방식에 의거해서 토(吐)를 붙였다.〈불천, 9천원〉



▲마음의 비밀1(성운 지음)=대만 불광사 회주 성운스님의 윤회와 인연, 운명에 대한 강연내용과 서울 구룡사 점안법회에서 한국불자들에게 설한 법어를 묶었다. 91년 발행된 것을 수정증보했다. 〈토방, 6천원〉



▲윤회(상·하, 김영무 지음)=우리들의 평범한 일생이 바로 윤회의 거듭됨임을 주제로 한 구도소설. 작가는 사소하게 마주치는 인연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되찾는 것이 곧 삶의 성찰이라고 강조한다.



〈문원북, 각권 5천8백원〉

▲어린 방랑자(댄 카비카오 지음)=화엄경의 선재동자를 연상시키는 주인공 클레어의 영적 모험을 통해 용서와 사랑과 내면의 힘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케 해주는 구도소설. 김석희 옮김.

〈정신세계사, 6천5백원〉

중국 도제스님 일대기 '醉菩提' 전5권 첫 번역

"세상사 초월한 活佛이야기"

중생 고통·번뇌 대신 짊어진 자비실천 수행자 삶 사실묘사

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징벌하고 특히 부정과 부패를 저지른 관청과 관리를 골탕먹이는 행동을 서슴치 않았던 중국 송나라 때의 전설적인 승려 도제(道濟, 1148~1209). 그의 일대기를 전5권 분량의 소설로 엮은 〈취보리(醉菩提)〉가 우리말로 번역되어 나왔다. 불지사 펴냄.

원제는 〈제전어록(濟傳語錄)〉. 한토막의 평화(平話:口頭文學) 형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청나라 때의 곽소정 등이 2천여 항목, 600쪽 12권 분량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책으로 편찬 정리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TV드라마로 널리 알려진 송나라의 청렴한 관리 포증 즉 포청천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용도공안(龍圖公安)〉과 함께 중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책이다.

'취보리'라는 제목이 '술을 사랑하는 깨달음'이라는 뜻을 지녔듯이 이 책에서 도제는 세상사를 초월한 신승(神僧)일 뿐만 아니라 강호협객(江湖俠客)의 품모를 지닌 인물로 등장한다. 사실 그의 삶이 그랬다.

그의 행장을 기록한 '정자사지'(淨慈寺誌)에 따르면, 그는 광기가 있고 속세에 몸을 담그고 때로는 아이들과 어울려 곤두박질을 하며 장난을 하기도 했다. 불문의 계율에 위배되는 행동을 많이 해 그가 출가한 영은사의 다른 스님들은 그를 미친 중 즉 제전(濟顚)이라 낮춰 불렀다.

그러나 속세의 사람들은 오히려 착한 사람을 공대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며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는 등 자비행의 화신인 제공을 활불(活佛)이라 칭송하며 무척이나 좋아했다.

이번에 나온 〈취보리〉는 '헌 짚신 활보하니 걸음마다 연꽃피네' 등 각권의 부제가 암시하듯 자신의 깨달음보다는 중생들의 고통과 번뇌를 대신 짊어진 인간적인 면모의 제공스님을 그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중생제도와 정의구현을 몸소 실천한 활불이야기로 읽힌다.

군사반란과 부정부패로 두 전직대통령이 구속되는 어지러운 시국에 일침을 가하는 이 소설은 나아가 불교와 수행자와 중생들의 삶과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케 해준다.

번역은 북경대학 동방어문계 양오진교수와 동국대 불교대학원에 유학중인 중국 연태대학 한국학원교사 김화씨가 했다.



◇〈취보리〉는 인간사회의 허위성을 질타하고 정의를 구현하려는 의지가 넘치는 의미심장한 문학작품으로 평가된다.

어학부학장은 이 책의 추천사에서 〈취보리〉를 "인간사회의 허위성과 세태의 냉혹함을 질타함으로써 정기(正氣)와 정의(正義)를 구현하려는 의지가 넘치는 의미심장한 문학작품"이라며 "이 작품이 중국에서 8백년 이상이나 사회 각 계층 인사들의 주목을 받는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평가했다.

정성운 기자

'천년의 고독…' 발간

티베트 자연·역사 소개



달라이 라마의 조국으로 널리 알려진 티베트의 실상을 소개한 〈천년의 고독 티베트〉(글나루)가 나왔다. 저자는 티베트연구소 부이사장인 곽귀훈씨(전 동대부고교장).

이 책은 지난해 7월 16일부터 32일 동안 세계의 마지막 오지 티베트를 탐사, 그곳의 자연과 역사, 이색종교, 소수민족들의 낯선 풍습 등을 저자의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저자가 직접 촬영한 풍물사진 1백여장을 곁들여 티베트에 대한 독자들의 호기심을 채워주고 있다. 또 고유의 밀교신앙에 대해 비교문화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어 서구인에 의해 알려진 티베트의 또다른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바라밀쑥뜸…' 펴내

각광스님, 불교전통치료법

도심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각광스님(보문포교원장)이 불교의 전통쑥뜸치료법을 밝힌 〈바라밀쑥뜸 건강치료요법〉(바라밀건강연구회 펴냄)을 펴냈다. 각광스님은 "병고를 구제하는 의학과 중생을 재난으로부터 구제하려는 불교는 무관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론과 실제를 체계화시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코자 책으로 펴냈다고 밝혔다.

명사추천 불서 100선

지명 '허공의 몸을 찾아서'

며칠 전에 모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주간지에서 〈일체유심조〉라는 구절을 발견하고 불교의 대중화를 새삼 실감했다. 그런데 이것이 〈一體有心調〉로 쓰인 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주=一切唯心造). 이러한 맥락에서 여기에 추천하는 불서는 불교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반적 교양서로서도 필독의 양서임을 서두에 명시한다.

석지명스님의 〈허공의 몸을 찾아서〉는 그 제목이 풍기는 시적 상징의 미묘함에 걸맞는 매우 오묘한 불교의 총체적 해설서이다.

제목이 시적(詩的)이라고는 했지만 내용은 산문의 특색이라 할 명징성(明澄性)으로 일관하고 있어 여러 경전의 난삽한 구석을 두루 시원하게 긁어주는 매우 친절한 불교세계의 안내자의 역할을 겸하기도 한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이 책의 으뜸가는 특징은 근기(根機)에 따라 그 요청을 채워준다는 점일 것이다. 예컨데 학문적인 접근, 초심자의 신행(信行)의 길잡이, 문필가의 소재 모색 등등, 불교에 관해서라면 각계 각층의 미진수(微塵數) 중생의 속마음을 꽤나 깊이 파고드는 박력을 가진 희귀한 저술이다. 이것은 내게 이 책을 권한 동료교수의 의견을 옮기는 말이기도 하다. 구구한 설명이나 부연을 줄이고 저자에게 직접 귀를 기울이자.

"공사상의 부정을 뒤집어서 서로 꽉 차있다는 사상의 긍정으로 돌린 것이 바로 〈법화경〉이다. 〈반야경〉에서는 사물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이 수행이지만 〈법화경〉에서는 모든 사물을 있는 모습 그 자리에서 진실한 실상으로 긍정하는 것이 수행이다. (p.256)"

이와 같이 〈경〉의 계보를 밝힘으로써 〈법화경〉의 위상을 드러내는가 하면 그 명칭을 부연하는 마당에서 꽃과 열매를 들어 인(因)과 과(果)의 동시성과 수행과 성불의 둥질성을 말한다.

다음으로 좀 길게 인용하려는 바는 간편하고 쉬운 것을 선호하는 현대인의 이해를 돕는 대목이라 하겠다. 방대한 〈법화경〉의 복잡한 구조를 저자는 명쾌하게 분석함으로써 〈경〉의 줄기를 추려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준다.

"〈법화경〉 28품 중에서 가장 짜임새있게 연결된 것은 두번째 〈방편품〉으로부터 시작되는 여덟개의 품(원시팔품)이다.



신 동 춘
(시인·한양대 교수)

불교요체 현대적 감각 재조명

법화경 분석 명쾌…신행 길잡이

법을 전하는 네 단계 절차는 정설(正說), 영해(詠解), 술성(述成), 수기(授記)이다. 〈원시팔품〉에는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 제자들의 고백, 부처님의 인증, 그리고 성불예언이라는 네 단계의 절차가 세 번 주기로 반복된다. (p.258)"

이것은 〈방편품〉의 이른바 삼주설법(三周說法)의 정의이다. 〈허공의 몸을 찾아서〉를 진득하게 읽어나가노라면 전후 문맥에서 어렵게 느껴지던 문제점들이 저절로 풀려나가기 마련이다.

불경은 불교인의 전유물이기 이전에 우리의 국민적 유산이다. 장구한 시간의 무게로 말미암아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고는 하지만 그 의미의 전달이 자칫 흐려지는 듯한 요즘을 이 책은 불교의 요체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조명한 책임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북한산 역사지리

김윤우 편저



북한산은 서울 근교의 등산하기 좋은 산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이 산이 불교문화의 보고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북한산 역사지리〉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북한산 주변의 사찰과 사지를 '북한산지'를 비롯한 여러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이 책에서 사적기와 조선시대 각종문집을 통해 확인한 사지만도 중흥사 용암사 보광사 등 11곳에 이른다. 또 부왕사 원각사 서암사 인수사 장의사 도성암 신혈사 향림사 등 이름만 전하는 사찰의 사적기를 일일이 밝히고 있다.

저자는 북한산에 진국사 등 5개 사암을 창건하는 등 크게 불사를 일으킨 성능스님의 사적비라도 건립하길 발원한다며 북한산의 역사적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산의 역사지리 개관, 조선시대의 삼각산과 북한산성기 등 3부로 구성되어 있다. 〈범우사, 9천원〉

관세음보살 일대기

김현도 편저



지혜와 자비, 신통력과 자재방편을 갖추고 무수한 중생을 제도하는 관세음보살. 지금까지 관세음보살은 불교역사나 교리에서 관념적인 존재로만 인식되어 왔다.

〈대성 관세음보살 일대기 상·하〉에서는 관세음보살이 보살수행을 통해 자비구세의 정신을 실현하는 실존했던 인물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관세음보살은 서기전 250년경 중부아시아 파밀고원 동쪽에 위치한 흥립국 묘장왕의 셋째 공주 묘선이라는 것. 묘선은 사도(邪道)를 신봉하는 부왕 때문에 무수한 박해와 극형까지 받게 되었으나, 초인적 위신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곤륜산에 들어가 수도하여 대보살도를 성취했다.

저자는 관음제도본원진경(觀音濟度本願眞經)과 그밖의 사적 고증을 통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삼양, 각권 6천5백원〉

와 제 외 책

'불교문화 보고' 역사적 복원 주장

관념적 존재아닌 실존인물 추정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기도	일 타	효 림
2	도가 본시 없는데 내가 무엇을 꺼냈겠나	서 암	동 지
3	사찰의 벽화이야기	권 영 한	전원문화사
4	티벳사자의 서	파드마삼바바	정신세계사
5	불교의 이해와 실천	이 중 표	대원정사
6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7	방한암 선사	김 호 성	민 족 사
8	소설 등신불	석 용 산	문학수첩
9	길 그리고 길	도 법	선우도량
10	깨달음으로 이끄는 명상	마 하 시	경 서 원

구입문의:(02)737-0695

바로 잡습니다 본지 제57호(12월 13일자) 8면 '정신과의사의 문화재 사랑' 제하 기사중 '최치원'은 '서영수'로, 제55호(11월 29일자) 8면 '부처님육성…' 제하 기사중 '김동화'는 '고익진'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불음가득, 법향가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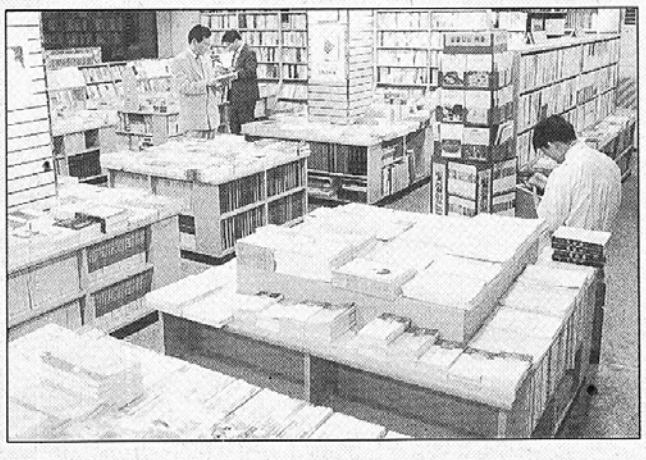
항상 길 떠나는 마음, 책방 여시아문이 함께 하겠습니다

독자와 함께 하는 독서회원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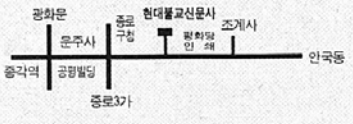
책방 여시아문의 회원이 되시면 언제든지 필요한 서적을 편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며 본 책방에서 발행하는 신간 안내 소식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책방 여시아문은 고객의 입장에서 책에 관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책방 여시아문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도 회원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모십니다.
회원가입은 책방에 비치된 신청서 및 전화, 팩스로 신청해 주십시오. 가입비는 무료입니다.

항상 독자를 찾아가는 통신 판매

지방에 계신 독자나 산사의 스님, 책방에 나오시기 어려운 분을 위해 통신 판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 주문은 전화,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송료는 책방 여시아문에서 부담합니다.



찾아오시려면



매월 발행하는 독자들의 귀와 눈

"책방 여시아문 소식지"

매월 15일 발행하는 여시아문 소식지는 불교 서적에 관한 최신 정보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 새로 나온 책—각종 불교서적 및 불교 관련 신간을 빠짐 없이 수록하였습니다.
- 독자가 뽑은 나의 불서—애독자와 함께 추천하는 불서
- 불교 출판 편집자가 뽑은 명저—불교서적 출판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불교서적 전문 출판 편집자가 추천하는 불서
- 책방 여시아문이 뽑은 이달의 책—본 책방에서 양서라고 검증된 불서만 가려 뽑아 싣습니다.
- 불교 출판사를 찾아서—불교 출판 문화 발전에 항상 노력하고 있는 불교 출판사 탐방
- 베스트셀러 20선—책방 여시아문 월간 판매 집계 20선.
- 책방 여시아문 자세히 보기—독자 여러분께 보탬이 되고자 본 책방 소장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을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

저무는 '미술의 해' 아쉬운듯

'불심전시회' 다채롭다

'미술의 해'가 저무는 가운데 불심과 예술혼이 가득 담긴 전시회가 다채롭게 열리고 있다.

어느해보다 불교미술이 풍성하게 화단가를 장식했던 한 해의 마지막 달에 불자들의 발길을 붙드는 전시회장에서 다사다난 했던 한 해를 정리하는 것도 뜻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같은 전시회는 전국의 주요도시에서 열리고 있다.

▩김희자전

작년에 '실체와 비실체'를 주제로 전시회를 가져 주목받았던 김희자씨가 올해는 허와 빛의 이미지들을 강조한 신작들로 전시회를 갖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의 일정으로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김씨의 전시회는 특유의 여백 따내기와 그림자 처리가 돋보이는 작품에서 설치작품까지 다양한 메뉴로 구성돼 있다. '우울상자 젖히기' 시리즈 속의 '내 속에 내가 갇히다' '인연을 따라' 등과 '망상새는 나를 사랑하는 집착의 덫에 걸려 날지 못한다' 등 작품들은 김씨가 고뇌하는 예술혼의 근거가 바로 인식의 제8 아뢰야식에까지 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퍼르시아여 지중해

실크로드 미술기행전의 세번째 기획인 이 전시는 동아그룹이 운영하는 동아갤러리에서 15일~20일까지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중국과 인도 타클라마칸 사막과 히말라야 산맥 일대의 풍광에 이어 지중해와 아랍문화권 지역의 문화 흔적을 예술의 눈으로 본 작가들의 작품이 다채롭게 내걸린다. 이왈종, 강대철, 김봉준, 이석주씨 등 불자 화가들이 대거 동참했다.

▩분원요 황금백자전

경기도 광주군 남종면 삼성리의 분원요(分院窯)에서 황금백자(발명특허 077859호)를 빚어 온 은정식씨의 도자기전이다.

은정식씨는 19일~31일까지 명동 롯데백화점 화랑에서 전통 백자기법과 황금 진사, 철사 기법의 절묘한 랑데뷰가 돋보이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조선시대에 왕궁에 도기를 납품했던 분원터를 다시 일군 은씨는 '백자양각당초문표현병' 등 80여점의 황금백자들을 선보인다.

▩안성금 '붓다의 소리'전

안씨가 미술의 해를 마감하며 마련한 이번 기획전은 전국을 뒤돕고 있는 12·12 군사쿠데타를 자신의 독특한 설치작업 영역으로 끌어들여 화제가 되고 있다. 안씨는 그간에 보여 준 부처님 좌상과 평면작업 등을 통해 '부처님의 소리'를 형상화 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로 조성한 설치미술은 80평 전시공간을 가득채운 소리통으로 구성된 것.

제목이 '12·12'인 이 설치작품은 관람객이 직접 자신의 말소리를 들을 수 있게 구성돼 있어 부처님의 소리와 우리시대 역사적 죄악의 소리를 묘하게 대비시키고 있다.

▩한국여성미술전

13일~31일까지 일정으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이 전시에서는 정경연, 장상의, 이화자, 오숙례, 김인순, 신산옥씨등 중견여류화가들의 불교향기 가득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이밖에도 이미 본지를 통해 소개된 이근후박사의 경주남산 석불사진전(14~20일 세종문화회관 제3전시실)에도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임연태·도필선 기자

김희자전 '허와 빛 이미지' 강조 신작 돋보여

이진형전 '부처님 열반상' 등 목조각품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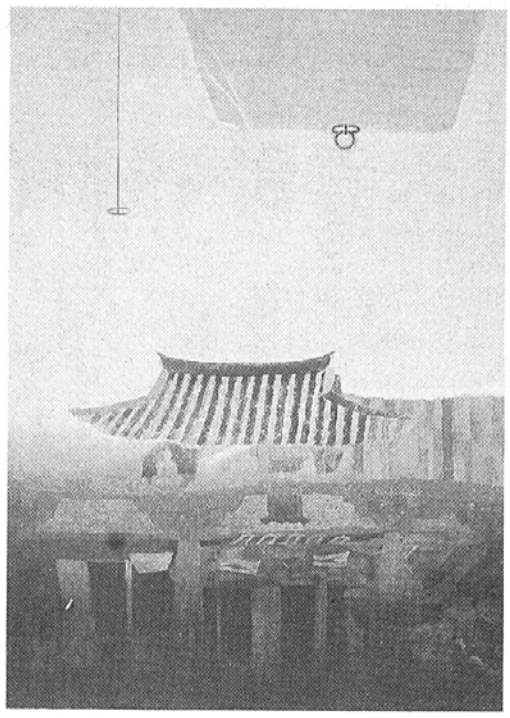
김부견전 '부처님 시집가는 날' 등 신심 물씬

페르시아여… 지중해·아랍권 문화 흔적 볼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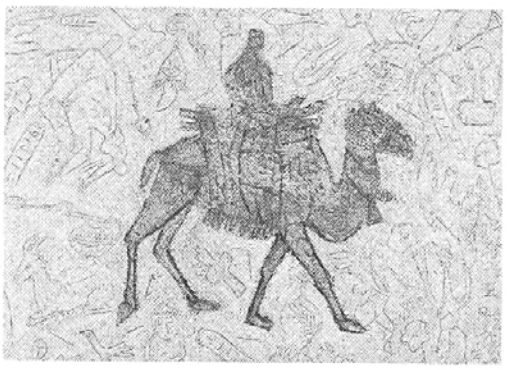
'광주 분원요'서 빚은 도자기 80점 **황금백자전**

12·12쿠데타 표현 설치작품 '눈길' **안성금전**

불교 향기 가득한 중견화가 작품 **여성미술전**



◇ '95 한국여성미술제에 출품된 이화자씨의 '부석사'.



◇ '페르시아여…'에 출품된 이왈종씨의 '생활속에서-中道'.

불심시심 〈40〉

바다 가로지른 기러기

遠風漁笛一聲長 (원풍어적일성장) 한 곡조 어부의 피리 먼 바람에 실려

萬里江天向夕涼 (만리강천향석량) 만리의 강 하늘 석양따라 서늘하다

驚起白沙汀畔雁 (경기백사정반안) 백사장가 기러기 놀다 일으켜

海門斜盧兩三行 (해문사로양삼행) 바다 어구 빗겨 건너는 두서너 행렬

지난 번에 취미대사가 속사들과 격의없는 사귐이 있어 자신의 명성은 물론하고 불교 자체의 홍포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것이 바로 당시 스님들의 시가 세속의 선비들을 능가하고도 남는다는 반증이다.

위에 쓴 시는 그러한 논의의 자료로 취해 본 취미대사의 시이다. 시의 제목은 '강가에서 들리는 피리(江上聞笛)'이다. 시의 제목에서 보이듯이 피리소리를 듣고 짓는다. 귀로 들리는 소리를 가지고 눈으로 보는 경치로 그리고 있다.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하다. 먼바람이라 하였으니 가까이에서 들리는 피리소리가 아니다. 먼 거리란 상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피리소리를 듣고 머리 속으로 그리는 풍경이다. 그러기에 소리는 길다. 이것이 어부의 곡조이니 강이 연상되었다. 석양이 가까와지는 싸늘한 풍경이다. 귀로 소리를 듣고는 싸늘한 촉감을 느낀다. 청각을 촉각으로 바꾸었다.

이 싸늘한 저녁 피리소리에 놀란 한떼의 기러기 무리는 비상할 것이니 강 어구 저 먼 곳으로 한 점 한 점 이어지는 행렬이 보이는 듯하다.

앞에서 느꼈던 촉감의 싸늘함에 이제는 시각의 현실적 풍경으로 바뀌어 하늘로 비상하고 있다. 그것도 저 바다 어구를 가로 지르는 사선의 빗금으로 시원하게 펼쳐져 있다. 이 시는 이렇듯 선과 선으로 교차되는 멋진 구도를 가졌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들리는 피리소리는 옆으로 긋는 수평의 선, 강 하늘로 잇는 석양의 수직선, 하늘로 날라 강을 가로질러 사선을 긋는 기러기의 행렬, 상하 좌우로 선을 긋듯이 펼쳐진 풍경이다. 시의 흐름 자체도 백사장에 내리는 기러기처럼 쭉 흘러 내린다. 붓끝이나 호흡이 멈춤없이 유유자적하다. 이 또한 스님의 막힘 없는 마음자리에서 빚어지는 풍경이라 하여 무방한 것인가.

이종찬 〈동국대 교수〉



덴마크 문예진흥기금 받은 **박찬갑**씨

"양국 예술교류 공로 인정"

내년 4월 코펜하겐문화제 초청받아

조각가 박찬갑씨가 덴마크 정부로부터 문예진흥기금을 받게 됐다.

"덴마크의 코펜하겐이 EU 15개국이 선정하는 96년 문화의 도시로 지정됐습니다. 그와 관련한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일년간 코펜하겐에서 열리는데 제가 독일의 워커와 타일맨 두 작가와 함께 초청된 것입니다."

내년 4월부터 열릴 '오픈 바이 코펜하겐전'에 참가할 박씨는 노다다미술관에서 기획전을 갖게 된다. 독일의 두 작가는 통일이후 독일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박씨는 분단 한반도의 아픔을 각각 조각과 행위예술로 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덴마크의 문예진흥기금은 이 행사 참가를 위한 노다다미술관의 지원금과는 달리 그간 한국과 덴마크의 예술교류에 공헌한 공로로 받게 된 것이다.

"아직 사회주의 정서가 강한 덴마크에서 한국 미술에 대한 관심이 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적 사유로 현실적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형태의 조각분야에 흥미를 갖고 있어 두 나라 예술교류에 불자들의 보다 넓은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씨는 지난 4월21일부터 5월13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서울·코펜하겐전을 서울에서 열었으며 9월2일부터 10일까지는 덴마크 오후스에서 'DMZ·한의소리' 이벤트를 개최했었다. 〈태〉

전통염색법 보급 앞장 **곽윤신**씨

천연염료 사용 승복제작에 '열의'



내년 가을에는 천연염료를 사용해 만든 승복을 보게 된다.

"최첨단, 신기술, 고문명에 지쳐버린 현대인들의 눈길이 푸근함과 깊이가 있는 자연의 색으로 향하는 것은 바로 '본연의 나'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죠."

지난 12일 월간 〈아름다운 우리옷〉 창간 7주년기념 세미나에 초청돼 천연염료의 매력과 순수성을 상세히 소개한 곽윤신씨(천연염료회화가).

곽씨는 '색은 인간의 심성을 다스린다'고 믿는다. 그 믿음은 20여년의 불교공부를 통한 '자아 찾기' 노력으로 얻은 신뢰와도 상통한다.

곽씨는 신앙과 더하면 더할수록 깊어지는 자연의 색, 전통의 빛깔에 대한 믿음을 통해 승복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동안 승복을 만들어보고자 오배자, 먹 등을 이용해 30가지 이상의 회색샘플을 만들었어요. 그 샘플들을 이용해 스님들의 복식을 한층 격상시키는게 앞으로 제가 할 일이 아닐까 합니다."

곽씨는 내년 8월에 개최될 한국전통공예대전에 승복을 출품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필〉

▩이진형불교조각전

30여년간 전통불교조각에 심혈을 기울여온 이진형씨의 불교조각전은 19일~26일까지의 일정으로 부산 국제신문 문화센터 4층 1전시관에서 열린다. '부처님 열반상' 등 사실성이 독특하게 강조된 목조각 작품들이 지난 10월 서울전에 이어 소개된다.

▩김부견 천불천탑 꿈전

전주에서 활동중인 김씨의 아홉번째 개인전은 화순 운주사의 천불천탑에서 받은 예지들을 평면으로 구상한 신작들로 이뤄진다. 일정은 15일~21일이며 전주 얼화랑에서 불자들의 시선을 유혹하고 있다. '이뭣꼬' '부처님 시집가는 날' 등 '부처님 세상 엿보기'의 단면을 '부처님 세상가꾸기'의 염원으로 승화시켜 내고 있는

문화재 소식

성철스님 생가 복원 사리탑등 98년 완공

경남 산청군은 해인사 백련암과 함께 지난 5일 성철스님이 출가하기 전까지 25년간 살았던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 216번지 일대 3천여평의 터에 생가를 복원, 박물관 사리탑 동상 암자 전시실 비석 등을 세우기로 했다.

산청군은 내년초 설계를 시작해 98년 해인사에 건립될 성철스님 사리탑 준공식과 5주기에 맞춰 생가터 복원을 마칠 계획이다.

군이 생가입구까지 도로개설을 비롯한 대형주차장과 화장실, 매점식당등 편의시설을 짓고 백련암측이 성철스님의 유적지 복원을 맡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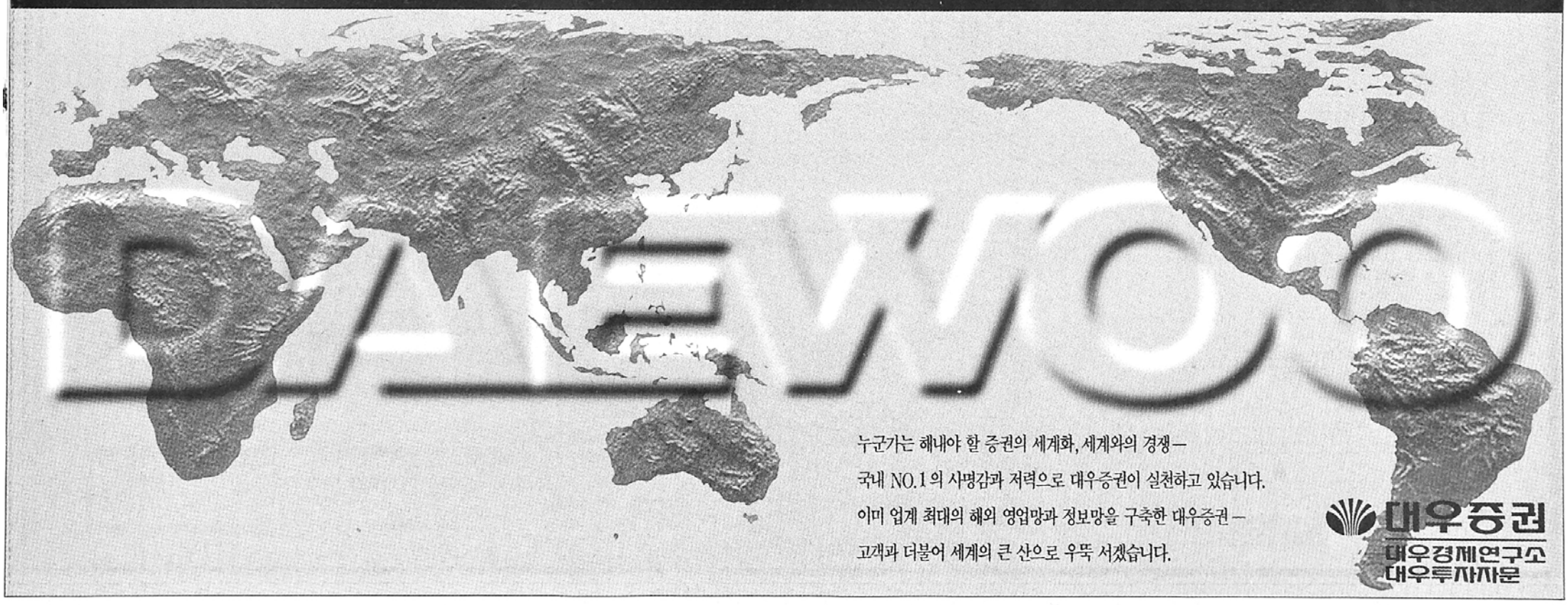
생가터는 1912년 4월10일 탄생한 성철스님이 대원사로 출가할 때까지 살았던 곳으로 현재 집터만 남아있다.

구텐베르크박물관 한국실 확장 재공개

금세기에 설립된 세계 유수의 인쇄문화 전문박물관인 독일 구텐베르크박물관은 지난 7일 기존의 한국실을 크게 확장, 재공개했다. 이에따라 세계 최고(最古)의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복제품등 우리 인쇄문화가 이전보다 훨씬 나은 대접을 받으며 일반에게 모습을 보이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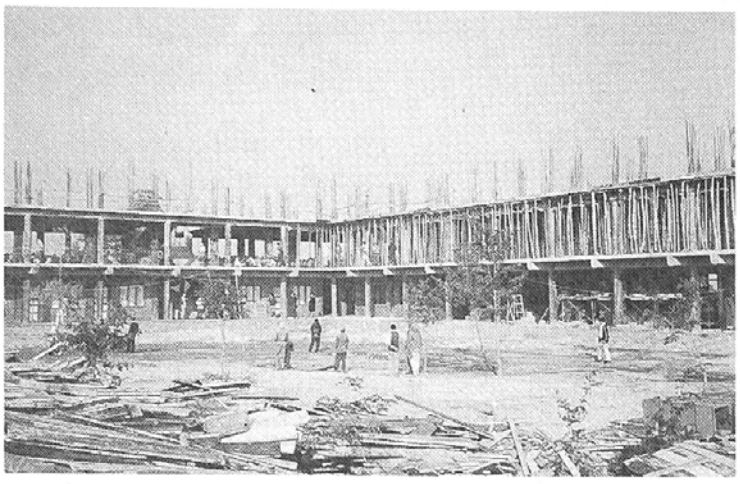
한·독 공동사업으로 추진된 이번 한국실 확장공사(일본실·중국실보다 2배이상 넓은 30㎡의 전시면적)로 목판본, 금속활자, 한글활자 등의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대형 벽면전시관도 새로 설치, 기존의 혼합전시 때와는 달리 유물별 특징과 가치를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됐다.

세계와의 승부- 1위 회사의 사명입니다



누군가는 해내야 할 증권의 세계화, 세계와의 경쟁-
국내 NO.1의 사명감과 저력으로 대우증권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미 업계 최대의 해외 영업망과 정보망을 구축한 대우증권-
고객과 더불어 세계의 큰 산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대우증권
대우경제연구소
대우투자자문



◇지난 6일 기공식을 가진 대성 석가사 일반 요사채 1동은 이미 3층규모(7백80평)의 골조공사를 마무리 하고 있다. 내년 3월 이 요사채가 완공되면 룸비니 참배객 2백여명에게 무료 숙식을 제공한다.



◇1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기공식 법회에는 10년간 룸비니개발위원회장직을 맡았던 록다산 고문(사진 앞줄 우측 두번째), 성정경 주 네팔 한국대사(우측 맨끝), 코네코 정현일사장(우측 세번째) 등이 자리를 빛냈다.

룸비니동산에 대성 석가사 기공

인도 속의 한국불교



◇주지 법신스님

부처님께서 오신땅 성지 룸비니에 세워지는 한국사찰 대성 석가사(大聖 釋迦寺·주지 法信) 요사채 기공식이 거행된 12월 6일. 행사에 참석차 먼 길을 달려간 한국 불자들과(서울 대각사·대성사, 부산 중생사, 경주 천룡사) 일간지 문화부 기자단 등 1백여명은 새벽안개를 가르며 마야당과 아쇼카 석주가 있는 룸비니 동산을 참배했다. 아쉽게도 사진을 통해 눈에 익혀 놓았던 마야당은 전일본불교회에 의해 보수중이어서 천막으로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부처님 탄생자리가 아쇼카 석주에서 오른쪽으로 20m지점이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이는 일본의 고고학자 우애사씨(전일본불교회 주임)에 의해 밝혀졌다고 양진교법사가 전했다.

국제사원구역으로 룸비니 동산에서 1Km 지점에 건립되는 대성 석가사 기공식 법회는 오전 9시에 대각사 총무 靑靑스님의 사회로 시작됐다. 成正慶 주네팔한국대사, 록다산 네팔 룸비니개발위원회 고문(전 네팔문화부장관), 정현일 코네코사장, 룸비니 구역내 네팔, 베트남, 일본, 미얀마 스님 등과 지역주민 등 1천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화창한 날씨에 지역 축제일을 방불케한 이날 기공식은 이미 3층 규모로 골조공사가 끝난 일반요사채 2층 임시법당에서 열렸다.

법회는 법신스님의 경과보고, 도문스님의 법어, 成대사, 록다산, 정현일사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은사 도문스님의 명을 받아 지난 4월 룸비니에 도착, 현지인 기술자 2백50명을 고용하여 직접 공사 감독을 하고 있는 법신스님은 지난 6개월이 감격스러운듯 떨리는 음성으로 경과보고를 했다. 법신스님은 "내년 3월까지 현재의 7백80평 일반 요사채 1동을 마무리하고 이어 2동과 1천평 규모의 법당, 그리고 승려요사채 2개동(1천2백평) 종각 등 총 3천7백여평의 당우를 차례로 지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道文스님(대각사 주지·대성사 조실)은 법어를 통해 '인도의 불교 4대성지를 잘 가꾸라' 고한 용성스님의 유훈을 되새기면서 "대성 석가사는 한국불자의 귀의처로 세계속에 한국불교를 알리는 전초기지가 될 것"을 다짐했다.

10년간 룸비니 개발위원회 회장직을 맡았던 록다산 고문은 "대성 석가사는 먼저 시작한 다른나라 사찰보다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다"며 비렌드라 네팔국왕도 5일 도문스님을 접견,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대성 석가사는 현지에서 구운 한국식 기와로 지붕을 얹어 전통 회랑식의 요사가 마무리되면 룸비니 참배객들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며 도서관도 개설한다. 일반요사 1동은 한번에 2백명을 수용할 수 있다.

대성 석가사는 현재 확보된 8천평 부지에 5년여에 걸쳐 1차 불사를 끝내면 5천여평을 추가로 확보해 선원 강원 율원 한국의 집 등을 건립, 국제사원구역에서 가장 큰 종합 대가람을 조성할 계획이다.

룸비니 국제사원구역은 총 2백40만평. 전체 42개 구역중 현재 22개가 불교국에 배정돼 사찰 건립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성 석가사가 가장 시선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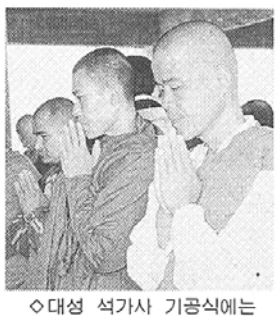
지역주민들 중에는 이미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석가사를 '우리 절'로 생각하며 절 일을 돌보는 이들도 많다.

한국불교가 룸비니 동산에서 꽃피울 날을 바라면서 도문스님 선창으로 만세를 부르며 기공법회는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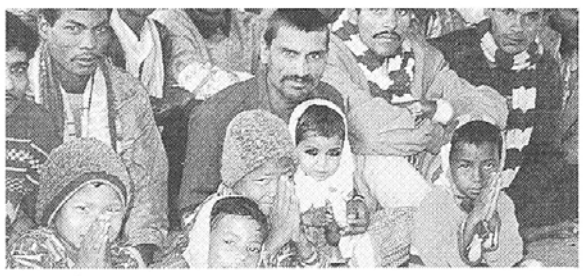
네팔=최 정 희 편집국장



◇비렌드라 네팔 국왕은 5일 도문스님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국왕은 룸비니 동산에 석가사를 세워 양국 불교 교류와 우호를 다지게 돼 기쁘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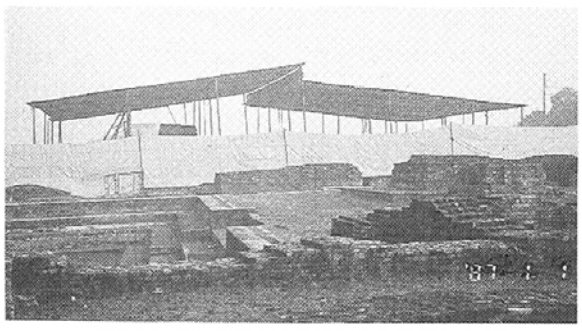


◇대성 석가사 기공식에는 룸비니 구역내 네팔, 베트남, 일본, 미얀마 등 외국인 스님들도 하객으로 참석했다.



◇현지 주민 3백여명이 참석한 대성 석가사 기공식 법회는 마치 마을축제와 같았다.

부처님 오신 땅서 한국사찰 대하니 '감격'
1천여명 참석…3700평 규모 2000년 완공



◇전일본불교회에 의해 보수중인 룸비니 동산의 마야당.

4성지에 울리는 한국 목탁소리
석가사·고려사·녹야원·대한사등 속속 '자태'

한국불교가 부처님의 체취가 어려있는 인도 4성지에서 전법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6일 기공식을 마친 룸비니의 대성 석가사를 비롯 보드가야의 고려사, 사르나트의 녹야원, 쿠시나가라의 대한사가 인도 속에 건립되고 있는 한국 절이다.

깨달음의 성지 보드가야 대탑에서 멀지않은 곳에 자리한 고려사(주지 月牛)는 92년 2천1백평의 부지를 확보, 현재 임시법당과 5개의 방을 갖춘 요사채를 갖추었다. 고려사는 4천평의 대지를 더 마련하기 위해 인도정부에 신청서를 냈다고 한다. 앞으로 큰법당과 대형 건물을 세울 예정이다.

사르나트의 한국 절 녹야원은 승가대를 졸업하고 90년 이곳 산스크리트어대학에 유학온 道雄스님(40)에 의해 불사가 시작됐다. 93년 2회에 걸쳐 2천1백평의 부지를 구입한 스님은 지난 2월부터 2백50평 규모의 요사채 '겸익루'를 짓고 있다. 96년 2월 완공한다. 내년에 법당과 월정사 탑형의 대탑을 세울 계획이다.

도웅스님은 법적으로 포교가 금지돼 있으나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타종교인들의 불교개종의식에 참여할 정도다.

쿠시나가라의 대한사는 주지 성관스님이 1천8백평 대지에 45평 규모의 요사채 1동을 94년 완공했다. 역시 가람불사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어렵기만 하다.

룸비니를 제외한 3대성지의 한국사찰은 90년 결성된 在印 한국불교협회(회장 현동화)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고 조계종에 등록되어 있다.

특히 서울의 구룡사 정우스님은 인도의 한국사찰 건립위원회 위원장으로 불사를 지원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도 금년에 5백만원씩 지원했다.

이 절들은 매년 5천명이 넘는 한국의 성지순례자들에게 숙식 편의를 제공하면서 한국불교의 국제화에 기여할 뜻을 세우고 있다.



◇보드가야 대탑 인근에 자리한 고려사 전경(원내는 주지 월우스님).



◇96년 2월에 완공될 사르나트 녹야원의 요사채 겸익루(원내는 주지 도웅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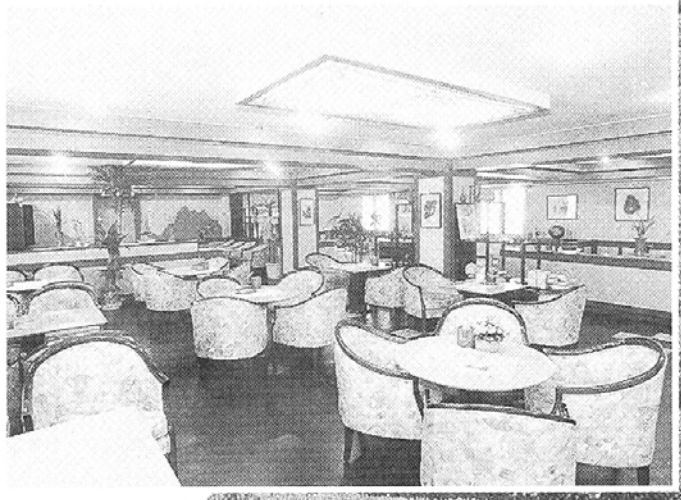


◇94년에 세운 쿠시나가라의 대한사(원내는 주지 성관스님).

정성으로 올린 한잔의 차,
기쁨과 여유를 함께 마십니다

▶ 녹수청산은
엄선된 재료만을 사용합니다.
최고의 재료에서 최고의 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 녹수청산은
인스턴트 식품을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성어린 손길에서 맛있는 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 녹수청산은
오직 정성으로 차를 다립니다.

고객 여러분께 깊은 여유와
만족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 소모임, 불자들의 신행모임, 도심 특별 법회, 강연회 등에 장소를 빌려드립니다.

다원 녹수청산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전화 736-3782 ● 교통편 전철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 버스 32, 59, 84, 159, 331, 588-2

조계종 신도회 결성 난항

스님 간여·재가불자 자율성 축소…파행 속출

조계종이 추진하고있는 중앙신도회 결성이 난항을 겪고있다.

중앙신도회 준비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지난 14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린 총회에서 총무원과 위원장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규약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회에서 선임키로한 사무처·차장을 준비위원장이 임명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분과위원장을 준비위원장이 임명하도록해 위원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신도대표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준비위원과 상임위원을 각각 3백명, 1백8명으로 확대했으나 총회및 상임위원회 정족수를 40인, 20인 이상 출석으로 한정해 신도회준비위 관계자 소수의 뜻으로도 신도회가 결성될수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칙으로 신도회는 총무부장, 포교부장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해 재가신도들의 자율성을 축소하고 종단스님들의 신도회운영 참여폭을 넓혔다.

이같은 우려는 총회에 앞서 지난 1일 개최된 확대회의에서 제기되었던 부분으로 당시 사무차장으로 최연씨(재불련 집행위원장)가 내정되었으나 한상범준비위원장이 이상현교수(동국대)를 지명과 함께 선임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한상범 준비위원장은 "준비위원회는 신도회가 구성되기까지 한정적인 기구로 짧은 시간에 신도회를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위원장의 권한이 확대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준비위원회의 독단적인 행보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부 신행단체 관계자들은 "준비위원과 상임위원, 분과위원장 대부분이 총무원과 준비위원장의 친분에 의해 임명되었다"며 "개혁종단의 기치를 앞세워 결성되어야 할 중앙신도회가 총무원의 친위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총무원이 신도회의 격이 떨어져도 내년 총선에 앞서 2월에 신도회를 결성하려는 의도가 보이다"며 "중앙신도회가 또다시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신도회를 원만하게 결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가불자들의 자율성보장 △공개논의를 통한 회장단 선출 △사찰신도회 동시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신도회결성에 동참하고 있는 재가불자들의 일반적 견해다. 〈이준엽 기자〉

10·27법난 진상 규명 청원

조계종 조사특위 구성·자료수집 보고서 작성

5·18 광주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불교 최대 치욕사건으로 기록된 10·27법난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회(위원장 명진)는 지난 13일 '10·27 법난조사특별소위원회'를 구성, 5·18 연속 선상에서 10·27법난에 대해서도 동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법적 청원과 불교계 내부조사를 결의했다.

명진 여연 진관 지만 대원스님 등 5인 소위는 최연(재가연합 집행위원장) 윤남진(전불련 사무처장)씨 등 2인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해 내년 2월까지 피해자육성증언 청취 및 자료를 수집,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3월 종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0·27 진상조사에 들어간 소위는 △10·27 법난 발생의 근본이유는 무엇인가 △청와대·정보부 등에 진정서를 보낸 사람들은 누구인가 △10·27 법난의 입안자는 누구인가 △내부적으로 동조한 부역자는 누구인가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실시한다.

범어사 설법전 기공

97년 9월 완공 예정

제14교구본사 범어사(주지 정관)의 숙원사업이었던 설법전 기공식이 지난 10일 해행당에서 거행됐다.

정관, 혜총(부주지), 춘광(삼광사 주지)스님을 비롯, 문정수 부산광역시장,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장, 박종웅 국회의원등 내외귀빈과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신축되는 설법전은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천2백36평으로 1층은 강당, 종무소 2층은 설법전으로 설계된다. 완공은 97년 9월말이다.

전국신도회 활성대책위 구성

사무국 운영쇄신등 조직 결속 추진

(사)전국신도회는 지난 12일 지회장 대표자회의를 갖고 장기화된 사무국의 운영마비 상태를 타개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전국 각 시, 도지부 회장 54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조직결속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국신도회 활성화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지회장 대표자들은 결의문에서 "조기현회장의 상무대비리 사건 연루로 야기된 신도회의 명예실추와 사회적 물의를 참회한다"며 "96년 1월중 임시 전국대의원 대회를 소집하여 체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신도회는 4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추고 있어 특정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순수한 신행단체로서 부당한 간섭과 제약을 거부하며 자율적인 조직활성화를 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도심포교당 법련사 영산대법전이 웅장한 모습으로 탄생됐다. 내년초 종합회향법회를 갖는다.

경복궁옆 부처님 도량

법련사, 영산대법전 건립…22일 이주법회

억불정책으로 6백여년간 목탁소리가 끊어졌던 서울 경복궁 인근에 부처님 도량이 건립됐다.

동십자각옆에 자리한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주지 현호)는 중창불사 2년만에 지하2층 지상 3층 연건평 1250여평의 영산대법전을 건립하고 입주를 시작했다.

21년전 일반주택을 개조해 개원한 법련사는 불일회를 비롯한 신행단체와 보조사상 연구회등 도심포교당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영산대법전은 지하에 1백여평 규모의 전시실과 다원이 마련됐으며 지상 1층에 지장전을 비롯 불일서점, 불구용품점이 들어섰다. 2층은 불일회관과 시민선방, 3층 1백20평 규모의 대법당 마무리작업이 한창이다. 또한 누각에는 16국사를 상징하는 1천6백관무게의 불일범종과 불일문이 건립중이다.

청와대주변의 고도제한과 보안문제등의 어려움에도 원만히 불사를 추진해온 주지 현호스님은 "전통사찰과 현대건축양식의 조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송광사가 수행도량이라면 법련사는 생활속에 수행하는 포교도량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련사는 오는 22일 동지 및 이주법회를 봉행한다. 〈엽〉

정각원 이용 크게 늘었다

하루평균 1백여명… 작년대비 50% 증가

학생들의 심신수련 도량으로 각종 법회 및 불교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동국대 정각원을 이용하는 수가 1일 평균 1백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정각원이 자체조사한 '95학년도 정각원 법회 및 행사 참석현황조사'에서 지난해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각원은 1년동안 교내 관음회·좌선회등 교내신행단체의 법회, 고승초청법회를 비롯 불교문화사, 불교학 개론 등의 전공·교양수업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정각원은 학생들의 인성교육 일환으로 금년 처음으로 실시한 선실습강좌는 수강희망학생들을 미처 다 수용하지 못할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또 정각원은 교내행사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결혼식을 비롯 각종 문화행사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개방해 놓고 있다.

정각원장 법산스님은 "동국발전이 불교발전이라는 방침을 세워 놓고 학생들을 비롯 불자들에게 불법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각원을 항상 개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관리국 예산

내년 909억원 책정

내년 문화재관리국 예산은 95년도보다 24.7% 늘어난 9백8억9천8백만원으로 문체부 예산 4천2백6억원중 21.6%를 차지하고 있다.

문체부 예산은 96년도 정부예산 57조9천6백21억원의 0.79%에 이르나 문화예술부문을 따로 보면 0.56%에 불과하다. 이 액수는 선진국 문화예술부문 예산이 1% 내외임을 감안하면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내년도 신규사업중 불교문화관련사업을 항목별로 보면 △선운사등 전국 8개 본사의 사찰유물전시관 건립에 40억원 △매장문화재 발굴비지원에 5억원 △백제역사 재현단지조성에 16억원 △청주 고인쇄박물관 건립에 30억원 등이 편성됐다. 또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古都정비에 1백14억4천만원 △신축 국립중앙박물관 설계 및 조선왕궁역사박물관으로의 이전 등에 2백2억7천5백만원이 책정됐다.



◇삼군대학법당 수국사가 32억원 예산을 투입 건평 5백평 규모로 신축됐다.

삼군법당 수국사 '전법행군'

17일 낙성식…중부지역 호국도량 면모 갖춰

대전 삼군대학 법당 수국사(주지 이응규 법사)가 마침내 그 장엄함을 드러냈다.

수국사는 지난 17일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낙성식을 봉행하고 군법당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대전지역 불교전법 중심으로서의 용틀임을 시작했다.

지난 94년 8월 착공해 총 32억원의 공사비를 투입, 이번에 선보인 수국사는 대지 1천4백여평에 건평 5백여평 규모로 한 개의 건물내에 법당을 둘러싸고 요사체등이 마련돼 있는 독특한 구조로 짜여져 있다.

수국사가 위치한 곳은 군 최고 고급교육기관인 육·해·공군 대학을 비롯 많은 부대들이 들어서 있는 유성구 자운동. 따라서 영관급 이상 고급장교들을 대상으로 포교일선에 나서게 될 수국사의 건립의미는 매우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군의 특성상 지휘관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들을 상대로 한 전법은 군포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이 지역에는 삼군 대학뿐만 아니라 각급 교육기관이 모여 있어 포교만이 아닌 군 교육과 정보의 흐름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국사는 명실상부한 군포교의 중심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따라서 수국사는 삼군대학 교육생뿐 아니라 이 지역의 군인가족, 장병들을 대상으로한 새로운 포교프로그램을 마련, 군불자 정신전력강화등을 통해 호국호법도량으로서의 면모 갖추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수국사는 이지역 불자들을 위해 법당을 개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정기법회는 물론 불교 교양대학 설치, 각종 신행단체 조직등 궁극적으로 지역 불교회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군포교는 물론 중부지역 최고의 전법도량으로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대전=한명우 기자〉

결국 범어사앞에 아파트 설립

양측 소취하… 불자·주민들 반대 '공염불'

지난 4월부터 8개월여를 끌어온 금정산 범어사 초입 경동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가 범어사(주지 정관)와 경동건설(대표 김재진) 양측의 일괄 소취하로 마무리 됐다.

이로써 범어사 스님 40여명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경동건설은 아파트 설계고도를 1백98m로 제한해 시공하게 됐다. 범어사도 그간 공사지연으로 인한 54억여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뜻을 비쳐온 경동건설에 대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그동안 수차에 걸친 건립반대 집회, 단식농성 돌입, 산문폐쇄 고려(8월16일), 부산 자연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결성, 집회, 가두시위(9월2일) 등을 벌여온 불자 및 부산시민들은 범어사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으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승가대 김포이전 1년 연기

사업비 미확보…정원등 규모 축소키로

중앙승가대학의 김포학사 이전이 1년 연기됐다.

중앙승가학원 이사회(이사장 월주)는 지난 8일 이사회를 통해 김포학사 건립에 따른 이전비용의 미확보와 관련 준비업무의 지연을 이유로 학사이전을 연기키로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또 1천여명 정원 671억원 공사를 한다는 계획을 수정, 2백억원 내외에서 1차년도 사업으로 정원 4백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학본부, 강의동, 운동장 조성공사를 하기로 책정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사장 직무대행 혜창스님, 이사 정우스님, 학장, 법인 사무처장, 교육원장, 승가대 대책위원장, 승가대 기획실장, 대책위 간사 등으로 이전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 학사 이전에 따른 제반사항을 추진키로 했다.

같은 날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승가대 대책위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보고받고, 학사이전 연기의 불가피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118차 종회에서의 결의내용과는 달리 소쩍새마을 복지법인을 단독추진하고 있는 중앙승가대의 실무진들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 징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성문스님이 대책위 새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소쩍새마을 장애인

26일 3쌍 화촉밝혀

소쩍새마을(원장 보각스님)에서 생활하는 가족 가운데 장애인 3쌍이 오는 26일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

신축될 소쩍새마을 법당에서 화촉을 밝히게 되는 이번 결혼식의 주인공은 최도식씨(36세)와 이민아양(나이 미상), 허춘재씨(25세)와 신동림양(20세), 전유성씨(23세)와 이미영양(나이 미상). 장애를 딛고 소중한 사랑의 결실을 맺는 이들의 신방은 콘테이너박스를 개조한 독립공간에 마련된다.

한편 소쩍새마을은 26일 개국건물의 완공과 함께 부처님의 봉불식을 갖는다.

강원도 사찰 불교복지 앞장

건봉·신흥·극락사등

최근 강원도내 사찰들이 대형 불사를 회향하고 각 종단별로 사회복지시설을 건축하는 등 다양한 포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선도에 나서고 있다.

고성 건봉사(주지 현소스님)는 지난달 24일 대웅전과 산신각을 복원, 낙성식과 점안식을 봉행한 것을 비롯, 내년에는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봉서루, 대지전, 사성전, 대석단, 어실각 등을 복원할 계획이다.

속초 신흥사(주지 자흥스님)는 지난 3일 '가사불사 및 선망부모 유주무주 고혼천도 영산대법회'를 봉행하고 영동지역 포교에 적극 나서고 있다.

평창 극락사(주지 자용스님)도 올해 도내 최고시설과 규모를 자랑하는 '연화유치원'을 개관하고 유아포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월정사(주지 현해스님)도 지난 10월 교계에서는 처음으로 군불자 8백여명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여는등 군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구치소 고혼 천도재

부산 교정교화불교회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들에 대한 발길이 예년에 비해 뜸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구치소 교정교화불교회(회장 김정각)가 구치소 고혼 천도법회를 가져 훈훈한 세밑 인정을 느끼게 했다.

지난 9일 부산구치소 대강당에서 재소자 2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천도법회에서는 정각, 도성(태종사 조실), 춘광(삼광사 주지)스님을 비롯 30여명이 영가의 극락왕생과 구치소내의 평안을 기원했다.



◇내년 불교청소년의 해를 앞두고 실시된 한국불교청소년지도자대회는 청소년지도자들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전국규모 청소년단체 결성하자"

지도자대회서 시도별 수련원설치등 의견제시

전국의 불교 청소년지도자들이 한 자리에서 만났다.

지난 '9, 10일 양일간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개최된 '한국불교청소년지도자대회'에 참석한 3백여 청소년지도자들은 전국규모 단체를 통한 미래 한국불교의 희망적 구축을 위해 청소년포교의 방법을 모색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규모의 청소년단체 설립의 당위성이 일선 지도자들의 의해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 지도자의 밤과 분과토론을 통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전개해 온 포교활동을 소개하고 청소년 포교활동의 의지와 결속을 다졌다. 또한 전국 청소년지도자들의 재조직, 전국 사찰의 포교 의무화, 초·중·고 연령별 연구원 설치, 각 시도별 수련원 설립, 지도자 연수기회 확대 등 청소년 포교의 활성화에 대한 활발한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지방 불교학생회와 청소년 신행단체에 대한 조직적인 포교자료 및 예산지원이 시급하다는데 목소리를 같이한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포교의 종책부재에 대해 지적하고, 종단차원의 계획적인 재정마련을 기대했다. 한편,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 신행혁신 운동에 지도역량을 최대한 발휘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청주=도필선 기자〉

21일 봉은사 윤이상씨 49재

故 윤이상씨의 49재가 오는 21일 오후3시 봉은사 대웅전에서 49재봉행준비위원회(위원장 무상스님) 주최로 열린다.

불교영상물 우수성 인정

btn '출가! 새로운 탄생' 케이블TV 금상

'백양사의 전통다비' 씨엔필 영상음반 대상



◇황학봉감독



◇이인성 PD

불교를 소재로한 영상물이 줄이어 시상대에 올라 주목을 끌고있다.

영화제작사 씨엔필이 제작한 '백양사의 전통다비'는 지난 10일 영상물과 음악의 한해를 결산하는 '95 영상 음반대상'에서 골든 비디오 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백양사의 전통다비'는 만암스님의 행적을 그린 영화 '마지막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네'를 촬영하며 다비식장면을 별도로 비디오화한 작품.

제작자인 황학봉감독은 "만암스님의 다비식을 재현하던 중 백양사의 신비한 전통다비의식이 문화재적 가치를 받을만큼 탁월하여 별도로 제작했다"며 "백양사의 다비를 통해 숭고한 불심의 세계가 일깨워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불교TV가 초파일 특집으로 방영한 '출가! 새로운 탄생'이 지난 12일 '케이블TV 우수프로그램시상 및 송년회'에서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선정 케이블TV 금상을 수상했다.

'출가! 새로운 탄생'은 출가하여 사미계를 받기까지 새스님이 탄생하는 과정을 우리나라 최초로 밀도있게 표현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담당PD 이인성씨는 "불교와의 만남이 좋은 인연되어 수상한 것 같다"며 "촬영을 하면서도 3보1배와 오후불식하는 행자스님들에게 '큰스님 되어달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촬영에 임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원우 기자



수업기

그림이 있는 불교에세이

텅빈 백색화면은 은산철벽(銀山鐵壁)이다. 가슴시릴 만큼 차가운 은산철벽…. 똑바로 걸어 들어간다. '노동'과 무심(無心)이란 두개의 푸른기둥 사이로 한발 한발 꾸준히 걸어 들어간다.

닥지의 신경세포를 섬세하게 다스려서 벗겨내고 색(色)의 향기가 피어오르도록 색채를 배합하고 나무결의 풍성을 파악하여 아름다운 형태로 현현시키고….

이렇게 인연이 닿은 재료들과 하나되는 행위를 노동을 통하여 서두르지 않고 진행한다.

그렇게 꾸준히 기다보면 바탕이 만들어 진다. 그러나 그 바탕은 재료의 특성이 가장 자연스럽게 발현된 바탕이긴 하나 그 특성만으로는 화면이 갖춰질 수가 없다. 그 위에 진득한 리얼리티가 스며들어야 한다. 그것이 스며들지 못한 작품은 구르지 않는 바퀴와도 같다.

이 스며드는 과정이 오직 무심으로 점철되어야 하는 자리이다. 즉 모르는 마음으로 바탕에 접근해야 한다. 참으로 문이 열리는 그 순간은 마음 안에 어떠한 구상도 주제도 다 밋어 던진 알몸 그 상태, 그 찰나이다.

그러나 문이 열린 그 상태에 집착하면 순간 또 문은 굳게 잠기고 작품은 표류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순간 순간 오직 모르는 마음으로 걸어가야 한다. 그림이 완전하고 옳지도 말고 그림이 잘 된다고 웃지도 말고.

숱한 표류와 전환끝에 무심의 꽃은 피고…

작업을 하면서 항상 겪게되는 과정이다. 백학간두에서 서너차례 뛰어 내려야지 한 작품이 탄생한다. 소품일지라도 표류와 전환이 거듭된 후에야 꽃이 피어난다. 전환되는 순간은 가히 사공을 초월한 자리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 은산철벽이 돌아는 순간이다. 긴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의 체화(體化)된 작품이 탄생한다.

이러한 작업과정이 삶과 분리될 수 없는 작업행(作業行)이고 이렇게 하여 예술이 '삶'이라는 수업기의 한 엽주줄에 꿰어지게 되었다.

날이 저물면
맑은 바람만 호릿하게 오소서
바람도 지면
새벽별빛만 남겠지…

오 숙 례 〈회기〉

고침 지난 57호 본란 기사중 첫행 '乙' 16행 '𠂇'이 탈자 되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인 연 ㊸

주부신행담



살림하랴 직장생활하랴 몸은 고달팠지만 불교교양대학에서 2년간 공부하다 보니 진리의 바다에 몸을 담군 느낌이 들었다

어느 날 남편이 내게 다도(茶道)배우기를 권유했다. 차는 불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불교는 차(茶) 향기처럼 내게 다가왔다. 담백하면서도 은은한 향기를 그래서 조금은 맘을 줄 안다.

다도를 접한 것이 간접적인 불교세계에 대한 체험이라면 본격적으로 불교에 문 두드린 것은 절을 하는 것이었다.

남편을 따라 절에 갔다. '도대체 불교가 뭘까' 하는 눈으로 도량을 돌아보니 학창시절 소풍이나 수학여행때 관광차 보던 것과는 달리 느껴졌다. 정적음은 컸지만, 더욱 부담스럽고 크게만 느껴졌다. 무엇부터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행동거지가 조심스러워졌다. 남편은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제대로 절하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며 법당으로 이끌었다. 왜 절하는 지도 모르고(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그저 열심히 절을 했다. 0 후 시간나는대로 불교를 아는 길이라니 하며 절에 가서 절을 했다. 처음엔 숫자를 헤아리기도 하고 불교가 뭘까 혹은 왜 이러고 있나 하는 상념들을 떠올리기도 했지만 이상스럽게도 시간이 가면서 모든 망상이 사라져 갔다.

'절(拜)을 많이 해서 절(寺)이 리 한다'는 말도 있지만 절에 가 절을 하다보면 정말 하심(下心)이 생긴다. 남편은 신앙이라는 것은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남편이 불교신자라고 아내에게 절에 나가라고 강요한다는 것은 '지극히 불교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개개인의 인격과 자존심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 만큼 그 사람의 신앙선택의 자유도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런 그의 태도 때문에 더더욱 불교기 참으로 사람을 관하게 하는 종교임을 발견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찰에 다니게 됐고, 남편이 하는 불교활동에 거부반응이 없어졌다.

그러자 남편은 내게 기도하는 방법 참선하는 법 등 불교의식을 가르쳤다. 내가 원만큼 하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지금부터는 스스로 체험을 하면서 생활불교로써 터득해 보라는 것이었다.

나는 절에 다니게 되자 철야기도도 자주 하고 싶고 사찰의 각종 행사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싶었다. 그러나 살림하랴 직장생활하랴 몸이 고달과 지금껏 마음뿐이다.

불교를 알아야겠다는 의욕이 부쩍 커지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불교대구교육원에 수강신청을 한 것이 벌써 5년 전이다. 거기에서 기초교리부터 시작해 고급과정까지 2년 동안 배웠다. 사실 공부하러 나가서 끄덕끄덕 졸기도 하고 시간맞추기도 힘들었다. 그러나 체계적인 공부를 하게 되니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겼다.

불교대학에 다닌 것이 참으로 소중한 경험이다. 그곳에서 진지한 도반들을 많이 만난 것은 큰 인연이라 생각한다.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넓고 넓은 진리의 바다 한 부분에 몸을 담군 느낌이 들어 나는 주위 많은 이들에게 초하루니 보름에 그냥 사찰에만 나갈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불교공부를 시작해 보라고 권유하곤 한다.

불교공부를 하다보니 남편이 정말 위대하게 느껴졌다. 머리로만 익히기도 어려운 불교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니 말이다.

넉넉하지 못하고 층층시하인 시댁에 들어와 처음엔 갈등도 있었지만 이러한 남편의 열의에 찬 모습, 성실한 자세에 마음이 든든했다. 요새는 '이런 것이 사람사는 모습이구나' 하며 오히려 만족스럽게 살고 있다.

사실 남편의 불교일을 하는 그 마음과 추진력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다. 하루는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장손만 아니었으면 출가를 했을텐데… 이제 동생이 결혼시키고 나면 출가하겠다."

나는 마음이 덜컥해서 다음과 같은 농담으로 응수했다. "출가하려면 지금 하세요. 한살이라도 적은 나이라야 나도 고생 덜하고 다른 데(?)로 갈거 아니예요"라고. 그리고 나서 둘이 한바탕 웃었다.

허 위 화 〈대구시 북구 관음동〉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⑳

♦ So this ploughing is ploughed, it bears the fruit of immortality. having ploughed this ploughing one is freed from all pain.

나는 이런 농사를 지어서 마침내는 저불멸의 과일을 얻매 맺게 하나니 나처럼 농사를 짓게 되면 그대도 이 모든 고뇌로 부터 해방되리니.

♦ Then the Brahmana Kasi-bharadvaga, having poured rice-milk into a golden bowl, offered it to Bhagavat, saying, Let the venerable Bhagavat eat of the rice-milk ; the venerable is a ploughman, for the venerable Gotama ploughs a ploughing that bears the fruit of immortality.

그때 바라드바자는 놋쇠그릇에 우유를 담아서 스승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수행자여, 이 우유죽을 받으십시오. 당신이야말로 훌륭한 농부입니다. 저 불멸의 과일을 얼리게 하는 농부입니다."

♦ Bhagavat said : What is acquired by reciting stanzas is not to be eaten by me ; this is, O Brahmana, not the Dhamma of those that see rightly ; Buddha rejects what is acquired by reciting stanzas, this is the conduct (of Buddhas) as long as the Dhamma exists.

그러나 스승은 말했다. 시를 읊은 그 대가로 얻은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 오, 바라드바자여, 이것은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시를 읊은 그 대가로 얻은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모든 깨달은 이의 생활태도다.

'freed (free의 과거, 과거분사형) free from자유롭게 하다.
'venerable 존경할 만한, 존엄한
'recite (시를)암송하다, 상술하다.

한명우 기자

한국의 정신 성철 큰스님



헤어지면 꿰매어서 입고입고하여
이제 더 이상 꿰맬데도 없는 누더기 한 벌,
무소유의 삶을 살다간 성철 큰스님이
남기신 유일한 유품입니다.
그러나 스님이 우리들에게 남기신 족적과
가르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밝게
빛납니다.
쩌렁쩌렁하게 가야산을 흔들던
그 고함소리가 그리운 만큼 스님의
모습은 더욱 생생하게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큰스님이 들려준 이야기1
우리 시대의 부처 성철 큰스님

평생을 성철 큰스님을 모신 원택스님이 그 동안 스님에게 들은 얘기들을 모아 책으로 엮었습니다.
성철 큰스님은 산승이라 하여 산을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 명성은 높아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과장되게 그려진 면도 있어 이를 바로잡으며, 스님의 출생, 청소년기, 출가, 깨달음, 운수, 돈오돈수, 백일법문, 삼천배 등을 통해 가야산 호랑이로 평생을 살다가신 수행자로서의 삶을 간결하게 담았습니다.
앞으로 이 시리즈는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값 3,500원



SBS 부처님 오신 날 특집
스님, 성철 큰스님

SBS 서울방송에서 부처님 오신 날 특집으로 방영한 성철 큰스님 이야기 입니다.
이 비디오 한 편에 스님의 삶과 수행과 깨달음, 열반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성철 큰스님에 대한 많은 자료 가운데에서 가장 그 정수만을 모아서 만든 것으로, 이 한 편이면 큰스님의 전체적인 풍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값 20,000(비디오 한 편, 나레이션북)



장경각 미디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2-13번지 성지빌딩 503호. 전화(02)733-4277, 팩스(02)733-4279
장경각이디어와 거래가 없는 서점은 (주)보문당(02-498-2293, 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큰스님 관계 단행본, 비디오 테이프, 오이오 테이프는 전국 서점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역할마다 있는 한무리문고 서점에서도 전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큰스님 육성테이프
큰스님 생전의 육성법문으로 불교는 과학이 발달될수록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증명이 된다며 불교의 바른 이해와 실천 방법을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철스님의 생생한 육성으로 스님의 법문을 직접 들으면 새롭게 법문을 음미해 볼 수 있습니다. 들을수록 새롭게 다가오는 큰스님의 법문은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값 40,000원(테이프 14개)



선림고경총서
선수행에 꼭 필요한 선서들을 성철스님이 골라주어 알기 쉽게 우리말로 옮긴 최초의 종합 선서집. '선림고경총서'입니다. '선림고경총서' 서른일곱 권은 달마대사부터 고려 공민왕의 왕사였던 나옹스님에 이르기까지 선종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선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뛰어난 선지식의 확두와 행적, 계송들은 선수행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전6권 2004쪽 선학은 주문을 받습니다.
보존판(고급양장본) 값 270,000원(전37권)



성철스님 법어집
성철 큰스님이 지난 서른 해 동안 참처 온 법문을 모은 '성철스님 법어집'입니다. '성철스님 법어집' 열한 권은 지난 60년대에 해인총림의 방장이 된 뒤로 활발하게 대중 교화의 길을 열어 수행을 통하여 깨달은 모든 경지를 대중설법과 강설로 설파해 온 것을 묶은 법어집입니다.
한국 선불교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성철스님의 깨달음의 세계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보존판(고급양장본) 값 80,000원(전 11권)



비디오 5부작
스님, 성철 큰스님
비디오 "스님, 성철 큰스님"은 성철스님의 제자들로 구성된 성철스님문도회에서 직접 기획, 제작하였습니다. 가까이서 스님을 모신 상좌들이 직접 리포터로 출연하여 일 년이 넘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성철스님의 가르침과 수행의 모든 과정을 담았습니다.
특히 입체적인 컴퓨터 크로마키를 이용한 특수화면 합성, 헬기 촬영과 미속 촬영 등으로 현대적 감각의 영상 구성과 함께 현장감이 뛰어납니다.
값 100,000원(비디오 다섯 편, 나레이션북)

